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2014년 4월 29일 화요일 제895호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투자 BanKIS®

불붙은 글로벌 M&A, 한국은 불구경

제약·에너지기업 등 인수·합병 통해 사업재편 잰걸음
올들어 1조2000억 달러 규모… 2007년 이후 최고치
국내시장은 불확실성에 매물만 쌓여 경기회복 '발목'

글로벌 인수·합병(M&A) 열기가 실로 뜨겁다. 그러나 한국은 매물만 쏟아져 나오고 인수에 나서는 기업이 보이지 않는 등 침체 그 자체다. ▶관련기사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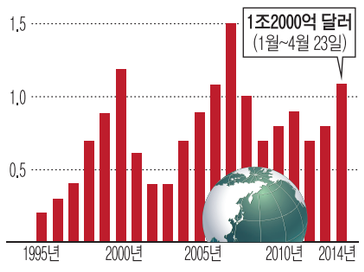
금융정보업체 딜로직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3일까지 글로벌 M&A 규모는 약 1조2000억 달러(약 1244조원)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2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2% 급증한 수치다.

앞으로도 M&A 열기는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미국 최대 제약업체 화이자는 이날 영국 2위 아스트라제네카(아스트라)를 987억 달러에 인수하려고 시도 중임을 확인했다. 화이자는 앞서 지난 1월 5일 아스트라에 현금과 주식을 포함해 주당 46.61 파운드의 인수금액을 제안했으나 아스트라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화이자는 다시 인수가를 제시했는데 지난 25일 종가 기준으로 아스트라 주가에 프리미엄 14%를 얹은 것이라고 화이자는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올 들어 글로벌 제약업계의 M&A 규모가 이미 1270억 달러에 달했으며 화이자의 아스트라 인수가 성사되면 이 규모는 두 배 가까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앞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노바티스, 캐나다 제약업체 발리언트 등이 지난주 대규모 M&A 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 M&A 추이
단위: 조 달러 ※출처:딜로직



제약사뿐만 아니다.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과 독일 지멘스는 프랑스 고속철도 차량·발전설비업체 알스톰 인수전에 나섰다. GE는 알스톰 에너지사업부 인수에 13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지멘스는 알스톰의 에너지사업부를 인수하는 대신 초고속열차 ICE 등 운송설비사업을 내주고 앞으로 3년간 프랑스 인원을 감축하지 않겠다는 구미 당기는 당근을 제시했다.

국내 M&A 시장은 매물만 잔뜩 쌓이고 있다. 30여개 기업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팔린 매물은 손에 꼽을 정도다.

한국 M&A 시장에 냉기가 도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자금이 넉넉한 기업은 있지만 경영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 M&A에 두 팔을 걷고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비슷한 업종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도 M&A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유사한 기업이 쏟아져 나오니 이쪽저쪽 찔러만 볼 뿐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문제는 M&A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기업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경기 회복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를 풀어 M&A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배준호·강인효 기자 baejh94@

박대통령, 화랑유원지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4일째인 29일 아침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조문을 마치고 청와대로 돌아와 국무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은 구조 및 수습 과정에서 나타난 공직사회의 난맥상을 질타했다. ▶ '세월호 참사' 관련기사 4·13면
연합뉴스

단통법 연내 통과 불투명…일단 '자율규제'로

보조금 공시·서킷브레이커 등 시장안정 조치 고시로 만들어
정부·이통사, 5~6월 시행 검토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정부와 이동통신업계가 최근 자율규제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29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조금 공시제도와 함께 번호이동을 제한하는 '서킷브레이커'제도가 이르면 오는 5~6월부터 실시된다.

미래부는 당초 4월 임시국회에서 단통법을 통과시킨 후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단통법이 묶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미래부는 방통위와 협의해 보조금 공시, 소비자 기만행위 금지 등 법의 주요 사안들을 고시로 만들어 5~6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조금 공시제도는 이동통신사들이 홈페이지와 대리점 등에 단말기의 종류별로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단통법의 핵심 내용이다.

번호이동 제한 제도인 일명 서킷브레이커도 본격적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서킷브레이커는 증권 시장에서 주가가 지나치게 급등락하는 경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자동으로 거래가 중지되는 시스템이다. 이를 번호이동 시장에 적용, 방통위가 정한 번호이동 과열 기준 건수 2만 4000건이 넘으면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해 전산망을 일시적으로 차단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이통3사는 서킷브레이커 제도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는 5~6월께 본격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현재 이통3사와 제도 도입과 관련해 구체적 시행방안 등 방법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 도입과 별도로 이통3사는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 시장 안정화에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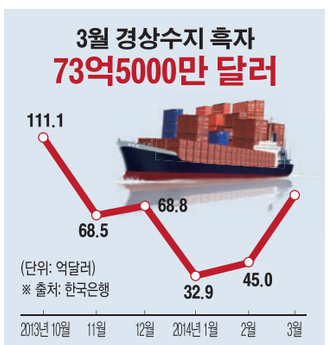
최근 KT는 자사 전용 단말기인 삼성전자 '갤럭시S4' 미니 가격을 25만9600원으로 내리는 등 출고가 인하 대상 단말기를 넓혀 가고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Graphic NEWS

경상수지 25개월째 흑자행진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5개월째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14년 3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액은 73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45억 달러)보다 28억5000만 달러 늘어난 규모다. 올 1분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액은 151억3000만 달러였다. 상품수지의 흑자 규모가 늘고 서비스수지의 적자폭이 줄어든 것이 경상수지 흑자폭을 키웠다. 지난달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80억4000만 달러로 전달(54억 달러)보다 크게 늘었다. 김민지 기자 kimmj@

3월 경상수지 흑자
73억5000만 달러



기업 수익성 10년만에 최저

지난해 국내 기업의 수익성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3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상장기업 1541곳과 주요 비상장기업 169곳의 지난해 매출액영업이익률은 4.6%로 2012년보다 0.2%포인트 줄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3년 이후 최저치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제조·판매와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외손익을 빼고, 순수한 영업이익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지표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이 4.6%라는 것은 1000원어치를 팔아 46원을 벌었다는 뜻이다. 이진영 기자 mint@

국내기업 1000원 팔아
46원 남겼다



'유병언의 돈줄' 한국제약 외부감사 회피 꼼수 의혹

유형자산 100억원 육박하자 감가상각으로 2년새 41% 뚝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비서 출신인 김혜경씨가 지배하고 있는 한국제약이 외부감사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의 재산 축적 과정의 핵심 인물로 김혜경씨를 지목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병언 전 회장의 최측근인 김혜경씨가 한국제약의 지분 68%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2%는 유병언 전 회장의 아들과 계열사 대표이사인 변모씨 등이 나눠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제약은 식품회사이지만 회사명이 제약회사를 표방하고 있어 최근 제약협회로부터 회원사 자격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던 기업이다.

특히 한국제약은 유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이 통상적 기업회계와 다른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약은 지난 2009년 자산 규모가 99억8900만원까지 늘어나면서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외감법은 자산 규모 1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제약의 자산은 이듬해 80억원으로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무상태표상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반영분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국제약은 2010년 이렇다 할 유형자산 증가분이 없었다. 하지만 토지와 건물, 구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이 급격히 이뤄졌다. 건물의 경우 2009년까지 이뤄진 감가상각 누계액은 3억6000만원이었지만 2010년 누계액이 8억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구축물에 대한 2010년 감가상각비도 2009년 누계액보다 3배가량 많은 1억3600만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약은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계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액법은 자산 수명을 정하고 매년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이다. 이에 따라 유형자산의 감소액은 2009년 65억원 수준에서 2010년 47억원으로 급감했다. 게다가 한국제약은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부분을 손익계산서상 전부 반영하지 않고 흑자 구도를 만들었다. 재무상태표상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금액은 27억원 수준이지만 손익계산서상 계상된 금액은 8700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2010년 한국제약은 매출 25%, 당기순이익 200%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상각 대상 자산에 대한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 반영이 동종 산업 내 다른 기업과 비교해 매우 적다"며 "손익계산서상 과소 반영에 따른 당기순이익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현유섭 기자 hyson0214@

삼성전자 영업익 7분기 연속 8조대

1분기 8조4900억…2.14%↑ 〈전 분기대비〉
투자도 순항… 5조4000억

삼성전자가 7분기 연속 8조원대 이상의 영업이익을 이어 갔다.

삼성전자는 29일 올 1분기 매출, 영업이익이 각각 53조6800억원, 8조49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3.31%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2012년 3분기 처음으로 영업이익 8조원을 넘어선 후 △4분기 8조8000억원 △2013년 1분기 8조7000억원 △2분기 9조5000억원 △3분기 10조원 △4분기 8조3000억원을 각각 달성했다.

삼성전자의 올 1분기 실적은 직전 분기와 비교해 매출액이 9.45%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2.14% 증가했다. 1분기 계절적 비수기에 따른 수요 약세 속에서도 무선과 메모리 사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실적을 달성했고, 영업이익률도 개선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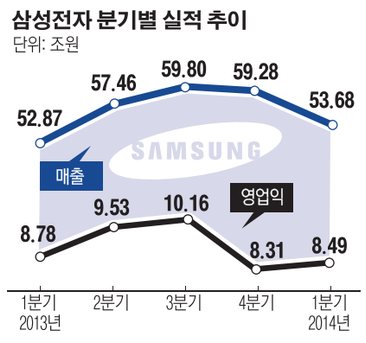
사업별로는 DS(부품)부문의 경우 비수기 영향으로 지난 4분기 대비 매출이 소폭 감소했으나 생산 효율화에 따른 원가 절감, 고부가 제품 확대 등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했다. D램은 서버·그래픽 중심의 수요 강세에 대응하면서 20나노대 공정 전환을 통해 수익성이 향상됐고, 낸드플래시는 고부가 SSD와 대용량 카드 등의 가격 하락에도 수익성을 유지했다. 시스템LSI는 모바일AP의 계절적 수요 감소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실적이 약화됐고, DP(디스플레이 패널)사업은 비수기 패널 수요 감소와 판가 하락의 영향으로 실적이 감소됐다.

IM(IT·모바일)사업은 '갤럭시S4', '갤럭시 노트3'의 프리미엄, '갤럭시 그랜드2' 등 중저가 제품 판매 호조로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 분기 대비 늘었다.

CE(소비자가전)사업의 경우 TV는 계절적 비수기로 전 분기 대비 수요가 감소했으나 선진 시장 중심의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확대됐고, 생활가전은 비수기와 신제품 출시에 따른 비용 증가로 전 분기 대비 실적이 줄었다.

한편 삼성전자는 1분기 반도체 3조3000억원, DP 7000억원 등 모두 5조4000억원의 시설 투자를 진행했다. 삼성전자 측은 "올해 시설 투자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장효진 기자 js62@

삼성전자 분기별 실적 추이
단위: 조원





Market 화요섹션 19~25면

커버스토리
매물로 나온 메가스터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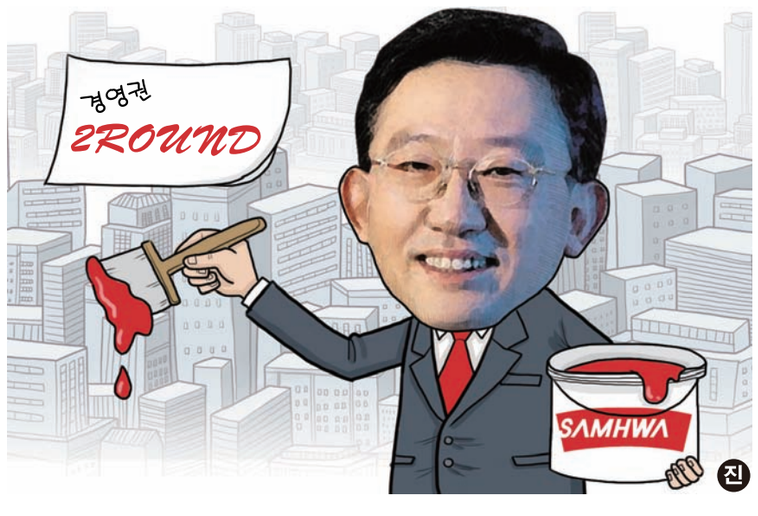

김문식 회장 ▶2


이철영 사장 ▶16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60년 동업’ 삼화페인트 경영권 분쟁 2R

김장연 대표, 故 윤석영 대표 부인 박순옥씨 상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무효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김 대표 작년 200억 BW발행 양측 지분 격차 커져



삼화페인트공업이 경영권 분쟁 2라운드에 돌입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화페인트공업 김장연 대표이사는 과거 공동대표이던 고(故) 윤석영 대표의 부인 박순옥씨를 상대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무효 확인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박순옥씨가 김장연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무효 확인소송에 대해 무효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사채는 이사회 결의와 같은 날 발행, 곧바로 인수돼 박씨 등 주주들이 사채발행에 대한 유지청구권 행사가 당초부터 불가능했다”며 “사채 발행으로 인해 삼화페인트의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돼 박씨 측이 회사에 대한 종래의 지배권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된 점 등을 볼 때 해당 사채 발행은 무효로 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김 대표는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지난 2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은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승소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과 면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화페인트는 창업주인 김복규 회장과 윤희중 회장을 거쳐 2세인 김장연-윤석영 대표까지 60여년간 동업자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윤 대표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면서 현재 김 대표가 단독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4월 시너지파트너스와 산은캐피탈, 신한캐피탈 등을 대상으로 총 200억원 규모의 BW를 발행했고, 발행과 동시에 신주인수권 워런트 100억원어치를 인수했다. 워런트를 행사하면 김 대표 측 지분율은 기존 30.34%에서 36.1%로 늘어나게 돼 윤 대표 일가와 지분율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지난해 말 기준 김장연 사장 측 지분율은 30.34%로 윤씨 일가 지분율 27%와 비슷한 상황이다.

한편 삼화페인트은 경영권 분쟁 이슈 외에도 실적 호조와 주가순자산비율(PBR)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며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33.01% 치솟았다. 박중선 키움증권 연구원은 “페인트산업은 산업 내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실적도 타 산업 대비 안정적 측면이 있다”며 “자산주로서의 매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화페인트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453억원으로 전년 대비 92.6% 증가했고, 매출은 4991억원으로 14.8% 늘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도 292억원으로 82.4% 증가했다.

김미정 기자 mjk@

김한조 외환은행장 ‘하나 껴안기’ 산 넘어 산



통합 첫 단추 카드사업 분사
금융당국 인가 계속 미뤄져
김종준 행장 중징계 새 걸림돌
외환·하나 벌어지는 실적차
노조 반발도 더 커질 가능성

지난달 외환은행 수장에 오른 김한조〈사진〉 행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취임 초기부터 통합과 영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각오가 무색하게 곳곳에서 암초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의 첫 단추로 꼽히는 외환은행 카드사업 분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인가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당국의 심사가 더 깐깐해진 데 이어 주력 개열사인 하나은행 김종준 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미래저축은행에 투자해 손실을 입혀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것이 새로운 걸림돌로 떠올랐다.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카드 분사 승인을 계속 지연하면서 간접적으로 김 행장의 퇴진을 압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 열리는 정례회의에 외환은행 카드사업부문 분할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두 은행 간의 실적차도 부담이다. 5년 독립경영을 주장하고 있는 노조의 반발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외환은행은 판매관리비 및 대손충당금 전입액 감소에 따라 76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전년 동기 대비 149.7% 증가한 규모다.

반면 같은 기간 하나은행은 국민행복기금 손상차손과 KT ENS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추가 충당금 적립으로 순이익이 12% 줄어든 2002억원에 머물렀다.

김종준 행장 중징계 이후 하나은행 내부통제와 실적, 지배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한조 행장이 통합에 드라이브를 걸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김 행장이 취임 직후부터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접촉하며 카드분사 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해 온 걸로 안다”며 “그런데 외부가 아닌 내부 변수 때문에 인가가 지연되고 있어 김 행장도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

“멀쩡한 주유소만 조인다고 가짜석유 거래 없어지나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주유소협회 주최로 열린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오른쪽 두번째)이 정부의 규제 강화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부, 석유거래상황 보고 월간서 주간 단위로 변경
종업원 한두명 영세 주유소 탁상행정에 부담만 가중

김문식〈사진〉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요즘 머리가 복잡하다. 회장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풀어야 할 난제가 생겼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짜 석유 거래를 근절하겠다며 오는 7월부터 석유 거래 상황 주기를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바꾸겠다고 발표하자 전국 주유소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직원 한두 명으로 연명하고 있는 주유소들은 사실상 ‘거래상황’ 보고에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할 여력도 없는 상황이다. 평균 영업이익률은 불과 1% 수준. 종업원 한두 명뿐인 주유소가 전체의 67%에 이르며 이 중 35%는 1인 기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국 1만 3000여개에 달하는 주유소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를 설득하고 대안을 마련하기까지 시간이 얼마 없다.

김 회장은 지난 28일 한국주유소협회를 대표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내놓은 근절 대책이라는 것이 대다수 주유소를 억압하는 보고 주기 강화 정책일 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사실상 가짜 석유의 유통은 제조원료 구입이 용이하고 손쉬운 제조법이 주된 원인으로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주간보고 규제대상에 국내 등유판매의 23%를 차지하는 일반판매소와 가짜 석유 적발률이 60~70%에 이르는 대량 소비처가 제외돼 있다”며 “이같이 실효성 없는 정책은 영세한 주유소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에 따르면, 주유소의 평균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서 작성 소요시간은 월 20~25시간에 달하며, 이는 월간보고서에 비해 15~20시간 정도 더 길다.

실제 협회가 1441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석유 거래 상황 보고제도 변경 사항에 대해 응답 기업의 91.2%가 이를 인지하고 있고, 이 중 70.4%가 ‘매우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정부는 국민과 주유소 업계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후 최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가짜 석유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 강화 △유류세율 조정을 통한 유종 간 가격차이 축소 △현장의 업계와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노상검사 등 현장 단속 강화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등을 제시했다. 2009년부터 한국주유소협회 경기도지회의 지회장을 맡았던 김 회장은 2012년 2월 협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하유미 기자 jscs508@



현금비중 낮추고 주식 늘려…글로벌 경제회복 기대감

〈2007년 76% → 올 47%〉 〈2007년 8% → 올 19%〉

올해 M&A 동향, 과거와 다른 점은

2007년엔 무리한 현금 차입으로 거품 호황
과거 20년간 M&A 때 인수기업 주가 하락

올해는 현금·주식 적절히 혼합해 내실 추구
인수기업 주가 급등…메가딜도 크게 증가
전문가들 "과거 묻지마 투자와는 다른 모습"

올해 글로벌 인수·합병(M&A)이 2007년과 달리 충분한 내실을 갖췄다는 분석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M&A가 글로벌 경제회복을 실질적으로 이끌 견인차가 될 것이라는 기대까지 내놓고 있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28일(현지시간) 기사에서 2007년에는 기업들이 무리하게 현금을 차입해 M&A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주식 결제 비중이 커지는 등 기업들이 더욱 합리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정보업체 딜로직의 분석에 따르면 2007년 첫 4개월간 현금으로만 M&A 대금을 치른 경우는 전체의 76%에 달했다. 반면 올해는 현금 비율이 47%로 200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주식으로만 M&A 대금을 치른 경우는 2007년의 8%에서 올해 19%로 확대됐다. 주식과 현금을 섞어서 낸 경우는 2007년 14%에서 올해 33%로 대폭 늘었다.

영국 바클레이스의 폴 파커 글로벌M&A 대표는 "최근 빅딜이 잦아졌지만 현재 M&A시장에 2007년처럼 거품이 끼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올해 M&A 특징은 자본 상황이 좋은 대기업이 비교적 규모가 크고 전략적인 딜을 한다는 것이며 주식과 현금을 적절히 혼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수아 자비에 드몰망 골드만삭스 소비자·소매 부문 글로벌 공동대표는 "2007년은 강력한 자본시장 환경에 힘입어 기업들이 막대한 차입(레버리지)을 이용해 너나없이 M&A에 뛰어들던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다"며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기업들이 대형 M&A 추구에 대한 위험성을 확실히 인식했다"고 강조했다.

올해 M&A가 과거 거품 시기처럼 호황을 보이고 있지만 기업들이 '묻지마 투자'와는 확실히 동떨어진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증거는 주가 흐름에도 나타나 있다고 FT는 강조했다. 과거 20년간 글로벌 증시에서는 M&A 소식이 전해지면 해당 인수기업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M&A 이점보다는 인수에 따른 자금부담을 우려한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M&A 발표가 나온 날 인수기업 주가가 평균 4.4% 급등했다. 이는 딜로직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 폭이다.

드몰망 대표는 "M&A 중 대부분은 느닷없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인수 기회를 노리고 묵혀뒀던 것을 다시 펼치고 있는 셈"이라며 "지금까지 M&A에서 부족했던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자신감이 거시경제 전망의 호전, 주가 회복과 더불어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역설했다.

올해 개별 M&A 규모가 유달리 큰 것도 다른 때와 다른 특징이다. 올 들어 지금까지 발표된 M&A 가운데 전체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13건이 100억 달러 이상의 '메가 딜'이었다. 이는 지난 1995년 이후 평균치인 22%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다만 모건스탠리의 밥 에스트로프 미국 M&A 담당 공동대표는 "증시와 M&A는 같이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수년간은 정반대였다"며 "지난해 미국증시가 30% 이상의 강세장을 보인 반면 M&A 활동은 거의 정체됐기 때문에 올해 M&A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시기	인수기업	주요 내용
1월	GE헬스케어	더모피셔 생명과학사업부 3개 10.6억 달러에 인수
	산토리	미국 위스키업체 빔 160억 달러에 인수
	구글	디지털 온도조절장치업체 네스트랩스 32억 달러에 인수
	페이스북	인터넷 토론장업체 브랜치 · 포틀럭 1500만 달러에 인수
	레노버	IBM 서버사업부, 모토로라 총 52억1000만 달러에 인수
	피아트	크라이슬러 잔여 지분 36억5000만 달러에 완전 인수
	리버티글로벌	네덜란드 케이블업체 지고 100억 유로에 인수
2월	페이스북	모바일 메시징 앱 왓츠앱 190억 달러에 인수
	알리바바	오토내비 16억 달러에 인수
	컴캐스트	경쟁사인 타임워너케이블(TWC) 452억 달러에 인수 합의
	액타비스	포레스트랩스 250억 달러에 인수
3월	페이스북	가상현실 안경업체 오큘러스 20억 달러에 인수
	보다폰	스페인 최대 통신사 오노 72억 유로에 인수
	텐센트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JD닷컴 지분 15% 약 2억 달러에 인수
	알리바바	중국 동영상스트리밍업체 차이나비전 8억4000만 달러에 인수
4월	알티스	프랑스 2위 이통사 SFR 170억 유로에 인수 합의
	화이자	영국 2위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987억 달러 인수 제안
	GE · 지멘스	프랑스 고속철 · 발전설비업체 알스톰 인수전
	노바티스	글락소스마스클라인 항암제 사업부 최대 160억 달러 인수 합의
	글락소	노바티스의 백신 사업부 71억 달러에 사들여
	일라이릴리	노바티스 동물의약품 사업부 54억 달러에 인수
	발리언트	보톡스제조업체 앨러간에 470억 달러 인수 제안



2014년 글로벌 주요 M&A

매물만 쌓이는 한국 M&A 시장

국내 M&A 시장 현황

매물		매각	인수
STX그룹 계열	STX팬오션, STX유럽	동부익스프레스	KTB프라이빗에쿼티
동부그룹 계열	동부하이텍, 동부제철 인천공장	동양증권	대만 위안다 증권
동양그룹 계열	동양매직, 동양시멘트,	OB맥주	AB인베브
현대그룹 계열	현대상선, 현대증권		
기타	우리은행, 한진해운, 대우조선해양, LIG손해보험	우리투자증권	농협금융지주



외국 기업은 '군침'흘리는데 국내 기업 "인수 매력 없다"

동종업계 매물 동시에 나와 시들해져
정부, PEF 규제완화 등 활성화 나서

글로벌 인수·합병(M&A) 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M&A 시장은 주요 기업들이 매물로 쏟아져 나왔음에도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종업계의 매물이 한꺼번에 많이 나와 매수자들의 인수 매력이 떨어진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29일 M&A 업계에 따르면 최근까지 국내 M&A 시장에 나온 기업 수만 30여개에 달하며, 금액은 4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매물로 나와 있는 대기업은 △STX그룹 계열 STX팬오션·STX유럽 △동부그룹 계열 동부하이텍·동부제철 인천공장 △동양그룹 계열 동양매직·동양시멘트 △현대그룹 계열 현대상선·현대증권 등이다. 이밖에 우리은행, 한진해운, 대우조선해양, LIG손해보험, KDB생명, 쌍용건설 등 규모가 큰 매물들도 M&A 시장에 나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팔린 매물들은 손에 꼽을 정도다. 동부익스프레스가 KTB프라이빗에쿼티에, 동양증권이 대만 위안다증권에, OB맥주가 AB인베브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부하이텍 경우 해외업체에 매각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동부하이텍의 매각 주관사인 산업은행과 노무라증권은 최근 동부하이텍 인수를 희망하는 복수의 해외기업과 비밀유지약정서(CA)를 체결했다.

이처럼 M&A 매물은 넘치지만 메가딜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경기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기가 악화될 경우 자금줄이 마른 기업들은 다른 사업에까지 관심을 가질 만한 여력이 없어 M&A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전문가들은 M&A 시장에 한꺼번에 동종업계 매물이 쏟아지면서 인수주체들의 인수 매력을 떨어뜨렸다고 '타이밍' 문제를 꼬집었다. 한 M&A 업계 관계자는 "최근 매물로 나온 기업들을 보면 비슷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동시에 나오는 바람에 원매자들의 인수 매력이 시들해진 측면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간만 보고 빠져나오고 있어 M&A가 좀처럼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M&A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6일 M&A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정부는 PEF·전략적 투자자·M&A 매수자가 자금 조성·투자, 관리, 회수 단계별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고, 토종 PEF의 자금조성과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를 줄이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 M&A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졌다. 대량화물 화주가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해운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M&A 시장 진입에 대한 제한도 완화하기로 해 STX팬오션과 대우로지스틱스 등의 매각작업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어 지난 24일에는 M&A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까지 마련, PEF의 투자자금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강인효 기자 kangih@



세월호 침몰 참사 목포해경 구조상황 영상 보니

주위만 빙빙… 생존자 탈출 방송 안해

재난대응 체계없이 우왕좌왕
"열심히 했는데…" 면피성 발언
합수부, 목포해경 압수수색
'제 식구 감싸기' 비난 확산

"기다리래. 안내방송 이후 다른 안내방송을 해주지 않는다."-세월호에서 단원고 학생이 지난 16일 오전 10시 17분 마지막 카카오톡한 내용.

"함내 경보를 이용해서 승객 모두 바다에 뛰어내리라는 방송을 실시했습니다." "선내에서 들리나요? 여기서도 잘 안들리는데." "여객선 내는 모르죠 하지만 밖에서는 들리죠."-세월호 최초 구명함정의 김경일 목포해양경찰 123정장의 28일 오전 11시 언론인터뷰 내용.

선박 사고의 구조를 책임지는 해양경찰이 지난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때 소극적 구조활동 등 초기 구조대응 부실로 사고를 더 키웠다는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그동안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부)도 구조수습 때문에 미뤄 왔다. 하지만 식구인 해경의 초기 대응 미흡, 직무 태만 등 초동대처에 문제가 있다는 거센 여론이 일면서 결국 28일 목포해경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칼끝을 해경에 겨누고 있다.



28일 오전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해경의 '근무 태만'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을 마친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들고 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이번 압수수색이 합수부가 세월호 참사 관련해 문제가 된 기업이나 검사기관 압수수색과 달리 미리 예고된 압수수색인 데다 벌써 수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직무유기로 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한마디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면서 합수부가 아닌 대검 등 상위기관에서 해경 부실조치 수사를 전담해야 한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합수부가 본격적 해경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해경은 그동안 공개를 꺼려 왔던 세월호 침몰 당시 첫 구조상황 영상을 28일 전격 공개했다. 또 최초 구조활동에 참여했던 목포해경 경비정 123정 소속 경찰의 공개 기자인터뷰도 마련해 "열심히 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는 면피성 발언만 쏟아냈다.

해경이 공개한 첫 구조상황 영상을 보면 해경의 부실한 구조시스템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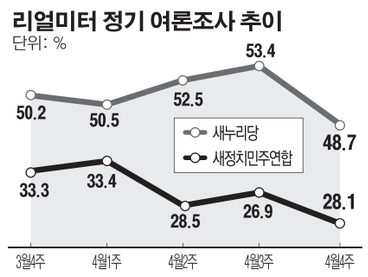
해경이 급파한 소형 헬기 2대는 주위만 맴돌 뿐 법에서 정해진 생존자 탈출 방송을 전혀 하지 않았다. 특히 구조수습에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대형 참사에 속수무책인 모습만 보였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123정도 우왕좌왕해 재난대응 구조훈련을 전혀 받지 않은 모습이었다.

대형 참사를 줄일 수 있었던 선박 진입이나 선내방송 활동은 없이 약 40분간의 구조활동에서 "배가 기울어 조타실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변명만 늘어놓을 뿐 소극적 구조활동에만 전념했다. 출동 당시 충분히 밧줄을 이용해 선내 진입이 가능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신동민 기자 lawsdm@

'세월호 여파' 당정 지지율 동반하락

朴대통령 6.8%P·與 4.7%P 뚝
새정연 6주만에 1.2%P 상승세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열흘 만에 여야 지지율이 반전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동반 하락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합당 선언 6주 만에 하락세를 벗어나 소폭 반등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은 전주 대비 4.7%포인트 하락한 48.7%를 기록한 반면, 새정연은 1.2%포인트 상승한 28.1%로 나타났다. 이로써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20.6%포인트로, 1주일 만에 5.9%포인트 차로 좁혀졌다. 이어 통합진보당이 1.9%, 정의당은 1.5%의 지지율을 얻었으며, 무당파는 18.2%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사고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비도덕적 행위들이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지지율도 57.9%로, 전주 대비 6.8%포인트 떨어졌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6.6%포인트 상승한 33.8%로, 2주 만에 30%대로 올라섰다.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에서는 아들의 발언이 논란이 돼 공개사과를 한 정몽준 의원이 1.9%포인트 하락하며 22.3%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1위를 유지했다. 2위는 안철수 새정연 대표로 1.8%포인트 하락한 12.8%였다.

이 외에 문재인 새정연 의원 11.8%, 박원순 서울시장 9.0%,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7.2%, 손학규 새정연 고문 4.3%, 오세훈 전 서울시장 4.0%, 김문수 경기지사 3.4%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김의중 기자 zerg@

與野 모두 조용히 지방선거 '경선' 재개

새누리 오늘 대구·충남
새정연은 부산부터 시작
TV토론회도 곧 열릴 듯

여야는 29일 세월호 참사로 잠정 중단했던 6·4 지방선거 경선 일정을 재개한다. 전국적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 후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내달 15~16일 후보 등록을 앞둔 상황에서 경선 일정을 더 늦출 수 없는 데다 요란한 선거운동이나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역시 펼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최대한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경선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의 경우 29일 대구시장·충남도지사, 30일 부산시장·대전시장·강원도지사 후보를 확정짓는다. 다음달 9일에는 인천시장, 10일 경기도지사, 12일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치러진다.

중단됐던 경선 TV토론회도 시작한다. 이날 서울시장 두 번째 TV토론회가 열리며 남은 두 번의 일정도 곧 확정될 예정이다. 다른 광역단체장 TV토론회 역시 지역별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애도에 동참하며 조용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과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후보 공천을 다시 시작한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부산, 30일 경남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를 선출한다. 원혜영·김진표 의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경쟁하는 경기지사 경선은 내달 11일이지만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대부분이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이라 각별히 언행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텃밭인 광주, 전남, 전북 등 호남 3곳은 내부 갈등으로 아직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한편 여야는 원내지도부 간 협의를 거쳐 이번 주부터 국회를 정상 가동키로 합의했다. 세월호 참사로 사실상 전면 중단했던 국회 운영이 참사 발생 2주 만인 이번 주부터 정상화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여야는 일단 이날부터 상임위 활동을 정상 가동하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 재발 방지 법안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 외에도 대형 안전사고 예방과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후속 대책을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강구할 방침이다.

임유진 기자 lim@

해상안전강화·학교안전사고 예방·보상법 처리

국회 오늘부터 본회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책
우리금융 매각 조특법 등
與野 122개 안건 의결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방지를 위한 해상안전 강화 법안과 우리금융지주 계열사 지방은행 매각 시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122개 안건을 의결한다.

여야는 우선 해상안전 강화와 관련 △선박 입항 및 출항 규정을 통합한 선박입항·출항법 제정안 △사고 빈번 해역에 선박통항신호표지·해양기상신호표지·조류신호표지 등을 설치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체험교육 시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보상법 개정안 등도 상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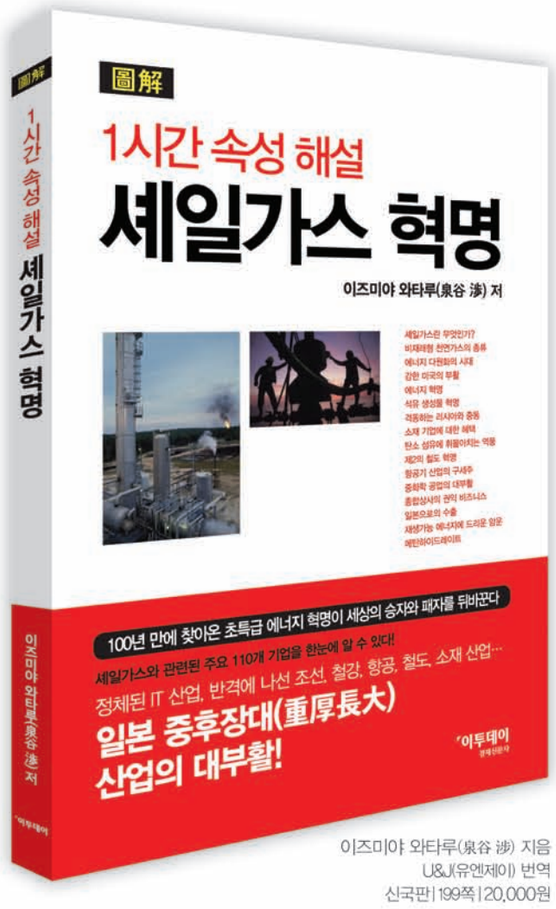
특히 우리금융 계열의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이 한층 탄력 받게 될 전망이다.

조특법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막말 논란'을 일으킨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를 주장,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처리가 지연돼 오다 최근 가까스로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경남·광주은행은 내달 1일 분할한 뒤 같은 달 22일 재상장하며, 우리금융지주에서 경남·광주은행이 분리되면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여야는 이와 함께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선을 정해 노역형 일당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황제노역 제한법'(형법) 개정안과 정당이나 후보자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가 드러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한편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안전행정위원회도 전체회의에서 새마을금고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논의 중이다. 이날 일부 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날 또는 내달 2일 개최 예정인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의중 기자 zerg@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지음
U&J(유엔제이) 번역
신국판 | 199쪽 | 20,000원

꿈의 에너지 셰일가스혁명!!!

100년 만에 찾아온 초특급 에너지 혁명이 세상의 승자와 패자를 뒤바꾼다!

- 세계에너지 패권 경쟁과 기업의 흥망성쇠 전망
- 미국·일본 제조업 부활…세계에 미칠 영향 심도있는 분석
- 전기자동차·항공산업·조선산업 '대부흥'예측
- 중동의 발언권 약화…천연가스 대국 러시아 위상 흔들 '다원적 에너지 패권시대' 도래

'제3의 에너지' 셰일가스 전쟁시작…싸울준비 됐습니까 (조선일보 2013년 5월 23일)
OPEC '美 셰일가스 대응' 사분오열 (파이낸셜뉴스 2013년 5월 29일)
유럽까지 셰일가스 혁명… 에너지 독립 부푼 꿈 (동아일보 2013년 7월 25일)
"셰일가스 인프라에 투자할 때" (한국경제 2013년 7월 31일)
"셰일가스 혁명 대처 못하면 도태" (한국경제 2013년 8월 2일)
셰일가스 시추장비 대대적 국산화 나선다 (헤럴드경제 2013년 9월 9일)
가장 비싼가스 쓰는 한국, 셰일가스로 에너지비용 줄여라 (매일경제 2013년 9월 11일)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이력
- 일본 경제신문 산교타임즈 대표이사겸 사장
-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출신
- 주오(中央)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
- 1977년 산업타임즈사 입사
- 1991년에 반도체 산업 신문 발간, 편집장 취임
- 현재 일본반도체협회 부회장(회장대행)
- 일본 반도체 벤처협회 이사
- 제주시 · 부산시 명예시민(기업유치공로)

도서출판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문의 02-799-6727 팩스 02-799-2666 e-mail:youngsh@etoday.co.kr

‘기초연금법’ 이달 처리 무산
새정치, ‘절충안’ 합의 못해

소장파 의원 반발로 당론 미뤄…“130명 의원 의견수렴·여론조사후 결정”

복지부 “5월초 처리되면 실행 준비”

4월 임시국회에서의 기초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협의해 왔으나 간극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다음달 2일 본회의가 아직 남아있지만 사실상 7월 지급은 어렵다는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새누리당이 제시한 ‘기초연금 절충안’의 도입 문제를 논의했지만 당론을 확정짓지 못했다. 절충안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 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은 무조건 최고 액수(20만원)를 주는 방안이다. 이날 새정치연합 의총에서 소장파 의원들은 기존의 당론을 고수해야 한다며 절충안 수용에 반대하고 나섰다. 당내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는 성명을 내고 “소득상위 노인 및 가입기간이 긴 청장년층이나 연금 성실가입자를 차별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도부는 소속 의원 130명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고 대국민 여론조사도 시행해 당론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은 야당의 의총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여당은 어떻게든 기초연금의 7월 지급을 위해 양보하고 타협했으나 공을 받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르신들의 연금 따위는 상관없다는 듯 절충안을 무참히 걷어차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의견 수렴 과정이 실패로 끝난 게 아니라 더 심도 있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세월호 사고 책임에서 벗어나 보려고 의도적으로 정쟁을 유발하는 것으로, 국민이 이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반박했다.

정치권의 다툼에 정부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은 “이번에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상당히 아쉽다”며 “이제 정상적 방법으로는 7월 기초연금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지만 5월 초라도 국회가 처리해주면 최선을 다해 실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2일 국회에서 절충안이 통과되더라도 지급 준비 기간에 최소 3개월이 필요한 만큼, 7월 기초연금 지급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며 8월께부터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야간 논의를 거쳐 7월 지급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어렵게 만든 ‘원격의료 시범사업’ 표류 위기

의·정 실무회의 세월호 참사로 연기

의사들의 집단휴진 사태 이후 정부와 의료계가 어렵게 마련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대한의사협회 내부 혼란과 세월호 참사로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양측이 4월부터 시작하기로 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현재 시범사업 모형조차 도출되지 못한 상황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5일로 예정돼 있던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 의정합의 2차 실무회의를 2주 뒤로 연기했다. 이 모임은 양측이 2주에 한 번씩 만나 그간 실무 차원에서 진행한 의·정 합의 세부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들이 세월호 참사로 진도와 안산 현장에 각각 파견되는 등 의·정 회의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어려워 미루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로 인해 복지부 실무자들이 진도와 안산에 파견을 나갔다”며 “아직 사고를 수습 중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 원격의료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 회의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복지부는 응급의료팀과 심리지원팀, 장례지원팀 등 직원 60여명을 진도 팽목항과 안산에 파견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경우 계획했던 4월 시행은 어려워졌다”며 “시범사업 시행 시기와 기간 등도 의협과 새로 논의해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회의는 내달 9일 다시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원만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또 있다. 바로 의협 내부 갈등이다.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의 갈등이 커지면서 대의원회는 지난 19일 임시총회에서 노환규 회장을 탄핵한 데 이어 방상혁 기획이사와 임병석 법제이사에 대한 불신임안도 처리했다.

이에 정부와의 이행추진단에 속해 있는 방 이사의 경우 불신임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추진단에서도 빠지게 돼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

한편 의·정 합의에 따라 정부가 지난 24일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와 가지려던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방안에 관한 논의 역시 세월호 참사 국면이라는 점을 든 의료단체들의 불참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김부미 기자 boomi@

작년 비정규직 시급 1만1259원… 정규직의 64%

작년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정규직의 64.2%에 그쳤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2013년 6월 기준)은 1만1259원으로 정규직 1만7524원의 64.2%로 나타났다.

정규직을 기준으로 한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비율은 2010년 6월 57.2%에서 2011년 61.3%, 2012년 63.6% 등으로 나타나, 숫자상으로는 임금 격차가 줄고 있지만 지난해에는 줄어드는 폭이 크게 둔화했다.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6067원으로 전년보다 7.3% 올랐다. 정규직은 한해 전보다 6.8%, 비정규직은 7.9% 증가했다.

성별 정규직을 기준으로 한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비율은 남성이 65.0%로 한해 전보다 0.7%포인트 격차가 줄었고, 여성은 73.9%로 0.8%포인트 감소했다. 정규직 내에서 여성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남성의 65.6%였으며 비정규직에서는 74.5%로 나타났다. 월 총실근로시간은 정규직이 178.0시간, 비정규직이 133.4시간으로 전년보다 각각 6.4시간, 5.6시간 감소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월 총실근로시간 비율은 75.5%로 0.4%포인트 하락했다. 김희준 기자 h9913@

2013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구분	고용형태별 임금 및 근로시간		
	시간당 임금	월평균임금	실근로시간
전체	16607원	2617원	167.9
정규직	17524원	2985원	178
비정규직	11259원	1404원	134.4
기간제근로자	12015원	1996원	175.3
단시간근로자	10801원	714원	81.7
일일근로자	12766원	1460원	116.1
파견근로자	10600원	1697원	166.1
용역근로자	8804원	1534원	186.1



경제학회·금융硏 세미나 ‘세월호 희생자’ 애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28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한국금융연구원 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며 묵념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이주열 총재,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 연합뉴스

병행수입품 AS 쉬워진다

관세청 12개 AS전문업체와 MOU

관세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와 12개 애프터서비스(AS) 전문업체에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AS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전국에 산재한 12개 AS 전문업체와 관세청 공인기관인 TIPA 간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민이 병행수입물품의 AS를 불편 없이 받도록 협력키로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TIPA 병행수입분과 홈페이지(www.tipa-pis.org)와 관세청 관련 기관에도 AS 업체를 공고해 소비자는 물론 병행수입물품 수입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는 현재 시행 중인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표지(QR 코드)에도 AS 업체 정보가 들어가면서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TIPA에 ‘병행수입물품 AS 지원센터’를 설치해 소비자가 원할 때 지원센터를 활용해 AS에 관한 문의와 업체 소개를 받아 편리하게 AS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미영 기자 bomnal@

‘대통령 하야’ 글 논란… 청와대 홈피 한때 마비

게시자 삭제후 원 작성자가 다시 올려

청와대 홈페이지가 28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당국의 대응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며 수십만명이 접속해 한때 마비되는 소동을 겪었다.

접속자가 폭주한 것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벌어지면서다. 정모씨는 전날 오전 9시51분에 올린 ‘당신이 대통령이어선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대통령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도 몰랐다”며 “대통령이 했어야 할 일은 현장에 달려가 상처받은 생존자를 위로한답시고 만나고 그런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글이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면서 약 12시간 동안 조회수 50만여건을 기록했다. 청와대 자유게시판에는 이 글에 대한 반박 글이 잇따랐으며,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 1위에 ‘청와대’가 오르기도 했다.

이 글이 논란이 되자 정씨는 28일 오전 8시53분 다시 청와대 게시판에 “내가 쓴 글이 아니라 다른 사람 페이스북에서 가져온 글”이라며 삭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게시판 글은 본인만 삭제할 수 있다고 밝혔고, 정씨는 이날 오전 자신이 올린 글 2건을 직접 지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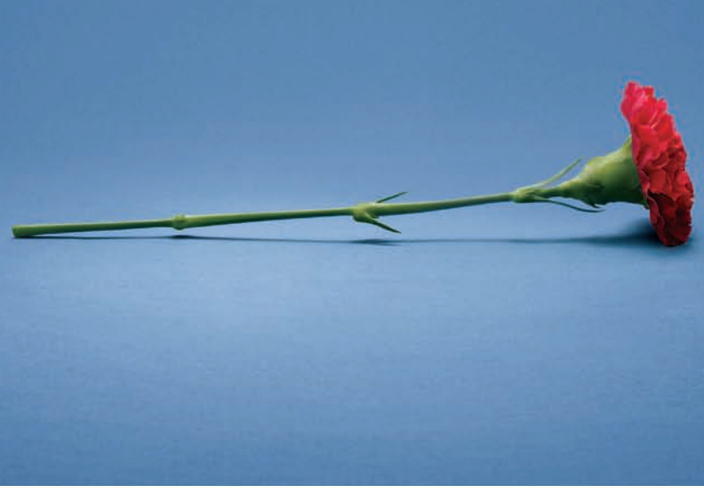
이후 원글을 쓴 것으로 알려진 영화감독 박성미씨는 “페친(페이스북 친구) 중 한 분이 답답한 마음에 대통령 보라고 이 글을 게시판으로 가져오신 듯 싶습니다. 달아주신 답글 중 주옥 같은 글을 함께 올립니다”라며 원문을 다시 게시했다. 임유진 기자 lim@

소중한 꿈을 지켜주는

긴 병 앞에 효자 있다

100세 시대, 종신보험도 달라져야 합니다
긴 병에도 걱정 없는 (무)교보LTC종신보험

길어진 인생만큼 아픈 날도 늘어나기에
우리 가족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종신보험에 치매·간병보장을 더한 교보LTC종신보험이
평생 든든한 효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사망은 물론 치매·간병도 보장해드리는 새로운 개념의 종신보험 – (무)교보LTC종신보험 출시
(무)교보LTC종신보험은 눈을 감는 그날까지 가족을 걱정하는 당신을 위해 사망은 물론 치매·간병도 보장해드리는 효자 같은 종신보험입니다 (※LTC : Long Term Care 장기간병보험)

KYOBO 교보생명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교보생명에 가입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 체결시에는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확인필 1-1401-14 (2014.1.15) 생명보험협회 제2014-99호(2014.1.21)

“창의형 기술인재 육성 정부·기업 모두 발벗고 나서야”

길 잃은 창조경제 스위스에서 답을 찾는다

① 현장중시 실용교육 체계
② 기술인재 양성의 현장
③ 글로벌 강소기업의 천국
④ 창조경제 DNA는 ‘열린 생각’
⑤ 한치의 오차 없는 철도시스템
⑥ 관광 경쟁력 1위의 비결
⑦ 스위스식 창조경제 적용하려면

한국은 지금 7년째 국민소득 2만 달러에 고착돼 있는 이른바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이란 경고음이 크다.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에 진입하기 위해선 지금까지의 경제 패러다임을 뒤엎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창의와 혁신에 바탕을 둔 창조경제로의 이행이 한국경제의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꼽히는 이유다.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더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안정되고 개방적인 정치·사회·경제체제를 바탕으로 강소국 모델의 전형을 보여줬다. ‘개방’과 ‘실용성’을 기반으로 청년 직업교육을 통해 창의적 기술인재를 키워내고 첨단 기술산업과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을 꽃피운 스위스의 창조경제 전략은 구체성 결여와 개념의 모호성으로 갈 길을 잃고 있는 우리나라의 ‘창조경제’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해 주고 있다.

이에 이투데이는 이성기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이사,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아시아금융학회장), 김재원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대 교수로부터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스위스’로 퀀덤 점프하기 위한 해법을 들어봤다.



이성기 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이사

中企 청년 배움 기회 되도록 정부 과감한 정책 펼쳐야

◇창조경제 시대 기술인재 양성, 기업의 역할이 중요= 정부가 최근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통해 스위스식 도제 교육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직업학교’을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 1-2일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3~4일 회사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스위스의 직업교육 시스템을 도입해 청년층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김재원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에서 직업학교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선 기업의 협조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단기적인 영업이익에만 몰두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직접 키워야 겠다는 마인드로 과감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기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이사도 창조경제 시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융·복합 인재 육성은 정부, 산업계, 학교, 학부모 등 모든 책임 있는 경제주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이사는 “인재양성은 기업의 가장 큰 사회적 책임이며 이를 기반으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된다”면서 “정부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청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과감한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정근 한국경제硏 초빙연구위원

고부가 서비스산업 키우면 3년내 성장률 4%대 진입

그는 또 “그동안 산업계는 정부가 공급하는 인력을 활용하는 데 익숙하고 스스로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인색했다”고 진단하며 교육·산업 현장에서 선진국형 직업교육과 일·학습 병행제가 안착되려면 무엇보다 산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수십년간 기업현장에서 다양한 체험을 한 경영자나 고숙련 기술자가 많이 있어 이들의 경험과 지혜를 직접 배우면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배움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기술개발 중시 문화,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모델 배우자 = 스위스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세계 4위(8만달러)의 대표적 강소국으로 발돋움한 데에는 기술력과 혁신, 고용 유연성 등 스위스 강소·중견기업들의 창조경영 전략이 주효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스위스의 창조경제는 분명 다른 점이 있다.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하려 한다면 스위스 기업들의 혁신과 창조경제는 늘 사람 중심”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기술과 장인정신을 홀대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다”며 “그러다 보니 급격한 산업화에는 성공했지만 창조적 기술을 발굴하는 데 실패해 기술개발 성과가 더디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재원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기업, 영업이익만 몰두 말고 인재 투자 장기적 안목으로

과거 정부도 독일의 히든 챔피언 모델을 벤치마킹해 기술선도형 중소기업 육성에 주력했지만 중소 벤처기업이 글로벌 히든 챔피언으로 커 나가기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김 교수는 그 이유를 중소기업 경영전략의 구조적 문제에서 찾았다. 당장의 매출 성과에 매달리다 보니 내수 지향적 성장에 치중해 해외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히든 챔피언이라 불리는 기업들은 해외시장 매출이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반면, 우리 중소기업은 15%도 안 된다”면서 “소위 중소기업들이 고립된 채 진화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갈라파고스증후군’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대 교수

스위스는 늘 사람 중심인데 한국은 장인정신 홀대 문제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가 목표대로 3년 내 창조경제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4% 수준으로 올려 1인당 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을 꼽았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이 선정하는 글로벌 500대 기업에 속한 기업 수는 스위스나 한국이나 14개로 같지만 기업의 성격은 확연히 다르다. 우리나라는 많은 자본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전자 업종이 주류를 이룬 반면 스위스는 적은 비용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금융·제약(의료)·정밀기계·관광 업종의 글로벌 기업이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있다는 게 오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고임금 구조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규제완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산업을 시급히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요르그 알 레딩 주한 스위스 대사

“스위스 강소기업, 혁신적 아이디어·경영전략으로 성장”



스위스의 정신은 개방과 실용성으로 요약된다. 작은 면적과 빈약한 천연자원,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여건은 오히려 국가 성장의 동력이 됐다. 스위스 경제의 90%를 지탱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창의적이고 혁신적 아이디어와 경영전략으로 강소기업으로 성장했다. 정부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해주는 상향식 기업 정책으로 스위스를 강소기업의 천국으로 만들었다.

요르그 알 레딩(Jorg Al. Reding) 주한 스위스 대사가 최근 기자에게 밝힌 스위스의 창조경제 비결이다. 레딩 대사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이지 못한 기업은 100년이 지나도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스위스의 시계산업의 경우 사양산업이라는 한계에도 기술개발과 고급화로 전 세계 고급 시계 시장의 90%를 점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위스가 정밀기계 분야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아무리 복잡한 기계라도 신속하게 애프터서비스(AS)를 해주는 혁신 전략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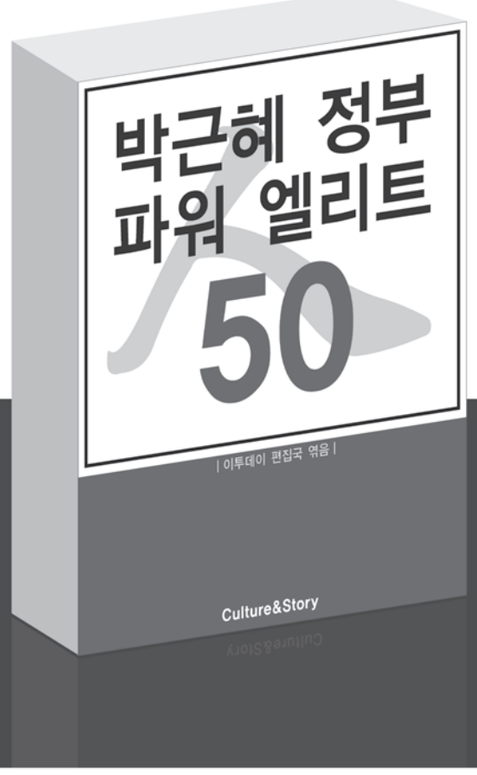
레딩 대사는 스위스식 창조경제의 원동력으로 ‘개방성’을 꼽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기업이 끊임없이 혁신을 이뤄 내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아이디어 수혈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스위스는 지리적으로 유럽의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통로로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술이나 상품을 받아들이게 됐고 이것이 곧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극이 됐다는 것이다. 현재 스위스 인구 중 20% 이상, 스위스 전체 연구 인력의 반 이상이 외국인이다.

스위스에서 금융산업이 발전하게 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레딩 대사는 “전통적으로 스위스는 저축률이 높은 데다 외부로부터의 자금 유입이 활발해 스위스 경제와 산업에 상당한 힘이 됐다”고 말했다.

글/전민정·사진/최유진 기자 puri21@

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박근혜 정부의
파워 엘리트 50인을 집중 해부한다!



파워 엘리트 50인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흥미로운 사실들!
정부의 정책과 철학을 숙지해야 하는 이들이라면 주목하라!

박근혜 정부 파워 엘리트 50 | 값 6,000원

청와대, 내각, 국회, 사법부, 경제계, 학계를 총 망라하여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운명을 책임지게 될 박근혜 정부의 핵심 인물 50인의 주요 이력과 인물들이 걸어온 길을 되짚고, 생생한 취재를 통해 박 대통령과의 인연, 평소 성격이나 업무스타일, 주변 평판까지 풍부한 정보를 담아냈다. 여기에 인물별 주변 인맥을 낱낱이 파헤쳐 거미줄처럼 얽힌 한국의 권력 구조와 인맥, 학맥도 한 눈에 읽을 수 있게 했다.

박근혜 정부 파워 엘리트 50
박근혜 정부의 주역으로 활동할 각 분야 핵심 브레인의 면면을 통해 우리 정치와 사회, 경제, 문화의 변화와 발전상을 미리 짚어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경제신문 「이투데이
「뉴 파워 엘리트 50」
시리즈 기획 기사
ebook

| 이북마켓 | KYOBO RIDIBOOKS BOOKCUBE YES24.COM 인터파크 store N스토어 올레마켓 카카오페이지

이투데이 편집국 엮음 www.etoday.co.kr | Culture&Story 02-313-3063 www.publishingjournal.co.kr



합쳐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이 즐거운 보험

(무)메리츠{케어프리}보험 MBasket

✓ **멀티디스카운트** : 보장, 저축, 연금, 자동차 결합 가입시 0.5~1.5% 보험료 할인

▶ 고객맞춤 보장설계
- 고객 별 위험에 따라 맞춤 보장설계
- 저축 및 연금보장을 통한 든든한 노후준비

▶ 현물보상 솔루션
- 실손의료비 보장은 물론, 24시간 간병인 지원
- 암진단부터 완치까지 관리해주는 암케어 패키지

본 상품의 다양한 특약사항을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1566-7711

휴면보험금 안내 02-2084-7912
보험사기 신고센터 1588-3311

대한민국 1호 즐거운 보험회사

MERITZ 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는 1922년 창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보험회사입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3-1286호 (2013.5.27)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제외)

산은, 동부특수강·제철당진항만 인수

사모펀드 만들어 상반기 마무리…구조조정 탄력
매각 가격에선 의견차…언아웃 조항 삽입하기로
1조 예상 제철인천공장·발전당진 매각 성사에 관심

산업은행은 동부그룹이 매물로 내놓은 동부특수강과 동부제철당진항만을 인수하는 등 자산 매각에 속도가 붙고 있다. 최근 동부그룹이 인천공장과 동부당진발전을 개별 매각하려던 계획을 접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매각방식을 위임하면서 구조조정에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동부그룹은 지난 25일 동부특수강과 동부제철당진항만 100%를 각각 1100억원, 1500억원에 인수하는 세부계약서를 작성했다. 산업은행 사모펀드(PE)부가 펀드를 조성해 다음달 중 투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상반기 안에 인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당초 동부그룹이 지난 11월 자구계획안에서 밝힌 예상 매각가격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시 동부그룹은 동부특수강 1200억원, 동부제철당진항만 3000억원의 매각가격을 제시했다. 이에 양측은 이번 계약에서 언아웃(earn-out) 조항을 삽입했다. 산업은행이 추후 동부특수강과 동부제철당진항만을 제3자에게 인수가격보다 높게 매각할 때 차익을 동부그룹에 정산해주기로 한 것이다.

앞서 동부그룹은 지난해 11월 동부제철 인천공장, 동부발전당진 지분, 동부하이텍, 동부메탈, 당진항만, 동부익스프레스, 동부팜한농 유휴부지 등을 매각해 3조원 가량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자구계획안을 채권단에 제시한 바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 "동부하이텍도 이달 말까지 인수의향서를 전달해 다음달 인수후보자 윤곽을 낼 것"이라며 "반년 가까이 답보 상태에 빠진 동부그룹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자구 계획안에서 가장 덩치가 큰 동부제철 인천공장과 동부발전당진의 매각 성사 여부다. 최대 1조원까지 예상되는 동부제철 인천공장과 동부발전당진 패키지 매각이 성공한다면 동부그룹으로서는 기존 매각 자금과 합쳐 약 1조5000억원이 넘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동부그룹 구조조정 진행상황

매각방식	대상	진행상황
개별 매각	동부하이텍	인수 대상자 물색
	동부메탈	인수 대상자 물색
	당진항만	산업은행 인수
	동부익스프레스	KTB PE 인수
패키지 매각	동부발전당진	포스코 실사 중
	동부제철 인천공장	포스코 실사 중
	동부특수강	산업은행 인수
	동부화재, 건설 주식	매각 논의 중

자료 : 산업은행

그러나 키를 쥔 포스코가 장고에 들어가면서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권오준 회장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재무구조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포스코가 여전히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탓이다. 오승철 포스코 상무는 "동부그룹 자산의 가격과 가치가 괜찮아도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인수 가능성은 상당히 작다"고 말했다.

안철우 기자 acw@

부실채권 시장 황금알 유암코 매각 본격시작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
금융위 지정 존속기한 다가와
배당 수익 짭짤…일부만 매각할 듯

부실채권(NPL) 투자·관리 전문회사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의 매각 작업이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부실채권 시장의 다른 한 축을 맡고 있는 우리F&I 매각이 완료되면서 유암코도 지분 매각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암코와 유암코 주주 은행들은 보유 지분 매각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유암코는 지난 2009년 10월 부실채권 정리를 목적으로 KB국민·우리·신한·하나·IBK기업·NH농협은행 등 6개 은행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민간 배드뱅크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은행들이 향후 5년간 유암코를 자회사로 두는 것을 허용했다. 이후 존속 기한을 오는 2019년까지 5년 늘렸지만, 당초 존속 기한이 다가온 만큼 유암코와 은행들이 지분 매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유암코 지분은 국민·신한·하나·기업은행이 각각 17.5%, 우리·농협은행이 각각 15.0%를 가지고 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특정 회사 지분 15% 이상을 보유할 경우 해당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해야 한다.

유암코 주주 현황 및 배당금
2014년 3월 기준 배당금(4년치)

	지분율	배당금
국민	17.5%	350억원
신한	17.5%	350억원
하나	17.5%	350억원
기업	17.5%	350억원
우리	15.0%	300억원
농협	15.0%	300억원
계	100%	2002억원



따라서 이번 유암코 지분 매각은 은행들이 유암코를 자회사로 편입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 내에서, 소유 지분 일부를 분산 매각하는 방안이 유력할 전망이다. 최근 부실채권 시장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은행들이 보유 지분을 일괄 매각할 가능성은 낮다.

실제로 은행들은 올해 유암코로부터 총 2002억원(4년치) 상당의 배당액을 지급받았다. 배당성향은 무려 190.5%로 우리·농협은행이 300억원, 나머지 4개 은행이 35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또 지분 일괄 매각시 이 같은 물량을 시장에서 받아주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유암코는 국내 부실채권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설립 첫 해를 제외하고 매년 순이익이 증가, 지난해에는 1050억원의 사상 최대 순이익을 거뒀다"며"소유 지분을 일부 조정하는 선에서 지분 매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gutjy@

신협 비리 제재 강화

내달부터 시행…꺾기 징계도 엄격

내달부터 신용협동조합 비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강화된다.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 판매를 강매하는 '꺾기 행위'와 보험 부당 영업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계도 엄격해진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신협 무자격 조합원 가입과 대출 초과 취급,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대해 제재 수위를 명확히 하고 강력히 징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협 등 상호금융에 대한 명확한 제재 기준이 없어 이번에 부당 행위 수준별로 제재를 세분화했다"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신협에 대한 철저한 감시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협 비조합원에게 대출 한도를 70% 초과한 100억원 이상 빌려주는 직원은 면직당한다. 50억원 이상은 직무정지·정직, 30억원 이상은 문책경고·감봉, 10억원 이상은 주의적 경고·견책 처분을 각각 받게 된다.

신협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조합으로 가입시키는 비율이 전체의 80%를 초과하면 면직되며 50% 초과~80% 이하는 직무정지·정직, 30 초과~50% 이하는 문책경고·감봉에 각각 처해진다.

이진영 기자 mint@



김주하 농협은행장 고객행복센터 방문

김주하 농협은행장(가운데)은 28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2014 서비스품질지수' 조사 결과 4년 연속 우수콜센터로 선정된 서울 한강로 고객행복센터를 방문해 상담사들을 격려했다.
사진제공 농협은행

장애인 연금보험 출시 어려워

"위험률 없어 상품 개발 못해"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연금수령액을 높이고 보험료는 낮춘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선보이기로 했다.

이후 금융위는 보험사들에게 4월부터 장애인 연금보험을 판매하도록 유도했다. 보험사들은 금융위의 지시대로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

하지만 이달 중 장애인 연금보험을 출시하겠다는 이들 회사들은 아직 상품 개발에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장애인 사망률에 대한 명확한 통계가 없어 위험률 산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보험개발원에서 위험률을 만든다고 해도 회사 리스크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상품을 만들 수 밖에 없어 상품개발 취지와 거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재현 기자 nfs0118@

금융당국이 장애인 복지 증대를 위해 장애인전용 연금보험을 개발하도록 보험사에 요구했지만 상품 개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험사들은 장애인에 대한 제대로 된 위험률이 없어 상품 개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장애인 연금보험 출시를 준비해 왔던 KDB생명·미래에셋생명·농협생명 등 3개 생보사의 상품이 출시가 차질을 빚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라 장애인 연금보험 출시를 준비했지만 내부적으로 요율산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 유출에도 카드 사용 늘었다

1분기 승인금액 137조
작년보다 6.2% 증가

올해 1월 발생한 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카드 이용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카드승인금액은 136조99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증가했다. 최근 5분기 가운데 최고치다.

아울러 지난달 카드승인금액은 총 48조52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1900억원(7.0%) 늘었다.

3월 카드승인금액 증가율은 7.0%로 역시 지난해 3월(5.6%)과 비교하면 1.4%포인트, 지난해 연간 카드승인금액 증가율(4.7%)에 비해서는 2.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민간소비 회복세가 점차 견고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체크카드의 강세는 여전했다. 지난달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38조98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3.5%(1조31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체크카드 승인금액은 총 9조37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1%(1조8800억원) 상승했다.

지난달 전체카드 대비 체크카드 승인금액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포인트 증가한 19.3%로 나타났다.

카드 정보 유출 사고가 신용카드 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로는 거시경제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엘리 기자 ellee@



더존 Good,Better,Best IT그룹 DUZON

산업군별 대표기업도 다양한 강소기업도
ERP는 역시, 더존 ERP

자체 데이터 센터 보유
세계 최고 수준의 자체 인터넷 데이터 센터인 D-클라우드 센터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화, 모바일, 보안시스템 등 최신 IT기술을 접목

단계별 ERP Line-up
확장형 ERP, 건설 ERP, 비영리법인용 ERP 등 업종별 특화 솔루션 및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단계별 Line-up 보유

국내 독보적인 솔루션
IFRS 연결·개별 솔루션, XBRL 솔루션, FTA-원산지관리시스템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국내 독보적인 솔루션 보유

완벽한 통합 시스템
22년 ERP업력으로 산업군별 표준 프로세스, 특화서비스 보유 및 자체 확장솔루션(그룹웨어, MES, POP 등)을 통한 완벽한 통합시스템 구현

Blue Heart 더존 기업을 움직이는 푸른심장 | www.duzon.co.kr | 전국 통합 상담 1688-5000

中 OLED TV 경쟁, LG 계열사 득실은

디스플레이 "현지업체 패널사업 강화"에 전자 "경쟁 심화" 촉각

LGD 현지진출… 전자는 가격경쟁·신뢰도 하락 우려

"패널가격 하락·OLED TV 대중화 득될 것" 시각도

LG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을 탑재한 중국 업체들의 OLED TV 출시를 앞두고 LG그룹의 득실 계산이 이목을 끌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대표적인 TV업체인 스카이워스, 콩카, 창홍 등은 LG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을 탑재한 OLED TV를 다음달 1일 노동절 연휴 특수에 맞춰 연이어 출시할 계획이다.

그간 대형 OLED TV는 차세대 TV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한국 업체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LG디스플레이가 최근 OLED 패널 사업 강화의 일환으로 중국 TV 업체들에게 공급을 본격 개시하면서 중국 업체들도 OLED TV 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LG디스플레이의 행보에 같은 LG그룹 소속의 LG전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LG전자는 삼성전자와 함께 OLED TV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지만, 같은 계열사의 패널 납품으로 중국 업체의 거센 도전을 받게됐기 때문이다.

LG디스플레이의 패널을 사용한 OLED TV를 중국 현지 업체가 대거 선보이게 되면서 LG전자의 중국 OLED TV 시장 공략은 큰 장애물이 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 TV업체들은 국내 업체보다 절반에 가까운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등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LG디스플레이의 패널을 함께 사용하게 되면서 중국산 제품의 신뢰도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것도 국내 업체들에게는 악재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이 최첨단 OLED TV를 출시하는 것은 그동안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중국산 TV의 이미지를 크게 바꿀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중국 시장에 국한되겠지만 향후 글로벌 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반대로 중국 업체들의 연이은 시장 진출이 OLED TV의 대중화를 이끌어내면서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많다.

현재 OLED TV는 화질은 우수하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LCD 기반의 UHD TV에 밀려 고전 중이다. 차세대 TV 시장에서 한 축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일부 제조사의 전유물로 남기보다는 다양한 TV 업체가 참여해 세력을 키워야 한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OLED TV가 발표될 때만 해도 차세대 제품으로 각광을 받았지만 아직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여기에 UHD TV라는 대체제가 등장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OLED TV의 대중화에는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기간 동안 다수의 TV 업체들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사장될 가능성도 크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OLED 패널 역시 많은 수량을 생산해야 단가를 낮출 수 있다"며 "OLED TV의 가격을 일반 사용자가 구입할 정도로 낮추기 위해서는 패널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필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그는 "삼성과 달리 LG 측은 OLED 패널의 생산량을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했다"며 "이는 LG디스플레이의 실적 상승은 물론 LG전자의 OLED TV의 가격을 낮추는 일거양득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지희 기자 jhsseo@

포스코, 대우인터 매각 검토 '그룹사 구조재편' 본격 나선다

철강·트레이딩 등 7개 사업군 개편… 46개 계열사 30여개로

포스코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주력 계열사인 대우인터내셔널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오는 2015년까지 46개의 계열사를 철강·트레이딩·건설·소재·에너지·서비스 등 7개 사업군으로 개편해 계열사를 30여개 초반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그룹사 구조재편 추진안'을 최근 마련하고 있다.

다음달 16일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될 이번 구조재편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대우인터내셔널의 매각이다. 업계에서는 포스코가 대우인터내셔널과의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아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포스코는 대우인터내셔널의 지분 60.3%의 전량 매각이 어려울 경우 지분 부분 매각과 사업 분할도 거론되고 있다. 대우인터내셔널의 사업이 분할되면 미얀마 가스전 등 자원개발 부문은 포스코에너지, 상사부문은 포스P&S와 합병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그룹의 구조재편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는 2010년 대우인터내셔널을 3조3724억원에 인수했다. 4월 현재 포스코가 보유한 대우인터내셔널 지분의 가치는 2조6000억원 수준이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삼성·LG전자 1분기 실적… 매출 4배·영업이익 20배

삼성, 갤럭시 호조에 IM 영업익 6조4300억

LG는 MC사업부 영업손실만 300억대 추정

삼성전자가 29일 매출 58조6800억원, 영업이익 8조4900억원의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LG전자는 매출 14조1000억원, 영업이익 3000억~3200억원을 기록했을 것으로 증권가는 추정하고 있다. 두 회사의 매출차이는 약 4배지만 영업이익 격차는 무려 20배 수준이다. 양사 스마트폰 사업 성적이 이 같은 영업이익 격차를 냈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총괄하는 IM(IT·모바일)부문은 비수기임에도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6조43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는 전체 영업이익의 75%에 육박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S4, 갤럭시노트3의 견조한 판매와 갤럭시그랜드2, 갤럭시에이스3 등 중저가 판매 호조에 따라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1분기 9000만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역대 분기별 스마트폰 판매량 최대치인 지난해 3분기(8840만대) 기록을 갈아치우는 수치다. 지난 11일 글로벌 출시된 갤럭시S5는 출시 당일 미국에서 판매량이 전작인 갤럭시S4보다 약 30% 많았다. 현재도 네덜란드·스페인·체코 등 유럽과 중남미, 중동 지역 등에서도 고른 판매량을 보이며 순항 중이다.

삼성전자 1분기 부문별 실적

	매출	영업이익
CE부문	11조3200억	1900억
IM부문	32조4400억	6조4300억
DS부문(반도체)	9조3900억	1조9500억
DS부문(디스플레이)	6조1000억	800억 적자

반면,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MC사업본부는 1분기에도 적자 탈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 손실액은 300억~400억원대로 추정된다. 지난해 4분기 MC부문의 영업손실은 434억원이다. 'G2'나 'G플렉스' 등 전략 제품을 출시했지만 브랜드 가치가 부족해 판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탓이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대부분 돈을 벌었다면, LG전자는 스마트폰 사업이 깎아 먹은 돈을 TV와 가전 사업에서 메꿨다. LG전자의 TV 사업은 비수기에 불구하고 스포츠 이벤트, 50인치 이상 대형 TV와 UHD TV수요 증가, 패널 가격 하락 등으로 1700억~2000억원의 영업익을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대 성수기인 전분기(1743억원)와 비교해 차이가 크지 않다.

생활가전 사업을 책임지는 HA사업본부와 에어컨 사업을 담당하는 AE사업본부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다소 증가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HA사업본부의 추정 영업이익은 1000억~1200억원, AE사업본부는 800억~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분기 HA사업본부의 영업이익은 1020억원, AE사업본부는 820억원이다.

송영록 기자 syr@

르노삼성 SM5 리콜 방식에 소비자 불만 폭발… 이유는?

"공임비 줄이려 불량 커넥터 교체 아닌 배선 연결" 반발

르노삼성자동차의 SM5가 28일부터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 가운데, 처리 방식을 놓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SM5의 시동 꺼짐에 관한 리콜 처리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SM5 리콜 안내 글에는 이례적으로 불만을 표현하는 소비자들의 댓글이 100여개나 달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르노삼성이 제작·판매한 SM5에서 시동꺼짐 등의 문제점이 있어 리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르노삼성은 점화코일 배선과 엔진 배선을 연결하는 커넥터 내부 핀의 접촉불량으로, 시동이 꺼지거나 RPM이 불안정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리콜을 결정했다. 리콜 대상은 2009년 10월 28일부터 지난해 5월 2일까지 제작된 SM5 가솔린·LPLi 16만1700대다.

논란이 된 부분은 르노삼성의 리콜처리 방식이다. 르노삼성은 문제가 된 커넥터를 교체하는 대신, 해당 커넥터를 제거한 후 점화코일 배선과 엔진 배선을 직접 연결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 이에 대해 다수의 소비자는 커넥터 대신 전기 테이프로 테이핑하는 방식이 아닌, 불량 커넥터를 새 커넥터로 교환하는 것이 맞는 조치라며 국토부와 르노삼성을 향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각에선 회사가 리콜에 드는 공임비를 줄이기 위해 이런 조치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직접 연결 시엔 공임비용이 8~9만원인데, 새로운 커넥터로 교환하면 약 70만원의 비용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리콜 규모가 16만1700대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1000억원 가까운 비용이 필요하다. 반면, 직접 연결 방식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약 170억원대로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은 배선끼리 직접 연결해도 엔진의 발열과 방수, 제어 문제 등 충분히 대응되는 만큼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커넥터를 교체해 배선을 따로 연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배선을 직접 연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임비용을 줄이려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한진해운 대표로 선임

조양호〈사진〉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해운 사내이사에 선임됐다.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은 이날 부로 한진해운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고 6월1일부로 한진해운홀딩스의 기존 법인을 맡게 된다.

한진해운은 29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이사 선임건을 비롯해 한진해운-한진해운홀딩스 분할·신설법인 합병 승인안을 의결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조 회장과 강영식 대한항공 기술부문 총괄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선임됐고 인적분할 방안에 따라 한진해운홀딩스는 한진해운이 포함된 신설법인과 싸이버로지텍 등 일부 계열사가 포함된 기존 법인으로 나눠졌다.

최 회장이 맡게 되는 기존 법인은 '여의도 사옥'과 정보기술회사인 '싸이버로지텍', 선박관리회사인 '한진에스엠', 3자 물류회사인 'HJLK'로 구성된다. 4개 사의 2013년 매출액은 5000억원 규모다.

분할 이후 조 회장과 최 회장이 지분을 교환해 한진해운이 포함된 신설법인을 한진그룹으로 넘기고 기존 법인은 최 회장이 계속 보유하게 된다. 다만 한진 및 한진해운 브랜드에 대한 사용권과 그 수익 등은 모두 신설법인에 남게 된다. 최 회장이 6월이 아닌 지금 물러날 것을 결정하게 된 것은 조 회장과의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LG CNS 자회사 씨티카 전기차 'SM3 Z.E.' 도입 LG CNS의 자회사로 서울시와 함께 전기차 공동이용(카셰어링)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씨티카는 르노삼성자동차의 전기차 'SM3 Z.E.' 78대를 도입, 내달 1일부터 서비스에 투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씨티카의 도우미가 르노삼성의 전기차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씨티카

美 법원, 삼성·애플 '지시평결' 신청 기각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가 28일(현지시간) 원고·피고 양측의 '지시평결'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고 판사는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전자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이 낸 평결불복법률심리(JMOL·Judgment as a Matter of Law) 신청을 기각하고 "배심원단이 모든 쟁점을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민사소송제도는 재판부가 평결 전 합리적 결론이 명확하다는 판단이 서면 배심원단이 특정 평결을 하도록 '지시평결(directed verdict)'하도록 할 수 있다.

고 판사는 삼성 측 전문가로 나선 케빈 제피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의 진술이 재판 전에 제출한 감정 보고서와 다르다면서 진술을 중단시키고 증거 채택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제피 교수는 애플이 보유한 미국 특허 제5946647호에 대한 해석과 관련, 일리노이북부 연방지원 리처드 포스너 판사의 해석을 자신의 판단 근거로 삼았다며 새너제이지원 재판부가 이를 언급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했다. 포스너 판사는 지난 2012년 '애플 대 모토로라' 사건 1심에서 제5946647호와 관련해 데이터 태핑 기술은 별도 서버에서 구현되는 것이라는 요지의 해석을 내렸으며 연방항소법원도 지난 25일 이 해석을 유지했다.

고 판사는 또 삼성 측 변호인들이 제피 교수에게 발언을 부추긴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뉴욕=민태성 기자 tsmin@

中업체 추격에… 2차전지 수익성 '적신호'

中 리센 4위 부상… 경쟁심화로 1위 삼성 SDI 영업이익률 대폭 하락

소형 2차전지 시장이 중국 업체들의 확장세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중국 업체들의 공급이 늘어나자 제품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9일 일본 시장조사기관 B3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2차전지 업체 '리센(Lishen)'이 지난해 일본 소니를 제치고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센은 지난해 7.8%의 시장점유율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4위였던 소니는 전년보다 0.5%포인트 떨어진 7.5%를 기록해 5위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소형 2차전지 시장점유율 1위는 25.9%로 삼성SDI가 차지했다. 삼성SDI는 4년 연속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기타업체들의 시장점유율도 전년보다 1.5% 증가해 25.8%로 성장했다. 이들 기타업체에는 중국의 2차전지 업계에서 리센과 함께 빅4로 불리는 비야디(BYD), 에이티엘(ATL), 비에이케이(BAK)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이 최근 중국 업체들의 급격한 성장으로 소형 2차전지 시장은 경쟁이 심해지고 있으며, 이는 제품가 하락로 이어지고 있다.

2013년 소형 2차전지 시장점유율 현황

구분	점유율	증감율
삼성SDI	25.90%	0.4%
파나소닉	16.70%	-1.6%
LG화학	16.30%	-0.8%
리센	7.80%	0.9%
소니	7.50%	-0.4%
기타	25.80%	1.5%

※자료=B3 보고서

삼성SDI의 에너지부문 영업이익률은 지난 2012년 5.3%로 전년 5.0%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지난해 0.001%로 대폭 하락했다. 게다가 올 1분기 에너지부문의 영업이익률은 -2.90%를 보여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다.

LG화학의 전지부문 영업이익률도 매년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1년 5.2%에서 2012년 1.6%로 급격히 떨어지더니 지난해에도 1.3%로 하락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소형 2차전지의 이익률 하락은 내부요인이 아닌 것이 맞다"며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은 가운데 공급업체들이 증가해, 고객사들도 점차 가격을 낮추길 요구해 이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코원·아이리버 "IT기기 名家회복"

과거 MP3플레이어 등 '음향기기 맞수'로 불리던 아이리버와 코원이 각기 다른 전략으로 재도약을 꾀하고 있다. 아이리버는 '아스텔앤컨(Astell&Kern)' 브랜드를 통한 고음질 음원 플레이어에 '선택과 집중 전략'을, 코원은 블랙박스, PDP 등 기존의 넓은 사업 영역을 꾸준히 이끌어가는 '다각화 전략'을 추진해 연간 흑자전환에 성공하겠다는 목표다.

28일 코원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 1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개선돼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매출액은 76억5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상승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3억8000만원, 3억1000만원을 기록했다. 11분기 만의 흑자다.

코원은 이번 흑자전환의 이유로 신규 사업아이템인 블랙박스와 기존 사업군인 MP3, PMP 등 디지털 디바이스 제품의 꾸준한 판매 호조를 꼽았다. 여기에 이어폰, 블루투스 스피커 등 오디오 액세서리 제품들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는 자평이다.

그동안 코원은 다양한 사업군을 영위하고 있었지만 수익성은 신통치 않았다. 2011년부터 3년째 연간 적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104억43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선 코원의 사업 다각화 전략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지만, 이번 1분기 흑자전환을 통해 재도약의 불씨를 살릴 수 있게 됐다. 올 상반기 출시할 고음질 음원 플레이어 '플레뉴1(PLENUE 1)'도 코원의 재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무기로 거론되고 있다.



코원 블랙박스 '오토캡슐 AF2'

코원 '다각화' 전략

PDP 등 기존 사업군 강화
블랙박스 시장에도 도전장

코원 관계자는 "주력이었던 디지털 디바이스는 물론, 블랙박스, 오디오 액세서리 등 모든 사업 영역을 꾸준히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 회사의 전략"이라며 "블랙박스 부문에서 B2B 사업을 추진하고, 올 상반기엔 고음질 음원 플레이어 시장까지 진출해 올해 흑자전환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아이리버는 코원과 달리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재도약을 꾀하고 있다. 아이리버 역시 PMP, 전자사전,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다양한 사업 영역을 구축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고음질 음원 플레이어 브랜드인 아스텔앤컨으로 회사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아이리버 관계자는 "코원과 비슷한 사업군을 보유하고 있지만, 고음질 음원 플레이어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회사의 전략"이라면서 "올해에도 아스텔앤컨 브랜드를 통해 고음질 음원 플레이어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이리버도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79억9300만원의 연간 적자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수익성에선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다만 2012년 아스텔앤컨 브랜드 론칭 이후 적자 폭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코원이 다각화 전략으로 연간 흑자전환 달성에 한 발 더 가까워졌지만 아이리버도 적자폭이 빠른 속도로 감소해 흑자전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다만 아이리버의 경우 최대주주인 보고펀드가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정유 기자 thec98@



아이리버 고음질 음원 플레이어 'AK240'

아이리버 '선택과 집중'

'아스텔앤컨' 판매 호조 속
고음질 플레이어 개발 한창



LG유플러스 1분기 영업익 1132억

작년보다 8.1% 감소… 보조금 경쟁 따른 마케팅비 증가 여파

잘나가던 LG유플러스가 출혈 경쟁에 따른 마케팅 비용 증가로 실적이 악화됐다.

LG유플러스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1132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기간 순이익과 매출액은 각각 268억원, 2조780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3.9%, 2.8% 줄었다.

지난 1분기 이동통신 3사는 '보조금 대란'이라 불릴 정도로 치열한 보조금 경쟁을 벌였다.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급증, LG유플러스의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 실제로 LG유플러스의 1분기 무선 마케팅 비용은 551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2.6% 증가했다.

불법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에 따른 영업정지도 실적 악화를 이끌었다.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4일까지 계속된 영업정지로 단말기 매출 감소와 가입자 증가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분기 단말기 매출은 7603억원으로 작년 동기 1조63억원의 3분의 2 수준에 그쳤다.

실적악화로 인해 LG유플러스가 올해 목표로 삼고 있는 '무선가입자 5% 증가' 달성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LG유플러스 김영섭 경영관리실장(부사장)은 28일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콜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동통신시장이 어려워 지면서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경쟁사도 기존 순증 가입자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LG유플러스의 1분기 설비투자(CAPEX)는 5976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5.3%, 전분기 대비 26.2% 늘어났다.

무선 서비스 매출은 LTE 가입자 증가에 따라 작년 동기 대비 12.8% 성장한 1조2485억원을 달성했다. 특히 1분기 LTE 서비스 가입자는 43.4% 증가한 746만명으로, 회사 전체 무선 가입자의 68.6%로 확대됐다.

이통사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무선서비스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도 3만5362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4% 개선됐다. 그러나 영업정지에 따른 신규·기기변경 가입자 감소로 전분기보다는 0.1% 하락했다.

유선서비스 매출도 TPS 사업(인터넷TV·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의 선전으로 작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7693억원을 달성했다. 영업정지 기간 결합상품 마케팅에 주력한 탓이다.

TPS 가입자는 888만명으로 14% 증가했으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9%, 전분기 대비 1.9% 성장한 3238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인터넷TV(IPTV) 가입자가 167만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41.4% 급증했다. 이에 따라 IPTV 매출액도 859억원으로 53.9% 증가했다. 회사 측은 'U+ tv G', '홈보이', '홈CCTV 맘카' 등 컨버지드 홈 상품의 경쟁력 제고로 고부가가치 가입자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김범근 기자 nova@



CJ헬로비전 "CJ알뜰폰, 전국 GS25에서 만나세요"

전국 GS25 편의점에서 CJ알뜰폰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CJ헬로비전의 이동통신서비스 헬로모바일은 29일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에서 후불 알뜰폰 판매를 시작했다. 판매되는 단말기는 LG 와인샤베트, 팬택 브리즈폰 등 피처폰 2종과, LG 옵티머스뷰2 등 LTE 스마트폰 1종이다. 이 중 피처폰인 와인샤베트와 브리즈폰은 월 기본료와 단말기 할부금이 각각 9000원과 900원으로 월 통신비가 1만원 미만이다.

사진제공 CJ헬로비전

KISDI "게임 셧다운제 효과 있다"

적용대상 6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이용시간 '0'
16세 이상은 새벽 3시에도 게임 즐겨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게임 이용자의 90%는 PC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최근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셧다운제 적용을 받는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PC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비율이 0에 가깝다고 29일 밝혔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6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반면 셧다운제 적용을 받지 않는 만 16세 이상 20세 미만 청소년은 오후 8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시간이 급증, 다음날 새벽 3시까지도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보고서는 16세를 사이에 두고 심야시간대 게임 이용패턴이 다른 것은 셧다운제가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셧다운제를 적용받은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시간은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집중된 반면, 셧다운제 적용을 받지 않은 집단은 오후 10시 이후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성제 기자 psj@

올 공공부문 ICT 장비시장 8500억원 규모

정보통신(ICT) 장비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는 올해 공공부문 시장규모는 모두 8503억원으로 조사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는 2014년 공공기관의 사업 수요를 조사한 결과, 장비구축사업 7328억원(86.2%), 유지보수사업 1157억원(13.6%) 등 총 8503억원어치의 ICT 장비사업이 진행된다고 29일 발표했다.

전체 금액 중 순수 ICT 장비 구매예산은 5207억원으로, 서버 등 컴퓨팅장비 3644억원(70%), 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1196억원(23%), 영상 등 방송장비 367억원(7%)으로 조사됐다.

장비중에는 사무용컴퓨터, 서버·스토리지 등 대량으로 구매하는 컴퓨팅 장비의 예산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네트워크장비, 방송장비 순으로 구매계획이 잡혀있다.

컴퓨팅 장비에서는 서버 1343억원(36.8%), 스토리지 632억원(17.4%), 백업장비 146억원(4%), 사무용컴퓨터를 포함한 기타 1523억원(41.8%)이다.

네트워크장비 구매계획은 정보보안에 대한 수요증가로 보안장비가 493억원으로 네트워크장비 구매예산의 41.3%를 차지했다.

발주 기관별로 비중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의 ICT 장비사업 규모가 3711억원으로 43.6%를, 중앙행정기관이 2895억원(34.1%)으로 집계됐다.

김범근 기자 nova@

‘손 큰’ 요우커 어디갔나 했더니…

‘명품 쇼핑’ 강남으로

29일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압구정 본점에서 중국인 관광객 매출이 가장 많았던 브랜드는 ‘바쉐론 콘스탄틴’이다. 시계 하나에 10억원이 넘는 가격으로,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계’로 등재된 하이엔드 브랜드다. 2위, 3위는 에르메스와 루이비통으로 집계됐다. 해당 백화점의 중국인 매출 20위 안에는 샤넬, 예거 르쿨르트, 크리스찬디올, 까르띠에, 롤렉스, 근화모피, 보테가베네타 등 고가 브랜드가 줄줄이 이름을 올렸다.

중국인 ‘큰손’들이 강남지역 고급 백화점 주요 고객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시행된 여유법에 따라 저가 단체관광 상품이 줄고 개별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이같은 추세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백화점들 내일부터 노동절 특수 기대

K-세일·5%상품권 ‘VIP 서비스’ 돌입

현대 압구정점 ‘매출 톱10’ 리스트에

10억짜리 시계 ‘바쉐론 콘스탄틴’ 1위

1분기 은련카드 매출실적 165% 껑충

싸이·별그대 열풍에 ‘한류 중심지’로

중국관광객 87% “강남 쇼핑에 만족”

◇은련카드 매출 급상승… 백화점 중국 VIP 잡아라 = 강남구 중국 은련카드 매출액은 2012년 500억원에서 지난해 1025억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올해 목표는 3000억원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지난 춘절 기간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강남구를 방문한 중국인들의 87%가 재방문 의사를 밝혔다”며 “강남이 싸이 ‘강남스타일’,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등 한류 중심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낙관했다.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등 강남지역 고급 백화점 중국인 매출도 꾸준한 상승세다. 중국 춘절 기간인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현대백화점 은련카드 매출 실적은 165% 급증했다. 갤러리아 명품관 역시 외국인 매출 중 외국인 멤버십을 소지한 고객 매출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중국인 VIP 고객 재방문율이 높다. 이에 따라 백화점들은 중국인 VIP을 위한 서비스를 앞다퉈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리오프닝한 갤러리아 명품관은 웨스트 5층에 업계 최초로 외국인 전용 ‘글로벌 VIP라운지’를 새로 만들었다. 통역부터 동행 쇼핑까지, 일일 비서처럼 고객 개개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전용 컨시어지 데스크다.

지난 3년간 외국인 매출 중 상위 10% 안에 해당하는 특급 고객을 위한 글로벌 VIP 멤버십도 새로 생겼다. VIP로 선정되면 상시 5% 할인, 웰컴 기프트, VIP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VIP 바우처에는 호텔, 병원, 카지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비롯해 뷰티살롱 등 서비스 무료 이용권 혜택이 들어 있어 주변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높였다.

갤러리아 명품관 권준희 마케팅 전략팀장은 “타지에서의 낯설음과 의사소통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갤러리아 명품관 컨시어지 직원이 1대1로 바우처 서비스 예약과 절차를 진행해줄 뿐 아니라 필요시 동행까지 해준다”고 설명했다.

◇노동절 특수, 벌써부터 마케팅 한창 = 백화점 업계는 중국 노동절 기간인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외국인을 위한 특별 세일을 다채롭게 진행한다.

현대백화점은 본점 5층에 위치한 ‘라운지H’를 중국인 VIP를 위한 별도의 공간으로 꾸며, 통역서비스 상주, 다과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10월 출시한 외국인 멤버십 카드 ‘K-카드’는 중국 최대 SNS ‘웨이보’를 활용해 사전 가입 신청을 받은 바 있다. K-카드는 적립금액에 따라 5% 상품권을 증정하며, 강남 유명 맛집·명소 안내 및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안내 책자를 함께 준다.

노동절 기간에는 ‘K-세일’과 은련카드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5% 할인 혜택을 준비했다. 이번 K-세일 행사에는 여성의류, 남성의류, 영패션, 해외패션 등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1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10~20% 할인 또는 브랜드별로 구매 사은품을 증정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여유법 시행 이후 개별 관광객들이 늘면서 강남으로 찾아오는 젊은 중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관광객들은 한류 스타가 입은 패션, 잡화상품을 찾을 때가 많고 같은 상품이 없어도 비슷한 콘셉트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이같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성형외과 체인과 연결된 관광업계 관계자는 “강남지역에는 의료관광 인프라를 중심으로 메디컬 센터, 메디텔, 산후조리원 등 의료관광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구매력 있는 개별 여행객들이 ‘한국 관광’이 아니라 ‘강남’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며 “ ‘경복궁-인사동-명동’ 코스 대신 ‘강남역-가로수길-압구정동’ 코스를 찾는 관광객들은 씀씀이가 크고 한국 유행에 밝다”고 말했다.

이다람 기자 zing@



‘테이크아웃族 잡아라’ 도시락 싸는 외식업계

강강술래·본도시락 나들이철 맞아 신메뉴 선봬


강강술래의 ‘정성도시락’

외식업계가 본격적인 나들이·캠핑·야유회 시즌을 맞아 도시락으로 테이크아웃족 잡기에 나섰다.

외식업체 강강술래는 차조와 흑미를 넣은 건강잡곡밥에 매장 인기메뉴 불고기, 삼색전 등 12가지 이상의 반찬이 담긴 ‘정성도시락’ 2종을 최근 선보였다.

‘정성도시락 1호’는 1만원, ‘정성도시락 2호’는 1만5000원이며 후식과일과 생수까지 함께 제공한다. 전 매장에서 최소 3일 전 전화 또는 방문 주문이 가능하며, 필요한 날짜에 주문한 매장에서 가져가면 된다. 100개 이상 주문하면 서울·경기 지역에 한해 무료로 배달해준다.

도시락 전문업체 본도시락은 봄철 메뉴 ‘이런 냉이된장 도시락’과 ‘고추장먹고 맴맴도시락’을 판매 중이다. ‘이런 냉이된장 도시락(4900원)’은 제육볶음, 냉이비빔된장, 상추쌈이 어우러져 있고, ‘고추장먹고 맴맴도시락(5500원)’은 향긋한 취나물과 견과류 고추장으로 맛을 더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과 함께 출시한 제철나물이 듬뿍 들어간 신 메뉴 2종, 후식 식혜 2개를 함께 포장한 ‘피크닉 박스(1만1000원)’도 전 매장에서 100개씩 한정 판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바쁜 직장인들이나 나들이 가는 가족들이 테이크아웃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동호회 모임, 세미나, 체육대회 등에서 대량으로 주문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며 “5월 도시락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업체들의 메뉴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

“친근해서 좋아요”… 기업 ‘애니 마케팅’ 열풍

옥션 모바일 쇼핑족 겨냥 ‘편하게 사자’

‘캐니멀’ 입은 동원참치·레스모아 ‘펠리’

브랜드·소비자 연결고리 만들기 나서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열풍이 계속되면서 애니메이션 캐릭터 인기가 치솟고 있다. 애니메이션 열풍을 반영하듯 기업들의 애니메이션 마케팅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옥션에서는 최근 ‘쇼핑의 불편 해소’를 주제로 동물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쇼핑왕국’ 브랜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캠페인 첫 광고는 모바일 쇼핑 시 간편결제가 가능한 ‘스마일페이’를 주제로 삼았다. 불편함을 못 견디는 ‘불편하 쥐’, 복잡해서 쇼핑을 포기한 ‘포기하 새’와 ‘귀찮 개’, 입력정보를 잘 잊는 ‘까먹었 닭’ 등이 불평하면 쇼핑의 왕 ‘편하게 사자’가 해결사로 등장한다.

광고와 함께 쇼핑왕국 동물들의 코믹댄스를 ‘움짤(움직이는 GIF 이미지) 이모티콘’으로 만들어 모바일 메신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 배포한다. 또 옥션 홈페이지에서는 움짤 응모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옥션 광고 동물 캐릭터로 소비자가 직접 짤방을 제작해 이벤트 페이지에 응모하면 아이디어와 유머가 돋보이는 응모자에게 옥션 포인트를 증정한다.

옥션 홍윤희 홍보팀장은 “옥션은 이번에 간편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스마일 페이’를 도입하면서 동물 캐릭터의 친근한 이미지를 빌려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모바일쇼핑을 즐기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동원F&B는 토종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 ‘캐니멀’과 제휴를 맺고 새 동원참치 광고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 2월 1차 광고에 이어 2차 광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캐니멀은 평소에는 통조림이지만 사람이 없을 때면 귀여운 동물로 변하는 국산 애니메이션 캐릭터다. 더불어 ‘동원DHA참치’ 100g 4캔을 캐니멀이 그려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낸 기획상품도 함께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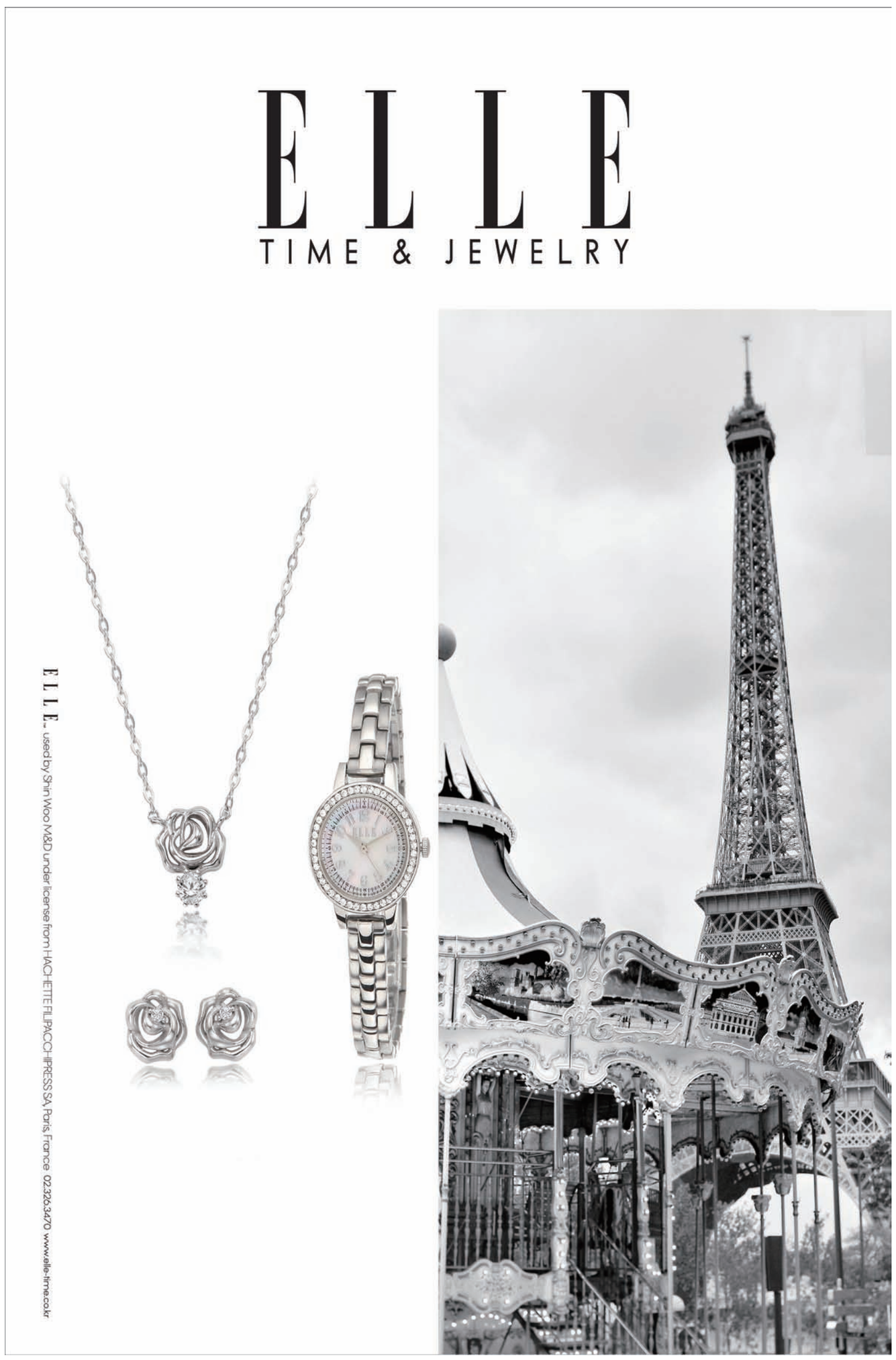


옥션에서 진행중인 쇼핑 불편 해소를 위한 ‘쇼핑왕국(왼쪽)’ 캠페인과 인기 토종 캐릭터 ‘캐니멀’(아토)과의 제휴를 통해 새롭게 선보일 동원참치의 광고.

멀티 슈즈샵 레스모아는 캐릭터인 ‘펠리’를 활용해 자사 브랜드와 친근감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이를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실제 매장에서는 펠리 인형, 펠리 이야기를 담은 퍼즐 등의 아이템뿐만 아니라 크록스와 협업해 제작한 펠리 슈즈 등 다양한 부문에서 캐릭터를 적용해 소비자들에게 다가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캐릭터를 통한 마케팅은 소비자와 유대감을 쉽게 형성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면서 “이전에는 캐릭터가 가진 ‘유아적’인 요소가 브랜드의 이미지 범위를 한정시키고 가치를 가볍게 만드는 우려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겨울왕국 열풍이 증명하듯 ‘유아적’ 요소가 강점이 되면서 캐릭터 애니메이션 마케팅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



〈2013년 4월~2014년 3월〉

마쯔다, 순익 1조3000억원 사상 최고

'단일생산'이 비결

일본 자동차업체 마쯔다가 질주하고 있다. 마쯔다는 지난 3월 마감한 2013 회계연도에 약 1357억 엔(약 1조3776억원)의 순이익으로 회사 사상 최고치 기록을 세웠다. CX-5는 일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부문에서 2년 연속 판매 1위를 기록했다.

마쯔다의 놀라운 성공 뒤에는 이른바 '단일 생산 혁신'이라는 개혁이 있다고 28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단일 생산 혁신은 10년 후까지의 트렌드를 예측해 여러 자동차를 한꺼번에 개발하고 공통 아키텍처(기능적 구조)에 담는 것이 핵심이다.

이전까지의 전통적인 자동차 개발은 진행 중인 모델의 개발이 완료되고 도로 위를 달리고 나서야 다른 자동차 기획이 시작된다. 서로 다른 두 모델이 시차를 두고 개발되면 한 모델에 적용한 최신 기술을 다른 모델에 접목시키기 어려운 구조다.

반면 단일 생산 혁신은 소형차 중형차 SUV 등 기존 자동차 분류를 넘어 전반적으로 완성차 및 부품을 기획하는 개발방법으로 이런 폐해를 대폭 줄였다.

예를 들어 2006년 마쯔다는 10년 후 기술추이를 예측한 논의를 통해 2011~2015년 5년에 걸쳐 출시할 모델을 확정지었다. 회사는 이 상품군을 '제6세대'로 명명했다. 2016년 이후 투입할 제7세대 기획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전체 자동차의 디자인 컨셉은 물론 차량 단면의 형상과 용접 방법 등을 공통화했기 때문에 신기술 도입 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아울러 다른 자동차업계가 소형차 중형차 SUV 등 플랫폼(차대)의 공통화를 추진하는 반면 마쯔다는 동일한 플랫폼 대신 차량 전체 길이와 바닥 높이 등 변동할 수 있는 요소를 명확하게 정의했기 때문에



일본 마쯔다의 베스트셀러 SUV CX-5. 블룸버그

공통 아키텍처로 車 개발
디자인 콘셉트·용접 등 동일
최신기술에 유연하게 대처
車전체 길이·바닥 높이 등
플랫폼 변동… 개성 실현

차종 각각의 개성과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마쯔다 방식은 초기 모든 차종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 설계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일단 개념이 확립되면 이후 개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평가다.

이 방식의 장점은 개발 비용 절감에만 머물지 않는다. 설계 단계부터 생산에 쉬운 구조를 도입했기 때문에 여러 차종을 한 라인에서 생산할 수 있다. 기존에는 엔진을 생산할 때 소형과 중형 등 따로 라인을 깔아야 했으나 이제는 실린더 블록 크기가 제각각이어도 지그를 고정하는 구멍 위치를 통일하는 등 하나의 라인에서 다양한 엔진을 생산할 수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글로벌 리포트

버핏 "후임자 스톡옵션 받아야"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자신의 후임자가 스톡옵션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경제전문지 포춘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스톡옵션에 대해 비생산적이라며 부정적이었던 이전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버핏은 최근 이사회에 보낸 메모를 통해 차기 최고경영자(CEO)가 버크셔에서 유일하게 스톡옵션을 받을 인물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버핏의 메모는 오는 2015년 연례보고서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버핏은 앞서 지난주 주요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코카콜라의 주주총회에 참석해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보상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았다고 포춘은 전했다.

버핏은 현재 버크셔에서 10만 달러(약 1억345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美·EU, 러시아 추가 제재 결정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섰다.

미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간) 러시아인 7명과 17개 기업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 2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으며 재무부 차원에서 개인에 대한 자산 동결과 미국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자산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미국은 또 러시아로의 최첨단기기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지난 17일 제네바 합의 이후 러시아가 합의 내용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위기를 더욱 키웠다고 지적했다.

EU는 이날 브뤼셀에서 28국 대사회의를 열고 러시아 인사 15명에 대해 자산을 동결하고 여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EU의 러시아 및 크림 공화국 제재 대상자는 48명으로 늘게 됐다.

EU 정상들은 지난달 6일 러시아와 비자 면제 협상을 중단하고 경제협력을 위한 대화도 유예하기로 했으며 17일에는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 21명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또 21일에는 추가로 러시아 인사 12명에 대해 여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했다.

GE, 알스톰 인수 유력

프랑스 최대 엔지니어링업체 알스톰을 둘러싼 인수전이 제너럴일렉트릭(GE)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프리 이멜트 GE 최고경영자(CEO)가 이날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을 만난 뒤 분위기가 반전됐으며 독일 지멘스에 비해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날 GE의 알스톰 인수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프랑스 정부가 GE와 지멘스 양사의 제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으며 어느 한 쪽에 치우지지 않기로 했다고 고 설명했다.

프랑스 정부는 앞서 알스톰이 프랑스를 상징하는 고속열차 테제베(TGV)를 만드는 업체라는 사실과 매각 이후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감안해 GE의 알스톰 인수에 부정적었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GE는 알스톰의 열차와 운송사업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보전할 수 있다며 프랑스 정부를 달래고 있는 상황이다.

알스톰의 시가 총액은 115억 달러 (약 12조원) 정도로 GE는 인수액으로 130억 달러를 제시한 상태다. 지멘스는 GE의 인수안을 넘어서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향을 앞서 밝혔다.

"美금리 내년 말 1%로 인상…현재까지 옐런 성적은 B-"

지난달 0.83%서 전망치 올라… 축소 규모도 420억달러 커져
버냉키 평점 B에 비해 낮은 편…리더십·정책 투명성·소통 부족



미국 월가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오는 2015년 말 연방기금 목표금리를 1%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CNBC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의 0.83%에 비해 전망치가 상승한 것으로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해 매파적인 전망이 늘어난 것이라고 CNBC는 분석했다.

CNBC는 전문가들은 대상으로 실시한 '4월 CNBC 연준 서베이'를 통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연준이 내년 양적 완화 정책에서 전환해 재무제표 규모를 줄이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응답률은 지난 3월의 39%에 비해 높아진 것이다.

재무제표 축소 규모는 내년 1460억 달러로 예상됐다. 전월 전망치는 1040억 달러였다. 현재 연준의 재무제표 규모는 4조2000억 달러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내년 7월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응답자의 3분의 1은 연준의 자산매입 규모를 줄이는 테이퍼링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응답자의 60%는 연준이 현재 통화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서베이 결과는 이전에 비하면 매파적인 응답이 많아진 것이지만 전문가들은 연준이 상황에 따라 경기부양을 의미하는 비둘기파적인 정책을 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CNBC는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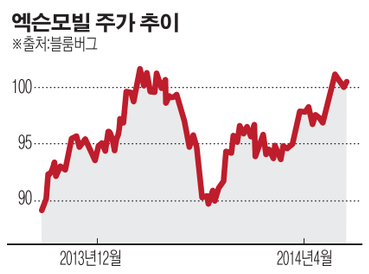
재닛 옐런〈사진〉 연준 의장에 대한 월가의 평가는 벤 버냉키 전 의장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월가 전문가들은 옐런 의장에 대한 성적을 'B-'로 매기고 있다. 버냉키에 대한 월가의 평점은 'B'였다.

부문별로 월가는 옐런 의장의 경제 전망 능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리더십과 정책 투명성, 시장과의 소통, 전반적인 정책 능력에 대해서는 버냉키에 더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고 CNBC는 설명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아베도 '세월호' 애도 28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쿄 미나토구 재일본대한민국국민단 중앙본부에 찾아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 헌화대에 꽃을 올리고 묵념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헌화 후 "많은 분이 희생돼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도쿄/연합뉴스



"美 에너지업종 6~8% 추가상승"

CNBC 최근 한달간 증시 분석
'엑슨모빌' 약세 지나 고점 질주

미국 주식시장에서 에너지업종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전문케이블 CNBC는 최근 한 달 동안 증시 흐름을 분석한 결과 에너지업종이 주요 업종 중 최고의 성적을 냈다면서 오는 5월에도 전망이 낙관적이라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카터 워스 스턴애지 수석기술적투자전략가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업종이 지난 2008년 기록한 고점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에너지업종의 주가가 6~8% 상승할 것이라면서 업종 대표종목인 엑슨모빌에 주목했다. 워스 전략가는 최근 옵션 차트를 볼 때 엑슨모빌의 주가가 올 초 약세를 지나 지난 12월에 기록한 고점을 향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클 코프 대시파이낸셜 투자전략가 역시 엑슨모빌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103.5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 역시 에너지업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여성 CEO 해고율, 남성보다 10%P 높아"

스트래트지앤드, 글로벌 기업 2500곳 10년간 조사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남성보다 잘릴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2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일부 기업들이 임명 때 남성 CEO 때보다 더 큰 리스크를 느낀 탓이라는 설명이다.

컨설팅업체 부즈앤코로 알려진 스트래트지앤드(Strategy&)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글로벌 기업 2500곳 CEO의 10년간 행적을 조사해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서 남성 CEO 10명 중 3명의 CEO가 자리에서 물러날 때, 여성 CEO 5명 중 2명이 수장 직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CEO 해고율이 남성보다 무려 10%포인트 높은 것이다.

'고 스펙'을 자랑하던 야후의 캐롤 바츠 CEO와 프랑스 원자력 업체 아레바의 안느 로베르종이 대표적인 사례다. 바츠 야후 CEO는 주주들의 불만족을 이유로, 로베르종 CEO는 프랑스 정부의 회사 경영에 대한 영향력 강화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번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퍼올라 칼슨은 일부 국가 기업들이 문화적 정치적 부담 속에서 여성에게 CEO직을 맡기는 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 CEO를 택하는 것은 남성 때보다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작은 문제만 생겨도 자리를 잃게 된다는 설명이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亞 성장 中·日이 발목… 선진국 회복세가 내수 촉진"

中 디폴트·그림자 금융 확대
日 소비세 인상 인플레 우려
수출 의존도 높아 긍정적
올 5.4% 전망…성장세 유지

중국과 일본이 아시아 전체 시장의 전망을 위협하는 요소로 부상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고 28일(현지시간) 미국 CNBC가 보도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이 자국 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으로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가 역풍을 맞게 된다면 아시아 전체 시장으로 선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IMF는 올해 아시아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의 5.3%에서 5.4%로 소폭 상향조정하면서도 이러한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해 5.2% 성장한 이후 꾸준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내년에는 5.5%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아시아 시장이 역외 금융시장에서 촉발된 리스크를 비롯해 여러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미국의 경기 성장세가 개선되면서 각국의 금리가 오르게 되면 아시아 시장이 상황이 더 퍽퍽해질 것"이라면서 "자금 흐름과 자산 가격 변화가 주가·환율·채권 가격 변동과 함께 동반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IMF는 아시아 지역 경제는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와 함께 나타난 아시아 역외 국가의 수요가 증가가 대부분 아시아 국가의 내수도 꾸준히 촉진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선진국 경제가 고비를 넘기면서 선진국에 대한 수출에 의존도가 높은 상당수의 아시아 국가가 경기 회복을 위한 자금 확보에 한 시름 덜었다"면서 "이는 우리가 아시아 지역의 경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 일본의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다고 IMF는 지적했다.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7.5%로 내년에는 이보다 0.2% 포인트 낮은 7.3%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그림자 금융을 비롯해 중국 지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고조된 상황에서 제조업 경기마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를 웃돌면서 이러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의 아베 총리의 경기부양책도 예상보다 효과가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임금 상승은 없이 소비세만 올리는 꼴이 돼버리면서 인플레이션과 개인투자를 끌어올린다는 아베 정권의 의도에서 멀어질 수 있게 됐다고 IMF는 지적했다. IMF는 올해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4%, 내년은 1.0%로 전망하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세월호 침몰 참사 검찰, 유병언 前세모회장 수사 본격화

최측근 7인방 줄소환 '비자금 흐름' 추적

오늘 김한식 청해진 대표 시작 나머지 6명 피의자 신분 조사
해외 체류중 유씨 차남·딸 소환 통보 '전두환식 압박' 착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찰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이 고창환 세모 대표 등 핵심 계열사 대표를 포함해 이른바 유 전 회장의 최측근 7인방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줄소환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29일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를 시작으로 세모 고창환 대표, 천해지의 변기춘 대표 등 유병언 전 회장 측 계열사 대표 등 5~6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잇달아 소환 조사키로 했다.

청해진해운 김 대표는 유씨 일가와 함께 계열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른바 유 전 회장 측근 7인방 중 한 명으로 2010년부터 2년 간 세모의 감사를 맡았고,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감사를 지내다가 최근 물러났다.

검찰은 유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회사들 간의 수상스러운 자금 흐름 가운데에 김 대표와 청해진해운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유씨 측근·자녀들에 대한 검찰 소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해외에 나가 있는 유씨 차남 혁기씨와 두 딸 섬나·상나씨, 측근인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에 대해 이날까지 귀국해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에 이어 이른바 '7인방'으로 불리는 핵심 측근들에 주목하고 있다.

김한식·김혜경·고창환 대표와 김필배 전 대표를 비롯해 변기춘 아이원아이홀딩스 대표, 송국빈 다판다 대표, 이순자 전 한국제약 이사 등이다. 이들은 유 전회장과 오랜 인연을 맺으며 유 전회장 대신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회사 경영을 맡아 왔다.

이들 중 상당수는 유 전회장과 모 종교단체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28일 유씨 일가의 자금줄로 지목된 페이퍼컴퍼니와 측근의 주거지, 계열사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씨 소유의 '키솔루션' 사무실과 과거 대구 주거지, 모래알디자인 사무실, 유전 회장 최측근인 고창환 세모 대표의 경기 용인시 자택 등이다.

유씨 일가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불법 외환거래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지난 23일 검찰의 압수수색 전후로 다량의 문건을 파기한(증거인멸) 혐의로 해운조합 인천지부장과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이날 체포했다. 검찰은 또 해운조합 인천지부 사무실과 체포된 3명의 자택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

세월호 침몰 인명피해 현황
(29일 오전 10시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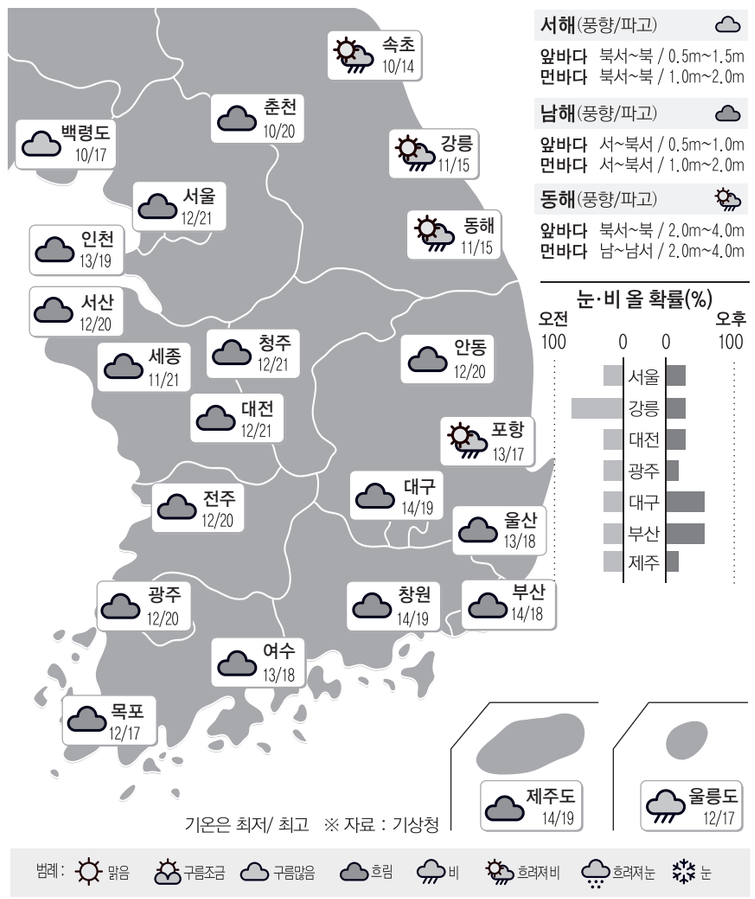
탑승	476명	구조	174명
사망	193명	실종	109명

내일의 날씨

4월 30일 ☼ 해뜸 05:39 해짐 19:21 ☽ 달뜸 06:14 달짐 20:24

전국이 흐리고 강원도영동과 경북동해안은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에 그치겠으며 충청북도와 전라북도, 경상남북도에는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한두차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1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전해상에서 2.0~4.0m로 높게 일다가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는 0.5~2.0m로 일겠다.



물살 센 사리때 수색 난항
낮 12시쯤 '다이빙벨' 투입

유씨 일가, 청초밭조합 명의로 제주에 2만여㎡ 땅

아해·세모 등 근저당 담보대출 뒤 영농법인 앞세워 부당매입 의혹

세월호 실종자에 대한 구조·수색작업이 14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난항이 예상된다.

선체 내부 장애물뿐만 아니라 물살이 가장 거세지는 사리때(대조기)에 접어들면서 앞으로 선체 수색이 더 어려울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사고해역에는 이날 오전 한때 5㎜ 내외의 비가 온 뒤 오후부터 그치며 파고 0.5~1m, 초속 7~11m 바람이 불 것으로 예고됐다. 그러나 물살이 가장 거세지는 사리때(대조기)에 접어들어 수색작업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사리때는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지며 이 기간 조금에 비해 물살이 40%가량 더 세진다.

알파잠수기술공사측은 이날 오전 사고해역에 도착한 뒤 낮 12시께 다이빙 벨을 다시 투입할 예정이다. 구조팀은 부유물로 막힌 출입문 확보를 위해 해군이 보유한 와이어 절단기를 사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박태진 기자 tjpippo@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인이 설립한 종교단체와 관련설이 나도는 청초밭영농조합법인이 제주도 추자도에 2만여㎡의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초밭영농조합법인 소유 추자면 토지는 신양리 84번지 등 전체 24필지 2만5000여㎡에 달한다.

이들 토지는 유 전 회장 일가의 계열사인 아해와 세모 등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청초밭영농조합법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가 토지매매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청초밭영농조합법인은 '기독교복음침례회를 위한 사업'을 목표로 설립돼 서귀포시에 약 1000만㎡에 이르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 전 회장 장인이 설립한 종교단체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자면 신양리 74번지의 토지(전) 1511㎡는 A씨가 지난 1999년 7월 임의경매로 사들인 2개월 뒤 아해가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후 2002년 5월 청초밭영농조합법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또 신양리 65번지의 토지(전) 860㎡는 A씨가 지난 1998년 6월 매매한 4개월 뒤 세모가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2002년 5월 영농조합으로 팔렸다. 신양리 79번지의 토지 510㎡는 세모가 1996년 10월 사들인 뒤 A씨에게 직접 팔았다.

이처럼 대부분 A씨 소유의 토지들이 아해와 세모 등을 거쳐 청초밭영농조합법인에 팔렸다. 청초밭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상당수는 제주의 한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것으로 미뤄 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초밭영농조합법인이 추자도에 보유한 토지의 실태를 먼저 파악한 후 이 조합이 어떤 경위로 이 농지를 취득했고 현재 왜 방치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토록 제주시에 통보했다.

도는 특히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 규정이 제대로 지켜 졌는지와 또 농지를 취득할 때 제출한 영농계획서대로 이행이 됐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구성헌 기자 carlove@

오늘부터 공식 합동분향소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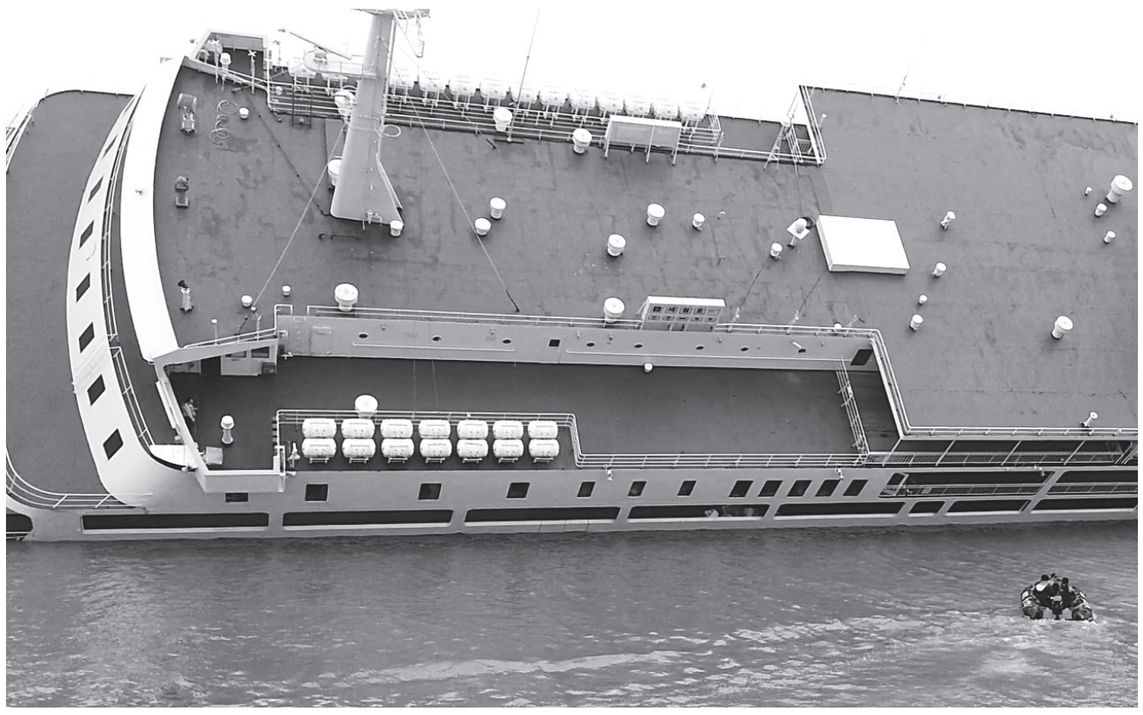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합동분향소가 29일부터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됐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사망자·실종자 가족과 합의에 따라 29일 오전 10시부터 안산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운영키로 했다.

안산시는 이날 새벽 조문객들이 쓴 추모 메시지와 필요한 물품 등을 모두 화랑유원지로 미리 옮겼다. 공식합동분향소에는 학생 희생자 152명을 비롯해 모두 159명의 영정이 안치될 예정이다.

합동분향소는 24시간 운영된다. 폐쇄된 올림픽기념관 임시합동분향소에는 어제까지 모두 18만 명이 넘는 조문객이 다녀갔다. 추모 문자도 8만 여통에 달했다.

김성배 기자 sbkim@



해경 구조 영상 '텅 빈 갑판' 해경이 28일 세월호 침몰 당시 최초 구조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해경이 공개한 영상에는 선장 이준석씨와 선박직 선원들이 세월호가 침몰한다고 전남소방본부에 신고한 오전 8시 52분부터 40여분이 지난 9시 35분부터 탈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는 세월호의 갑판 위 모습. 승객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해경의 구명보트가 접근하고 있다. 뉴시스

현대重 협력사 직원 또 사망… 두달새 8명

안전관리진단 시작하는 첫날
차량 신호하다 바다에 추락사

현대중공업에서 최근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불감증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29일 울산해양경찰서와 현대중공업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8시 49분께 울산시 동구 전하동 현대중공업 안 부두 도로에서 협력업체 직원 김모(38)씨가 2m 아래 바다에 빠져 숨졌다. 김씨는 사고 당시 300톤 가량의 선박블록을 옮기는 트랜스포터 차량의 오른쪽 신호수 역할을 하며 뒷걸음치다가 바다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해경과 119구조대의 수색끝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날은 고용부가 현대중공업에 대해 다음달 9일까지 2주간 종합안전관리진단을 시작하는 첫 날이었다.

지난달부터 현대중공업과 계열 공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것은 이번이 8명째다. 현대중공업 4건, 현대삼호중공업 2건, 현대미포조선 1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화재' 아모레퍼시픽, 연간 1조 생산 빨간불

치약·샴푸 등 대전 대화동 창고
7시간만에 진화 인명 피해 없어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아모레퍼시픽 매스코스메틱 사업장에서 28일 오후 2시 49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지상 3층 규모 조립식 철골조 물류창고 4400㎡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7시간 만인 오후 9시 55분께 진화됐다. 이날 불로 검은 연기가 일대를 뒤덮었고, 주변 교통 혼잡도 빚어졌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물류창고에서 연기가 새어나오면서 불길이 보여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 측은 "당초 직원 1명이 연기를 마신 것으로 파악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검사 결과 지병 때문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불이 난 사업장은 연간 1조1000억원(지난해 소비자가 기준) 규모의 치약과 샴푸 등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곳이어서 이번 화재로 생산차질이 우려된다.

이선애 기자 lsa@

삼성, 오늘부터 고졸 공채 최대 700명

JOB아라 취업

전자·에버랜드 등 11개 계열사
다음달 11일까지 온라인 접수

삼성이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시작한다. 채용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700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삼성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삼성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고졸 공채 지원서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내년 2월 이전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군복무 중인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역하면 지원할 수 있다. 모집부문은 △소프트웨어직 △연구개발직 △설비엔지니어직 △사무직 등이다. 삼성은 내달 25일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삼성직무적성검사(SSAT)를 치른 뒤 6월 중 면접전형을 거쳐 6월 말 합격자 발표와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고졸 공채는 지난 2년간 그룹 주관으로 실시했던 것과 달리 각 계열사별로 실시한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디스플레이, 삼성화재, 삼성중공업, 삼성물산(건설부문), 삼성에버랜드, 제일기획, 삼성서울병원, 에스원 등 총 11개 계열사에서 진행한다. 고졸 공채는 대졸 공채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진행하는 것과 달리 상반기에만 한 차례 진행한다.

고졸 공채로 입사한 직원은 개인 역량에 따라 5~6년 후 대졸 수준인 3급 사원으로 승진하게 된다. 3급 사원이 되면 대졸 신입사원과 동일한 처우를 보장받는다.

송영록 기자 syr@

5세 이하 영유아, 손·발·혀 물집 '수족구 주의보'

4주 연속 의사환자수 급증세
손발씻기 등 위생관리 철저히

최근 5세 이하 영유아를 중심으로 수족구병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질병당국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서의 봄철 개인위생 준수를 당부했다.

29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국 100개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족구병을 표본감시한 결과, 지난 13~19일(제16주) 참여의료기관의 외래환자수 1000명당 수족구병의사환자수가 3.9명으로 지난 4주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작년 같은 기간 2.6명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수족구병이란 엔테로바이러스에 의해 여름과 가을철에 영유아 등이 많이 걸리는 질환으로 혀, 잇몸, 뺨의 안쪽 점막과 손, 발등에 수포성 발진이 생긴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분비물(침, 가래, 코) 또는 대변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다.

대부분의 경우 증상 발생 후 7~10일 이후 자연적으로 회복하나 고열이나 구토, 호흡곤란,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뇌간뇌염, 무균성 뇌수막염 등 신경계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종합병원을 방문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이 병은 호흡기 분비물(침, 가래, 코) 또는 대변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므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염기간(발병 후 1주일) 에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손씻기를 생활화하는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한다.

김부미 기자 boomi@

사회통합과 정보격차 해소

젊은 발언대



최 정 은
울산대 국제관계학과
선진화홍보대사 12기

디지털 혜택으로부터 소외
노인·장애인에겐 절실한 문제
결국 세대·계층간 불통으로
정보격차 해소 정부가 나서야

지하철을 타면 노약자 좌석을 제외한 대부분의 승객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모두가 스마트폰에 열중한다. 우리는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 넘쳐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그리고 습득한다. 2014년 현재 우리의 모습이다. 인터넷과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스마트폰이 대중화됐다.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편리하고 풍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빠르게 스마트 시대로 접어들면서 과거 컴퓨터로 해결하던 업무를 이제 스마트폰이 대신하고 있다. 관공서의 민원이나 정보 조회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은 디지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 바로 정보 격차로 인한 세대 간 불통이다.

특히 노인층이나 장애인에게 절실한 문제다. 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한 민원처리나 정보조회는 다른 나라 이야기에 불과하다. 어르신들의 경우 사회 적응력이나 정보활용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이는 정보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소 가운데 하나다.

소외계층이 지식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면 결국 이는 소득 격차의 심화로 이어진다. 나아가 사회통합의 길도 점점 멀어지게 된다. 세상이 살기 편해졌음에도 소외계층은 스마트 시대를 통해 빈부 격차뿐 아니라 정보 격차의 설움까지 받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노인층의 정보활용을 돕기 위한 사회 인프라 구축은 미비한 게 현실이다. 이렇듯 소득 격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정보 격차 해소의 기회를 주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영국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휴대폰을 가장 먼저 사용한 나라다. 스마트폰이 장애인의 삶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장애인을 위하는 마음이 결합해 스마트폰이 많은 소외계층의 눈과 귀가 되고 있다. 정부가 적극 나선 결과다.

우리나라는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자랑한다. 그러나 소외계층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3분의 1 수준. 따라서 소외계층에 한해 휴대폰 보조금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무분별한 보조금 과열 논란을 줄이고 소외계층의 스마트폰 보급을 늘려 정보 격차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국산 스마트폰은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높은 세계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을 개발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발명해 접목시킨다면 더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다.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의 스마트폰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소외계층이 정보 격차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IT 강국의 국민으로서 어느 나라 국민보다 우수한 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리길 희망한다. IT 강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일궈내 더욱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한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병준의 말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박근혜 정부, 원점에서 다시 고민하라

수십년 전 큰 국책 건설사업에 참여했던 한 인사의 말이다. "안전장치? 제대로 설치할 돈도 시간도 없었어. 조는 놈 있으면 냅다 정강이나 걷어차는 거지. 죽어나가는 사람? 당연히 있지. 시작할 때 이미 몇 명쯤 죽어나갈 거라 예상하기도 해. 어떡할 거야. 그게 훨씬 싸고 빠른데."

그랬다. 빠른 근대화와 경제성장 속에는 그런 비밀이 있었다. '워커 발'의 '군기'가 안전시설과 안전장치를 대신했고 사고는 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생각했다.

건설부문만이 아니었다. 군, 산업현장, 대중교통시설 등 사회 곳곳에 이런 일이 만연했다. 전태일의 죽음으로 세상에 알려진 피복 노동현장의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이나 이황화탄소 문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원진레이온 사건 등은 그저 빙산의 일각이었다.

정부는 이 모든 것을 감추거나 축소하는 데 일조했다. 때로 관계 공무원의 목을 치기도 하고 위령탑을 세운 뒤 그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이 원하니 그렇게 했을 뿐, '싸고 빠르게'의 행진은 계속되었다.

좋게 말해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었다고 하자. 먹고살기 위해, 또 잘 살아 보기 위해 그랬던 일이었다고 하자. 그 덕에 수출 잘 해서 오늘의 이 나라가 되었고, 고속도로건 지하철이건 싸게 이용해 왔지 않느냐 자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이만큼 살게 된 데다 민권도 크게 성장했다. 무엇보다 국민이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는다. '싸고 빠르게'의 가치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생명의 가치와 존엄을 그 앞에 놓을 만큼은 되었다.

그러나 수십년 굳어 온 관행과 문화다. 각종의 이해관계까지 복잡하게 물려 있다. 마음 한 번 먹는다고 바로 바뀌거나 고쳐질 일이 아니다. 한 예로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기 전 선박의 구조변경을 금지하고, 변경된 구조를 다시 원상태로 돌리게 했다고 해 보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선박회사들과 그 조합은 그야말로 목숨 건 로비를 했을 것이다. 법 개정을 막아줄 국회의원이나 법무법인을 찾아 나섰을 것이고, 싼 운임을 원하는 승객과 화주들을 자극하기도 했을 것이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반대와 저항이 아니다.

어려우니 그만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만큼 단단한 각오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과 이들과 얽힌 전·현직 관료집단, 그리고 이들과 연계돼 있을 정치인들과 전문가 집단 등 삼중, 사중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안전문제의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가 이 만한 역량을 갖고 있을까? 대답은 분명 부정적이다. 다른 부처들과 같은 지위를 가진 기관일 뿐이며, 수많은 법과 규정에 묶여 있는 관료조직이 주를 이루고 있는 기관일 뿐이다. 그런 역량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 그 이름을 어떻게 바꾸고 그 권한을 어떻게 규정하든 안전문제에 관한 한 홍수대책 등 예전에 다루던 일을 하는 정도로 뒷걸음치게 된다.

박근혜 정부의 실수는 여기에 있다. 정말 강한 의지가 있었다면 기존의 문화와 관행을 뛰어넘을 수 있는, 또 삼중, 사중의 방어망을 뚫을 수 있을 정도의 기획을 했어야 했다. 아울러 그에 맞는 추진체계와 관리체계를 갖췄어야 했다. 지금 와서 '해수부 마피아'가 어쩌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설픈 일이다.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짧지 않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신 다시 한번 강조하자. 행정과 정책과정을 단순하게 보지 마라.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이야기하면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아울러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또 구조를 제대로 못한다고 욕하지도 마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 방향을 바로잡아 이해관계자와 관료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일이다. 모두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이라는 말이다.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총리와 장관을 다 바꾼다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사람을 바꾸기에 앞서 안전문제의 구조와 이해관계 집단이나 관료들의 행동양태부터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라.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고민하라는 뜻이다.

온라인 와글와글

'디카페인' 음료라더니… 또 속았네



○…'디카페인 음료'가 '카페인이 전혀 없는 음료'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 한 연구소에서 36종의 디카페인 커피를 실험한 결과 평균 20mg의 카페인이 검출됐다는 소식이다. 네티즌들은 "그냥 커피만 마시는 건 좋은데. 크림이랑 설탕 같이 먹으면 독약", "커피에 카페인이 안 들어갈 수가 없지", "속았다", "커피 가격이 프랜차이즈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품이 너무 심하다", "디카페인이라 해놓고 가격만 비싸지", "디카페인 하루에 3잔만 마셔도 카페인 듬뿍 들어간 커피 마신 거랑 똑같겠네", "디카페인에 카페인이 있으면 용어가 틀린 거 아닌가?", "집에 가서 디카페인, 카페인 함량 성분 표시돼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카페인이든 디카페인이든 커피 많이 마시면 건강에 안 좋아", "커피는 카페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시는 거 아냐? 디카페인이면 커피 작용을 하는 건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대학생들은 가장 보기 싫은 최악의 꼴불견 후배로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후배'를 꼽았다. 평소 선배를 '소 닭 보듯' 하는 후배가 아는 척할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데. 네티즌들은 "요즘 애들은 선배를 선배로 보지 않지", "예전엔 선배한테 인사 제대로 안 했다고 엄청 갈굼당했는데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끈끈함이 사라졌다는 거지", "개인주의화의 폐해다", "여자 애들은 밥 사 달라고 할 때만 애교, 남자 애들은 술 사 달라고 할 때나 당구 치자고 할 때 징징", "대학이나 군대나 요즘엔 콩가루", "후배한테 잘못 걸리면 과생활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요즘의 대학 풍경", "군대 갔다오면 남자들은 좀 변하지", "남는 건 동기랑 선배다. 선배한테 잘해라" 등 끈끈함이 없는 대학 생활을 안타깝게 바라봤다. 박준영 기자 PJY32@

오늘의 Hot Click 베스트5

이투데이 온라인 집계

1. JTBC 손석희 언딘 정면겨냥 "시신 인양 고의 지연"
2. 황대식 한국해양구조협회 본부장 "언딘 현장 지휘 사실과 다르다"
3.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직원 1명 추락사…안전불감증 도마 위
4. 청와대, '자유게시판 글 삭제' 해명… "본인이 직접 한 것"
5. 세월호 분향소 찾은 아베 총리…일본서 추모 움직임

오늘의 BAE 배국남닷컴 www.baekn.com

'빅맨' 열혈 사나이, 강지환



배국남닷컴은 28일 배우 강지환을 만났다. 강지환은 KBS 2TV 월화드라마 '빅맨(극본 최진원, 연출 지영수)'에서 자신의 심장을 빼앗기지 않고자 절대권력에 맞서는 열혈 사나이로 변신한다. 그는 "드라마 시놉시스 첫 장에 적힌 '내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가족은 내 심장만을 원했다'라는 카피가 너무 좋았다"며 "이 카피 하나 때문에 작품을 선택했다고 말할 만큼 그때의 강렬함은 잊지 못한다"고 작품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이날 강지환은 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한껏 드러냈다. 그는 "대사 톤을 과감하게 바꿨다. 살아있는 날 연기하고 싶었다"며 "지탄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실생활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지환은 캐릭터 느낌을 제대로 살리고자 직접 의상을 고민하고 스타일링하는 열정을 보였다. 그는 "1부터 6부까지 외적인 모습과 연기에 주안점을 뒀다"며 "상의에 '뭘 해도 크게 될 놈', '세상에서 제일 잘나가는 놈' 등 패치를 붙여서 시장통에서 힘들게 살아온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번에 융화될 수 없는 재벌가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광장시장(서울 종로구)에서 1980년대 느낌의 슈트도 직접 샀다"고 덧붙였다. 밑바닥 인생과 재벌 2세의 삶 중 어느 것이 더 좋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양아치 연기가 더 편하다. 머리나 의상을 신경 안 써도 된다"며 "재벌이 됐을 때는 슈트를 입어야 하니 턱선을 살리고자 다이어트도 했다"고 촬영 에피소드를 전했다. 특히 강지환은 드라마 '쾌도홍길동'(2008) 이후 약 6년 만에 KBS 드라마에 출연하게 됐다. 그는 "오랜만에 KBS에 왔다. KBS 특유의 분위기를 새삼 느껴서 새롭기도 하고 신인 때 기분도 들었다"며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더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김민정 기자 mj_kim@

(주)지앤에스지
골프용품 주문생산 전문업체



VIP GOLF GIFT SET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G&SG의 골프필드용품



기업홍보용품 / 선물용품 / 골프장개장기념품
골프필드용품 제조전문 ☎ 02-744-7444/765-7404 www.gnsg.co.kr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208 (주)지앤에스지
※광고에 게재된 로고나 상호는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입니다.
NAVER 지앤에스지

正論 세월호 참사와 정부개혁



현 진 권
자유경제원장

세월호 참사의 책임 소재를 관료와 민간 간의 결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전직 해양수산부 관료가 선박협회 및 회사 임원으로 가니, 결국 관료들이 제대로 감독할 수 없었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해양수산부와 선반관련 업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한국은 대부분의 민간영역이 전직 정부관료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건설과 교통업체는 국토교통부, 농업관련 업체는 농업축산식품부, 많은 산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직관료들이 주요 임원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각 부처의 힘도 산하 공기업, 민간협회와 업체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각 부서의 경쟁률과 직결한다.

이론적으로 보면, 모든 공직자들은 공익이란 한가지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해마다 예산 배분하는 시즌이 되면, 각 부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된다. 자신 부처의 예산이 적으면, 다른 부처 예산으로 넘어가므로, 공익에는 해는 없다. 그러나 해당 부처는 다른 부처를 생각지 않고, 자신 부처만 생각한다. 부처의 예산 규모는 바로 민간을 휘두르는 힘이기 때문이다. 5조원보다 10조원 예산을 가지면, 그만큼 민간에 배분하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민간은 머리를 더 조아린다. 돈을 주면, 반드시 감독해야 하고, 반드시 행정상의 비리가 발생하게 된다. 현실과 동떨어진 촘촘한 집행규제로 인해 조그마한 위반은 필연적이다. 그래서 민간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온갖 로비를 해야 한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전직 관료들을 해당 민간 협회 및 업체의 임원으로 앉히는 것이다. 전직 관료 선배가 부탁하는데 후배 관료들이 무시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정이다. 전직 선배 관료들은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후배 관료들의 밥과 술, 명절날 선물, 경조사를 챙긴다. 이렇게 구축된 관계는 어떤 원칙과 법으로도 깰 수 없다.

관료들과 민간 간 공생관계는 경제적으로 합리적 행위다. 우린 공직자 행태에 대해 너무 규범적 시각에서 본다. 마치 공직자가 성인군자가 돼야 한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똑같다. 기업인이 이윤을 추구하듯이, 공직자도 개인이익(self-interest)을 추구한다. 공직자의 행위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들의 자연스러운 개인이익 행위를 그대로 보자는 것이다. 공직자에 대한 우리 시각이 규범적 공익추구에 한정되면, 현실과 괴리를 가질 때는 공직자들의 도덕과 사명감만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또 다른 세월호 참사가 계속 발생할 것이다.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

공직자와 민간 간의 협업은 자연스럽고, 서로에 경제적 이득이 되므로 막을 방법이 없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해당 부처만 재수없이 그들의 공생관계가 천하에 밝혀질 뿐, 달라지는 건 없다. 공공부문을 없앨 수도 없으니, 그냥 이렇게 지루한 사건과 처벌의 악순환이 계속될 뿐이다.

공공부문에 대한 사고를 바꿔보자. 공공부문의 역할은 분명 존재한다. 치안과 안전기능은 정부의 고유 역할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엄청난 세금을 부담한다. 치안과 안전을 정부가 담당하되, 꼭 공무원이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집 치안을 동네 경찰서에만 맡기지 않고 사설 경비업체에 맡기는 집들도 있다. 민간의 경비업체가 경찰보다 더 꼼꼼히 챙겨준다. 정부의 치안 및 안전기능을 민간업체에 맡겨보자. 이른바 '민간위탁'이다. 정부가 꼭 해야 하는 기능이지만 정부가 직접 하지 않고, 민간기업이 수행하게 한다. 더구나 민간기업이 경쟁구도면, 정부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정부개혁 방향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사고 배에서 열 걸음만 가면 구출될 수 있는데, 공공부문에선 한 걸음마다 책임 회피를 위해 많은 단계의 결재가 소요된다. 차라리 민간에게 맡겨, 열 걸음을 단숨에 뛸 수 있도록, 사고를 바꿔보자.

객석

김정은이 정말 경제회생을 원한다면



김 영 희
정책금융공사
북한경제팀장

김정은 정권 들어 북중 국경을 넘는 탈북자수가 대폭 감소했다.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2011년 북한이탈주민 입국자수가 2700명인데 2012년과 2013년에는 약 45%가 감소한 1500명선에 그치고 있다. 이는 북한이 국경지역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한 원인도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리도 일부 작용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김정은은 집권 첫해인 2012년 4월 첫 육성연설에서 주민들에게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고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했다. 김정은이 이 약속을 지킬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의 약속을 언제까지 기다릴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김정은에게 있어 경제회생을 통한 주민생활 향상은 늦출 수도 놓칠 수도 없는 중대과제라 하겠다.

그래서인지 김정은은 집권 첫해에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제시한 데 이어 두 번째 해에는 외국자본에 의해 중앙과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개발구법을 내놓았다.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은 기업 자율성이 확대된 '독립채산제'를 의미하는데 이를 교육, 보건과 같은 예산제기관을 제외하고 전면 도입했다. 각 기업에 이윤본위를 추구할 수 있는 '독립채산제위원회'를 신설하고 해당 기업의 지배인(사장), 회계과장 등이 매월 한번씩 독립채산제회의를 열고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김정은 정권 들어 도입한 '독립채산제'는 기업의 이윤본위를 자극하는 과거와 다른 기업관리 운영방식이다.

그러나 미래는 불투명하다. 핵을 고집하고 있는 한 외자유치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문을 열어놓지 않아서 외국자본이 들어갈 수 없었지만, 지금은 문을 열고 들어오라 손짓해도 외국자본이 기피하고 있다. 김정은이 진심으로 경제회생을 통한 주민생활 향상을 원한다면 본질적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기자의 눈

중국만 자극한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



김 나 은
국제경제부/
better68@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셀카는 이번 아시아 순방길에서 단연 화제였다.

지난 27일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나지브 라자크 말레이시아 총리와 나란히 서서 셀카를 찍었다. 이 사진은 라자크 총리의 트위터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세계적 중심 이슈가 됐다. 다정히 웃고 있는 양국 정상의 사진만 놓고 보면 '아시아 재균형'을 위해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오바마 대통령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해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4개국을 방문했지만 성과는 없었다고 입을 모은다. 글로벌 무대에서 중국이 급부상하자 이를 견제하고자 '아시아로 축 이동'을 외치며 아시아 국가 챙기기에 나섰지만 이들 국가의 불안감을 덜어낼 수 있는 실질적 대책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탓이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대신 중국을 의식해 중국과의 민감한 사안에서 순방국의 편을 들어주는 듯하면서도 중국의 심기도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려고 '입 조심'하는 것이 역력히 보였다. 일본에서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라고 선언하면서도 미국은 중국과의 견고한 관계를 원한다면서 일본 측에 최대한의 자제를 촉구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아시아 우방국과의 결속을 강조하면서도 중국과의 마찰을 최대한 피하고, '제2의 크림반도 사태'가 일어나는 것도 단속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중적 속내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의 이러한 모호한 행보가 아시아 우방국을 하나로 모으기는커녕 오히려 중국을 자극하는 꼴만 됐다는 평도 나오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무대에서 외교적 위기에 몰린 오바마 대통령이 제2의 크림 사태를 막기 위해 아시아로 눈을 돌린 것은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행동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자충수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꽃들의 36.5℃

뮤지컬 무대 '앙상블'의 척박한 현실



'스타를 둘러싼 과열경쟁이 출연료 문제 낳아'. MBC '허준', '상도', '대장금', '이산' 등 국내에선 높은 시청률과 국외에선 거센 한류를 일으킨 드라마들을 연출해온 이병훈 PD의 2008년 인터뷰 기사 제목이다. 주연급 연기자의 출연료 급등으로 인해 드라마 제작의 질이 떨어지고, 작품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게 주된 요지다. 6년이 흐른 지금, 산업 외연의 확대를 거듭해온 뮤지컬계도 똑같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JYJ 김준수를 필두로, 아이돌 스타의 뮤지컬 진출은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뮤지컬 시장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아이돌 스타가 기존에 갖고 있던 지지기반, 즉 두터운 국내 팬층은 물론, 해외 팬까지 국내 뮤지컬 시장의 소비자로 흡수시킨 것이다. 이 같은 요인은 K뮤지컬이 글로벌 킬러 콘텐츠로 부상하는 데 분명 큰 일조를 했다. 그러나 전례 없던 티켓파워를 자랑한 아이돌 스타의 몸값은 구조의 불균형을 낳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조연급들도 덩달아 출연료가 올랐는데 단역배우 출연료만은 오르지 않았다. 출연자 감소에 따라 이들의 출연 기회도 대폭 줄어들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이병훈 PD의 지적을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공연계 상황이다.

앙상블(Ensemble). 전체적인 어울림이나 통일, 조화를 의미하는 이 단어는 공연 용어로는 주조연 이외에 무대에서 따로 안무와 노래로 합을 맞추며 작품을 뒷받침하는 연기자들을 지칭한다. 앙상블에 대한 수준 이하의 처우는 성장만을 추구해온 국내 뮤지컬계의 기형적 구조를 그대로 노출시켜준다. 주연급 연기자의 치솟는 출연료와는 무관하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정체, 아니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여전히 일부 제작사는 무대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꿈을 악용한다. 더불어 공연 제작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한 대기업은 앙상블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내세웠으나, 당사가 제작하는 작품에만 독점적으로 기용해 눈총을 사고 있다. 또, 앙상블로만 출연시켜 주조연급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는 문제마저도 노출시키고 있다.

뮤지컬 1세대로 꼽히며 최정상에 오른 배우 최정원은 최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처음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갑자기 뛰어든 일부 스타들은 나중에 자신의 출연료가 낮아진다면 앞으로 공연할 수 있을까요. 자존심 때문에 그렇지 못할 거예요. 저는 처음 무대에 설 때부터 한 회당 5만원, 7만원을 받으며 한 단계씩 밟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에 감사해요. 지금보다 내려간다 해도 관계가 없죠. 과거에 우리 뮤지컬계는 '(주연급 배우로서) 내가 이만큼 가져가면 스태프, 앙상블이 적은 액수를 가져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고민을 함께 했어요. 지금처럼 '나만 많이 가져갈래'와 같은 사고와는 거리가 멀었죠."

그야말로 조화(Ensemble)를 이루어야 할 뮤지컬 무대 위는 이제 충분히 아름다워 보인다. 그러나 무대 밖 사다리는 더욱 좁아지고 아득히 높아졌다. 무대 밖의 주연과 앙상블, 스태프의 조화는 설자리를 잃었다. 앙상블과 스태프의 처지는 더욱 척박해지고 있다

문화부 기자 flowerslee@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 편집인 김상우 편집국장 이종재 광고국장 임영재

논설실 (02)799-2657 온라인뉴스부 (02)799-2640
정치경제부 (02)799-2655 시장부 (02)799-2658 금융부 (02)799-2665
산업부 (02)799-2664 미래산업부 (02)799-2663 사회생활부 (02)799-2661
문화부 (02)799-2669 국제경제부 (02)799-2650 사진팀 (02)799-2634
광고접수 ·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99-2603 / 260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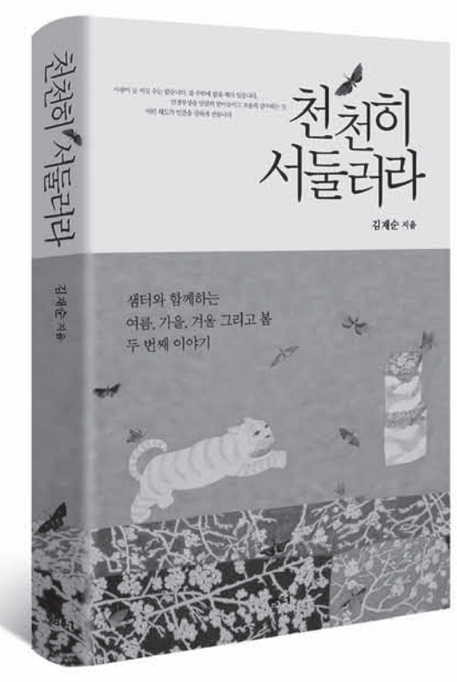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43년간 변함없이 월간 샘터 뒤표지를 지켜 온 지혜의 샘

"서두르되
무엇을 위해 서두르는지
알고 하라"

지금 당신이 걷는 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삶의 방향이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아 줄 한 권의 나침반

〈샘터〉를 받으면 제일 먼저 읽는 뒤표지글이 좋아 내 마음의 앞자리로 모셔 오곤 했습니다. _이해인 수녀(시인)
이 세상에 앞표지보다 뒤표지가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책이 딱 한 권 있습니다. 바로 〈샘터〉가 그렇습니다. _장영희 교수(수필가)
김재순 씨야말로 여든 살이 된다 하더라도 청년에 머물러 있는 '한 눈 뜨고 꿈꾸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_소설가 최인호



김재순 지음 | 224쪽 | 올컬러 양장 | 값 13,000원

월간 〈샘터〉의 창간인인 김재순 전 국회의장이 〈샘터〉 뒤표지에 써온 글들을 묶은 책.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행복한 삶이란 어떤 삶인지, 그리고 어떠한 식견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들려준다.

내가 만드는 행복, 함께 나누는 기쁨

자신을 속이지 말라(無自欺).
_이황의 유묵

나쁜 일인 줄 알면서 하는 것도
자신을 속이는 것이지만,
선한 일인 줄 알면서 하지 않는 것도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_'옛 공부벌레들의 좌우명'(박수밀) 중에서



월간 샘터 2014년 2월호
특집 매를 맞았다

참살이 마음공부 법륜 | 양인자의 다락방 책꽃이 | 뉴욕에서 띄운 진주알 편지 현경
기생충에게 배우다 서민 | 축구 수집가의 보물창고 이재형 | 나희덕의 산책
개그맨 김경진의 먼지 | 할아버지의 부엌수업 | 사시사철 기차여행

함박눈 함박웃음 샘터 정기구독 이벤트(2014년 2월 7일까지)

1 샘터 2개월 추가 증정
2 레노마 자수 타월 (1개 색상은 랜덤 발송)
3 롱 티스푼 + 포크 세트
4 글라스락 정사각 유리밀폐용기 2개 (500㎖ + 210㎖)
5 수필집 〈지금은 서둘러도 괜찮아〉 나를 움직인 한마디 세 번째 이야기

구독선물 (택1, 신규·연장 동일)

• 1권 값 2,500원 / 1년 정기구독료 30,000원 → 25,000원 (5,000원 할인!)
• 정기구독 문의 및 신청 T. 02-763-8961 family@isamtoh.com

02-763-8961~6 www.isamtoh.com 샘터

"이주여성도 6·4선거 투표할 수 있어요"

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 창립… 각국 150명 뜻 모아

왕지연 회장 "한국 사회·정치 알고 권리·의무 찾아야"



"33만 이주여성들도 한국의 사회와 정치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 결성을 계기로 이주여성도 유권자로 당당히 나설 것입니다."

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이하 연맹)의 왕지연(39·작은 사진) 회장은 "현재 이주여성 중에는 한국 국적이 있는 분들도 있고 영주권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왕 회장은 28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이투데이빌딩에서 열린 '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 창립식에 참석, 행사에 앞서 기자와 만나 이주여성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이 주최하고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이주여성연합회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몽골, 베트남, 중국, 일본, 키르기스스탄 등 각국 출신 이주여성 150여명이 단체 창립에 뜻을 모았다.

연맹은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2008~2009년에 걸쳐 진행한 '2010 지방선거, 제1호 국제결혼 이주여성 의원 만들기 프로젝트', 지난해 6~10월 진행한 '2014 지방선거 결혼이주여성 의원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해 선거와 관련한 교육을 받고 정치의식을 키운 이주여성들이 주축이 됐다.

왕지연 회장 역시 2008년 한국여성정치연구소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정치와 선거에 눈을 뜨게 됐다고 했다.

왕 회장은 "유권자로 추정되는 33만의 이주여성들도 한국의 사회와 정치를 알고, 투표라는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것이 옳다"며 "이분들의 투표 참여 유도가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는 세월호 사고도 있었고 시일이 촉박했다"며 "이주여성 몇몇이 출마한다고는 알고 있지만 아직 접촉을 하지 못했으며 연맹 이주여성들도 스스로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해 후보자를 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 창립식이 28일 오후 동작구 대방동 이투데이 본사에서 열렸다.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앞줄 왼쪽 다섯 번째), 왕지연 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 회장(앞줄 왼쪽 네 번째) 등 참석자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이날 창립식에는 연맹 창립 경과보고에 이어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길정우 새누리 의원, 이자스민 새누리 의원, 이라 새누리 의원, 김성옥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안명옥 전 의원의 축사가 있었다.

또 선거의식 고취를 위한 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 이주여성들의 강연이 있었다. 최서영 연맹 부회장이 '민주주의란?'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했다. 이어 이희숙 부회장의 '선거가 뭘까?', 금진주 감사의 '선거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이송이 감사의 '대한민국은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는 나라', 조훈 선거연수원 교수의 '선거는 어떻게 할까요' 순서로 강연이 진행됐다.

금진주 감사는 강연에서 "선거를 통한 정치 참여는 다문화가정의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다"라며 "정치참여는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한국 민주주의와 다문화 가정의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용남 기자 bangnam@

'칸의 여왕' 전도연 칸 심사위원 됐다

2007년 여우주연상 인연

한국 배우 사상 처음 위촉



영화배우 전도연(41·사진)이 제67회 칸 국제영화제(Cannes Film Festival, 2014)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 칸 영화제는 28일 경쟁부문 심사위원단을 공개하며 전도연의 합류 소식을 전했다. 국내 배우가 칸 영화제 경쟁부문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창동 감독이 2009년 칸 영화제 경쟁부문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다.

칸 영화제 경쟁부문 심사위원은 칸과 인연이 있는 세계 영화인으로 구성된다. 전도연은 지난 2007년 영화 '밀양'으로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으며 2010년에는 임상수 감독의 '하녀'로 다시 경쟁부문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도연 외에도 심사위원장 제인 캠피온 감독은 '피아노'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번에 공개된 9명의 심사위원단에는 배우 윌리엄 데포, 니콜라스 윈딩 레픈, 레일라 하타미, 캐롤 부케, 가엘 가르시아 베르날, 중국 지아 장커 감독, 소피아 코폴라 감독 등 세계적인 배우와 감독이 이름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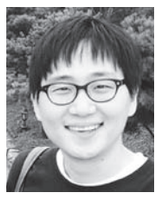
이와 관련, 칸 영화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TV에서 활동한 배우였던 전도연은 2007년 '밀양'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임상수 감독의 '하녀'로 칸을 다시 방문했고, 현재 박흥식 감독의 '협녀'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자세한 근황을 덧붙였다.

전도연은 영화제가 개막하는 5월 14일부터 폐막식이 열리는 5월 25일까지 현지에 머물며 경쟁부문에 오른 19편의 작품을 심사한다. 또 영화제 기간 열리는 다양한 행사에도 참석한다. 최두선 기자 sun@

"공익변호사로 약자편에 서서 사회 변화에 일조하고 싶어요"

'공감' 새내기 변호사 김수영씨

로스쿨 출신으론 첫 합격자



국내 최초의 비영리 전업 공익 변호사 단체인 '공감'이 4년 만에 새로운 식구를 맞았다.

새 식구는 올해 로스쿨을 졸업한 김수영(35·사진) 변호사.

남들보다 비교적 늦게 사회에 나온 김씨가 선택한 길이 전업 공익 변호사다. 김씨는 지난 2003년 출발한 공감에 8번째 변호사이자 첫 로스쿨 출신으로 합류해 이달 중순부터 출근하고 있다. 장애인과 여성, 외국인 등 취약 노동자 계층과 노숙인들의 주거권 문제 해결에 관심이 높은 김씨는 공감에서 본격적으로 꿈을 펼치게 됐다.

IMF 직후인 1998년 연세대 사회학과에 입학한 김씨는 학생운동에 뛰어들어 20대를 보냈다. 그러다 대학원 1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사회적 기업을 설립, 1년여 운영을 하며 진로를 생각하게 됐다. 그는 "이때 처음 현실 사회의 변화에 일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사회를 더욱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열쇠를 공익법이 쥐고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대학원 수료를 앞둔 2011년 건국대 로스쿨에 진학, 인권법학회 활동을 하면서 전업 공익 변호사를 준비했다.

장애인과 여성, 외국인 등 취약 노동자 계층과 노숙인들의 주거권 문제 해결에 관심이 높은 김씨는 공감에서 본격적으로 꿈을 펼치게 됐다.

김씨는 "변호사 한 명이 세상을 완전하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대중을 도와 참혹한 사회를 바꾸는 데 법률 전문가가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제적으론 풍족하지 않아도 같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박용남 기자 bangnam@

이철영 사장 "밥 한끼 먹읍시다"

〈현대해상〉

한달에 한 번 직원들과 점심

편안한 분위기 소통의 자리



이철영(사진) 현대해상 사장이 격의 없는 소통경영으로 화제다. 직원들이 스스로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 사장이 소통의 자리를 자주 갖는다는 것이 현대해상의 설명이다.

이에 이 사장이 취임한 지난해 상반기 월 평균 359건이었던 칭찬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579건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 사장의 소통 노력으로 직원간 서로 위해주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이다. 이 사장은 임원보다 일반 직원들과 식사를 자주 한다.

특히 이 사장은 본사·수도권내 칭찬 제안자 직원들과 한달에 한번 꼭 점심식사를 한다. 또 우수 제안자는 저녁식사를 같이한다.

이 사장이 여는 소통 자리는 "사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자"는 원칙 아래 열린다. 업무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고, 편하게 인생 선배로서 가정생활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식사가 끝나면 직원들에게 쿠키 등을 선물한다. 이에 현대해상 직원들은 "처음에는 사장님과의 식사 자리가 부담스럽게 느껴졌는데, 식사를 마치고 나면 참 편안하다"는 반응이다.

이 사장은 아직도 직원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다며 아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리를 가지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지역적인 한계로 거의 수도권·서울지역 사원들을 대상으로 소통의 자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강구귀 기자 kkk@

이수만·SM, 세월호 참사 10억 기부



이수만〈사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회장과 SM이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 및 희생자, 유가족 등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총재 유중근)에 28일 10억원을 기부했다.

SM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써달라며 이수만 회장 개인이 5억원, SM 엔터테인먼트가 5억원, 총 10억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전달된 기부금 10억원은 전액 세월호 침몰 사고의 희생자 및 실종자, 유가족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수만 회장은 "저에게는 아들이자 딸 같은 우리 연예인들과 꿈을 키우고 희망을 함께 나눠가며 살아온 한 명의 부모로서 금번 사건으로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다"면서 "유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다"라고 기부의 뜻을 밝혔다. 유혜은 기자 euna@

'팔만대장경 수호자' 성안스님 입적

내달 1일 해인사 연화대서 다비식



성안(사진) 스님이 최근 입적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자 국보(32호)인 팔만대장경을 최일선에서 지키던 해인사 팔만대장경 보존국장 성안 스님은 지난 27일 오후 88고속도로에서 빗길 교통사고로 입적했다. 세수 47세, 법랍 20세였다.

1967년 충남 보령에서 태어난 성안 스님은 1993년 해인사에서 원명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행자 시절 장경판전(팔만대장경 보관 장소)을 지키던 관후 스님 방을 청소하면서 대장경과 첫 인연을 맺었다.

이후 79개국을 돌며 세계문화유산을 두루 살핀 일, 승가대학 수학 당시 이태녕 서울대 명예교수 등 대장경 연구학자들을 거들며 지식을 쌓은 일은 성안스님이 '팔만대장경 지킴이'의 길을 걷게 한 계기가 됐다.

성안 스님은 2010년 해인사 팔만대장경 보존국장을 맡으면서 대장경 보존·관리에 본격적으로 힘을 쏟았다.

성안스님 영결식과 다비식은 오는 5월 1일 해인사 연화대에서 엄수된다. 박태진 기자 tjpippo@

"장애인에게 스포츠는 기회입니다"

나경원 IPC 집행위원

UN서 장애인체육 관심 호소



"장애인에게 스포츠는 비(非) 장애인이 느끼는 의미 이상입니다."

나경원(사진)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집행위원은 28일(현지시간) 유엔 스포츠 개발·평화 기념행사에 참석해 '장애인 스포츠 발전과 통합사회 구현'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나 위원은 "장애인 스포츠는 장애인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서게 하는 고귀한 가치를 갖고 있지만 아직 많은 장애인들이 스포츠에서 소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에게 스포츠가 갖는 의미는 비(非) 장애인이 느끼는 의미 이상"이라며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장애인 스포츠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면 유엔이 희망하는 통합사회와 더 가까워진다"면서 "세계 각국이 장애인 스포츠 발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유엔 스포츠 개발·평화 기념행사는 올해 처음 제정된 유엔 '국제스포츠개발평화의 날'(매년 4월 6일)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행사다.

행사에는 반기문 사무총장,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존 애시 유엔 총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서경덕·이상봉, 전세계에 '이순신 알리기'

'대한민국 영웅프로젝트' 2탄

대형 걸개그림 걸고 티셔츠 제작

4월 28일 충무공 탄신일을 맞아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사진 왼쪽) 성신여대 교수와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씨가 전 세계를 상대로 '이순신' 알리기에 나섰다.

이를 위해 첫번째 프로젝트는 지난 27일 '대한민국 영웅 프로젝트' 제2탄 '성웅 이순신' 대형 걸개 그림을 서울 광화문 광장 옆 KT건물에 걸어 전시를 시작했다.

이는 일반적인 그림이 아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국내외를 다니며 가로 25m, 세로 50m 대형 천위에 3만여명이 난중일기 내용을 붓으로 직접 써서 한글 10만자를 활용해 이순신 장군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약 20개국 1000여명의 외국인들이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해 지난해 난중일기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과 한글쓰기를 동시에 홍보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두번째 프로젝트는 전 세계 200여개국 600여개 주요 언론 매체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 계정으로 이 사실을 널리 알렸고 국내 외신 특파원 300여명에게 같은 메일을 보냈다.



아울러 세번째 프로젝트는 이번 이순신 디자인을 활용한 티셔츠를 제작해 국내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티셔츠를 판매하는 것이다. 이를 주도한 이상봉 디자이너는 "쿠바의 체게바라 티셔츠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다 판매가 되어 쿠바의 상징으로 자리 잡듯이 이순신의 티셔츠를 많은 외국인들이 입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수익금은 이순신 홍보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구성헌 기자 carlove@

인사

◆법제처 ◇서기관 △사회문화법령해석과 안병준 △법령입안지원과 이진희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박병선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수영 △GTX과장 이세정 △창조행정담당관 김대경 △언제나민원실장 정병윤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세원관리과장 직무대리 노찬호

◆예금보험공사 ◇부장 △인사지원 김준기 △기금관리 이형구 △금융정리1 장진영 △청산회수1 백봉문

◆신영증권 ◇상무 승진 △IB사업본부 은활

부음

▲윤기원(tbs 생활정보센터 팀장)씨 장인상 = 28일 오전, 경북 안동시 안동병원, 발인 30일, 054-840-0030

▲전웅선(구미시청 테니스 선수)씨 부친상 = 28일,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발인 30일, 02-3430-0398

▲이원표(롯데칠성음료 이사)씨 모친상, 우재경(㈜스카이벤처 코리아 대표)씨 장모상 = 27일 오후, 분당 서울대병원, 발인 30일 오전, 031-787-1510

▲정청래(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씨 장모상 = 28일 오전, 전남 강진산림조합 추모관, 발인 30일, 061-433-2300

▲권영길(전 민주노동당 대표)씨 모친상, 혜원(동덕여대 경영학부 교수)·호근(전 한국화학 무역부)·성근(뉴시스 기자)씨 조모상,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씨 처조모상 = 28일 오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30일 오전, 02-3410-6915



제67회 칸 국제영화제(Cannes Film Festival, 2014)가 오는 5월 14일 개막, 25일까지 펼쳐진다. 이번 칸 영화제에서는 장뤼크 고다르,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마이크 리, 다르덴 형제, 켄 로치 등 거장 감독들이 황금종려상을 놓고 격돌한다. 경쟁 부문 주요 후보작은 프랑스의 거장 장뤼크 고다르 감독의 '언어여 안녕' 25세의 캐나다의 천재 감독 자비에 돌란의 '마미' 켄 로치 감독의 마지막 장편 연출작 '지미스 홀' 가와세 나오미 감독의 '두 번째 창' 토미 리 존스 감독의 '더 홈스맨' 다르덴 형제의 신작 '투 데이즈 원 나잇'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감독의 '맵스 투 더 스타즈' 마이크 리 감독의 '미스터 터너' 등이다.

주목할 만한 시선 **도희야** | 미드나잇 스크리닝 **표적** | 감독 주간 섹션 **끝까지 간다**

칸이 선택한 한국영화

경쟁부문은 2년째 진출 실패

한국영화는 기대를 모았던 임권택 감독의 102번째 영화 '화장'이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경쟁부문에 진출하지 못했다. 반면 비경쟁 부문에서는 기대작들이 상영을 결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배두나, 김새론 주연의 '도희야'(정주리 감독)가 주목할 만한 시선(Uncertain Regard) 부문에 초청됐고, 오는 30일 국내 개봉을 앞둔 류승룡, 이진욱, 유준상 주연의 '표적'(창감독)이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서 상영된다. 미드나잇 스크리닝은 액션, 스릴러, 공포, SF 등의 장르 영화 중 독특한 작품성과 흡입력을 가진 작품 중 매회 2~3편을 선정해 초청한다. 여기에 이선균, 조진웅 주연의 범죄 액션 '끝까지 간다'가 감독 주간 섹션에 초청됐다. 칸 영화제 감독 주간 섹션은 마틴 스콜세지, 조지 루카스,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등 세계 명감독들이 첫 장편을 선보인 섹션이자 국내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 기립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호평받아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비평가와 관객 모두에게 참신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영화를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최근 완성도 높은 상업 영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올 칸 영화제의 본선 경쟁부문 진출자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감독은 단연 장뤼크 고다르 감독이다. 1960년대 누벨바그의 선봉자로 살아 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그는 '언어여 안녕'으로 13년 만에 칸에 입성했다. 티에리 프레모 칸 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장뤼크 고다르의 새 영화는 요약하기 불가능하다. 그것은 하나의 영화적 시이며 울부짖음이며 한숨이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sun@


도희야


표적


끝까지 간다

비경쟁부문 초청작 경제적 효과는

'전세계적 관심' 홍보 이점… 흥행 영향 커

기대를 모았던 임권택 감독의 102번째 영화 '화장'은 제67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도희야' '표적' '끝까지 간다' 등 우리 영화가 칸에서 상영된다. 비경쟁 부문 상영이지만 그 경제적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300억원에 달하는 칸 영화제 예산이 시 전체와 영화계에 미치는 영향을 10배 이상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표 휴양도시 칸의 매력에 영화제의 상업성이 강해지면서 상영작이 보여줄 잠재 효과는 상당하다. 영화제 수상 여부가 흥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전 세계적 관심'이라는 홍보 어드밴티지를 안고 간다는 이점도 있다.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베를린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직후 관객 동원과 한국 국가 브랜드의 상승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칸 영화제 같은 유명 영화제 진출과 수상은 작품의 흥행 관객의 10%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진단한다.

최두선 기자 sun@

KBS 단막극, 5월엔 어떤 작품 나오나

'꿈꾸는 남자' '칠흑' 등 극본 당선작 포함


5월 4일 방송 예정인 유보라 작가의 '18세'.

KBS 2TV '드라마 스페셜 단막 2014' 5월 라인업이 공개됐다. 특히 5월에는 지난해 극본 공모 당선작들이 라인업에 포함돼 신인작가들의 활약에 이목이 집중된다.

가장 먼저 방송되는 작품은 지난해 드라마 '비밀'로 큰 반향을 일으킨 유보라 작가의 '18세'(연출 김진우, 5월 4일 방송)다. 서툴게 어른이 돼 가는 석현(김흥수)과 그런 형을 어리석고 비겁하다 여기는 석주(서영주)의 성장기를 통해 청춘들의 불안함을 그려낸다. 두 번째 작품은 5월 11일 방송되는 '부정주차(극본 이민영, 연출 박진석)'다. 이 작품의 이민영 작가는 기획작가로 활동한 신인으로 드라마 '전우치'에서 인연을 맺은 박진석 PD와 함께 단막극으로 호흡을 맞추게 됐다. '부정주차'는 사소한 일상의 주차 시비로 인해 치졸한 인간성의 밑바닥을 확인하는 한 남자의 웃픈(웃기지만 슬픈) 이야기로 온주완과 김상호, 조재윤 등이 출연한다.

이어 방송되는 '꿈꾸는 남자(극본 유정희, 연출 이응복, 8월 18일 방송)'와 '칠흑(극본 김미정, 연출 박기호, 5월 25일 방송)'은 지난해 극본공모 당선작으로 신인작가 작품이다. '꿈꾸는 남자'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꿈으로 보는 제과회사 영업사원 준길의 이야기를 담는다. 양진우와 윤세아가 출연한다. '칠흑'은 학생 우민이 버스에 치여 죽은 후 버스 운전기사 현태와 우민의 친구 정욱 그리고 우민의 엄마 등 세 사람의 삶이 칠흑으로 변해 버린 과정을 그린다. 데니안과 곽정욱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KBS 김용수 PD는 "매년 단막극 극본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내보내는데 올해는 당선작 6편 중 4편만 하게 됐다"며 열악한 제작비 상황을 언급했다. KBS는 올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3억 7000만원을 지원받아 단막극을 꾸려 나간다. 김 PD는 "출연진과 스태프도 외주제작의 약 70% 출연료와 임금을 받고 흔쾌히 작품에 응해 줬다"고 덧붙였다.

김민정 기자 mj_kim@

"손석희의 '힘' 믿음 줘"

JTBC 뉴스 9 시청률 4% 돌파



JTBC '뉴스 9'의 진정성 있는 보도에 시청자가 응답하고 있다.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손석희 앵커가 이끄는 JTBC '뉴스 9'는 그야말로 시청률 고공비행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가 전국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세월호 관련 첫 보도가 전파를 탄 16일 '뉴스 9'는 2.2%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어 상승세를 유지하며 '뉴스 9'의 시청률은 20일 방송분에서 시청률 3.8%까지 치솟았다. 특히 유료 방송 가구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21·23·24일 방송분은 시청률 4%대를 돌파, 1%대를 맴도는 다른 종합편성채널 보도 프로그램에 비해 독보적 입지를 구축해 나갔다. 이처럼 급상승을 보인 '뉴스 9'의 시청률은 세월호와 관련해 특보 체제를 선보이는 지상파와 비지상파 뉴스 프로그램을 통틀어 사건 이면을 파헤치는 보도 방향성과 신뢰감이 돋보이는 손석희 앵커의 진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배국남 대중문화 평론가는 손 앵커의 태도에 대해 "진실과 사실에 대해 천착하려는 그의 태도에 시청자가 신뢰를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기획국장은 "'뉴스 9'가 선보인 뉴스 포맷 변화에 대한 시도는 세월호 사고 이전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아 왔다. 이는 기존의 90초짜리 9시 뉴스의 한계를 강조해 온 손석희 앵커의 인식을 밑바탕으로 한다. 이 외에도 손 앵커의 인터뷰를 통해 차별화를 이뤄냈다. 전 국민적 관심을 모은 세월호 사고 관련 보도를 통해 기존의 역량이 재평가받은 것"이라며 "오히려 이번 JTBC '뉴스 9'의 선전은 여타 데일리 뉴스 보도가 차별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역설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TOTAL SPORTS CLUB sanyaro

내리막 미끌림에 강하다

산야로 브레이크 등산화!

교체형 스파이크가 형성된 브레이크 등산화 출시!

산야로 브레이크 등산화는 아웃솔 전면부에 4개의 교체형 스파이크를 장착하여 스파이크의 기능에 따라 어떠한 조건에서도 미끌림을 제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NEW 2014 | WATER PROOF | LEATHER | CHAMP





SM2440
[스파이크 및 렌치 증정]



SM2434



SU2435



SM2436



SU2437



SW2443



SM2442

가정의 달 고객초청 골프의류 및 등산화 세일!

50%~30% Sale

4.14 ▶ 5.11

- 잔디로 2014년 S/S 골프의류 및 기능성 의류
- 산야로 브레이크 등산화 및 트레킹화, 워킹화
- 골프화, 골프장갑, 골프볼, 양말 등(일부품목제외)
- 장 소: 잔디로 목동점, 전주점, 잔디로닷컴





www.jandiro.com | 문 의: 02)542-2000 | 목동점: 02)2608-7400 | 전주점: 063)276-5000 JANDIRO

Inside ▶▶▶



장기투자 '선진국 펀드'로… 23면



마켓 히어로 / 일경산업개발 24면



베이비부머 포트폴리오 25면

Cover Story 매물로 나온 메가스터디

막 내리는 '손주은 신화'



손주은 메가스터디 대표

학원가 인터넷 강의 열풍 주역, 설립 8년 만에 시총 1억 교육기업 성장
2010년 MB정부 '사교육 억제'… 수능·EBS 연계에 영업이익 곤두박질
한때 코스닥 절대강자서 'M&A 매물'로… 14년 만에 '황제株의 비애'

'손사탐(손주은의 사회탐구과목)'이라는 별칭으로 학원가에 인터넷 강의 열풍을 몰고 왔던 메가스터디가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지난 22일 메가스터디는 최대주주 손주은 대표 및 코리아에듀케이션홀딩스 보유 지분 32.53%(206만주)를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1대1 과외 형식을 인터넷 강의에 접목하면서 돌풍을 일으켰던 메가스터디 열풍도 14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지난 2000년 온라인 교육을 시작한 메가스터디는 시가총액 1조원에 육박하는 교육기업으로 성장했다. 스타 강사의 과외 실력을 바탕으로 한 메가스터디의 시장점유율은 온라인 교육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며 누적회원(지난 4월 기준·중고등 합산)은 400만명을 넘었다.

온라인 입시교육의 선두주자로 떠오르며 급성장하면서 2004년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 상장 당시 2만원대에 불과했던 주가는 2008년 4월 38만원대까지 상승하면서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위를 넘보기도 했다.

몸집이 커짐과 동시에 실적도 눈부시게 성장했다. 온라인 교육시장에 대한 요구가 예상 외로 뜨거웠고 이를 반영하듯 메가스터디는 설립 후 1년 만인 2001년에 4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2002년에는 매출액 200억원을 넘어섰고 2003년 400억원, 2004년에는 5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메가스터디의 성공 신화는 이내 흔들리기 시작했다. 2010년 당시 정부가 사교육 억제를 위해 수학능력시험과 EBS와의 연계를 강화한 것이 직격탄이 됐다. 온라인 사업 특성상 영업이익률이 좋았던 사업 부문이 갑자기 쪼그라들면서 수익성 악화가 심화됐다.

지난 2012년 4분기에는 '어닝 쇼크'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을 망연자실케 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4% 줄어든 38억원, 연결기준으로는 적자로 돌아섰다.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역시 각각 20%, 30% 줄었다

지난해에도 실적은 악화일로를 이어갔다. 사업 다각화를 목적으로 늘린 종속회사의 절반 이상이 적자를 기록한 것도 연결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형설에듀(-1억7000억원), 에스이글로벌(-15억원), 메가스터디 포에버 조인트스톡 컴퍼니(-2억5000만원), 메가인베스트먼트(-2억7600만원) 등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메가스터디의 계열사다. 한때 코스닥 시장 1위를 넘봤던 메가스터디는 교육정책 변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시가총액이 50위권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메가스터디 M&A 성사의 관건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매각 가격으로 보고 있다. 다만 매각가격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매각 가격을 높게 잡고 있는 측에서는 4500억원가량의 시가총액과 1000억원에 달하는 현금,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고려했을 때 매각가격은 3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2일 메가스터디의 최대주주 지분매각 추진설에 대해 코리아에듀케이션홀딩스는 모건스탠리를 주간사로 매각을 포함한 전략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가스터디는 최대주주 지분 매각을 포함한 전략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유진투자증권은 인수자가 누가 되든 현 상황에서는 실적 개선이 쉽지 않다고 분석한다.

김미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사교육 억제정책 분위기 속에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3분기까지 메가스터디의 실적 개선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 이유로는 주력사업 부문인 고등 온라인은 주요 명문대 대입 전형에서 수시 비중이 70% 이상 되는 등 수능 영향력 저하로 인한 매출 부진이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 특목고 입시 철폐 및 내신강화로 중등온라인 사업부문 매출액이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메가스터디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원은 "현재 메가스터디의 주력 비즈니스 구조(수능 대비 온라인+중등 내신)로는 누가 들어와도 EBS 연계율 강화 등의 정책으로 인해 어닝 개선이 쉽지 않다"며 "매각 이후 인수할 새로운 주체가 실행할 비즈니스 모델 변화에 관한 지속적인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토러스투자증권도 메가스터디의 실적 및 점유율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김지효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은 "메가스터디의 현금창출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고등부 사업을 근간으로 하여 스타강사 적극적 영입을 통한 점유율 확대 및 ROE 개선이 충분하다는 관점을 제시해 왔다"며 "하지만 손주은 대표의 지분매각은 이러한 관점을 희석시킬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따라서 당분간 '고등부 온라인 점유율 확대에 대한 관점은 유보'하며, 인수업체가 확정된 후 그 성격을 판단하여 관점을 재정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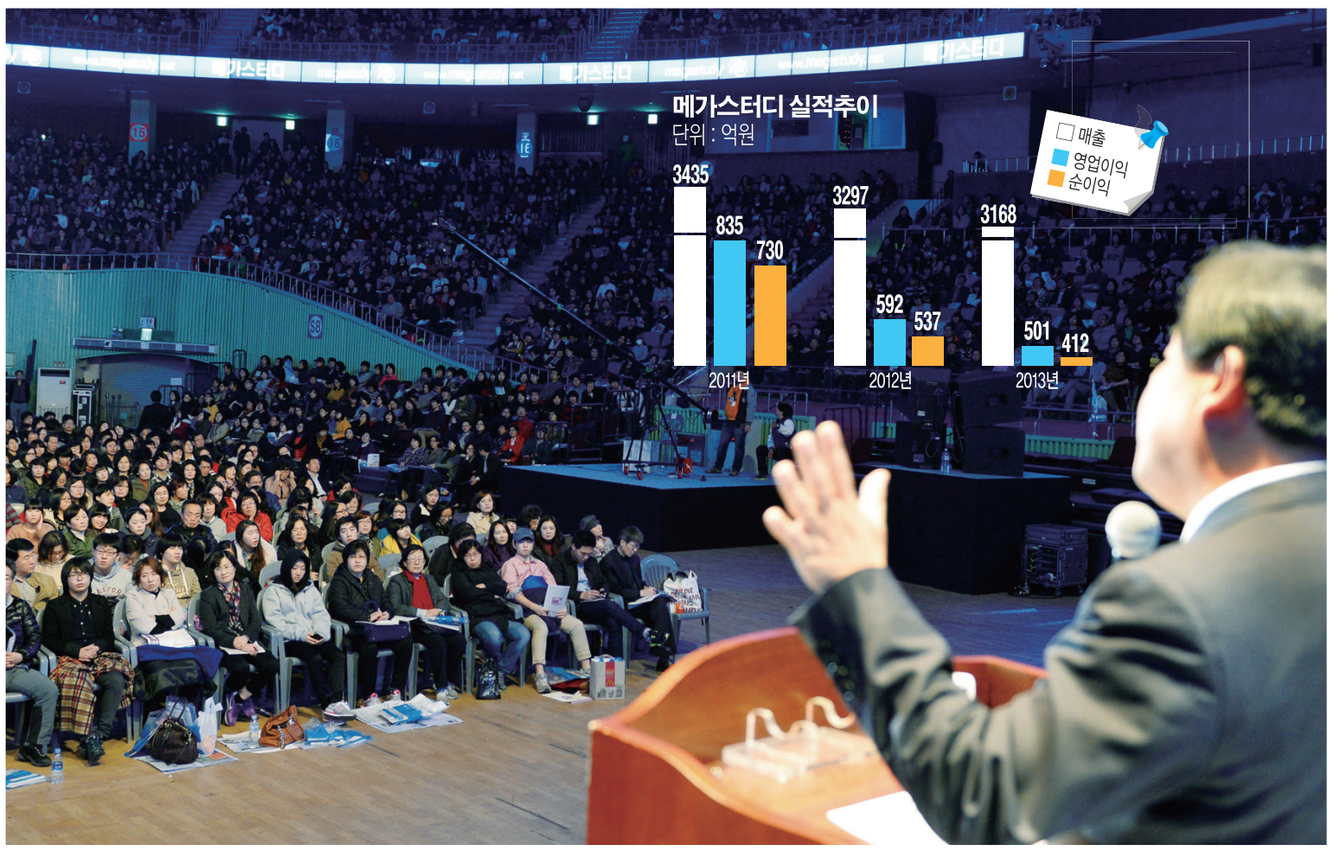
김지효 연구원은 "메가스터디를 동종업계의 업체가 인수한다면, 신규사업에 대한 니즈가 반영된 인수일 개연성이 높아 적극적 사업 확대를 기대해볼 수 있지만 사모펀드가 인수할 경우 배당 성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메가스터디는 올해 영업이익을 509억원으로 전망한다고 19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38억2000만원을 예상했다.

김현정·이미정 기자 khj@

커버스토리 20·21면

로스쿨·편입 사업영역 확장… 믿었던 '고등부'에 발등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메가스터디, 2014 대학 정시 지원전략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손주은(오른쪽) 대표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EBS·강남 인터넷강의에 밀려
고등 온라인강좌 사업 매출 급락
김영학원 인수 편입시장 진출
전문대학원 노린 메가엠디 설립
성장한계… 실적부진 만회 실패

마지막 승부수 결국 悪手

국내 최대 온라인 교육업체 메가스터디가 기업 M&A(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메가스터디는 지난 22일 "최대주주(손주은 대표)와 코리아에듀케이션홀딩스가 보유 주식 매각을 포함한 전략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각 주간사는 모건스탠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코리아에듀케이션홀딩스는 사모펀드 H&Q아시아퍼시픽코리아가 2012년 메가스터디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로, 최대주주인 손 대표와 동생 등 특수관계인 지분(손 대표 19.83% 등 합계 23.35%)에 코리아에듀케이션홀딩스 지분(9.21%)을 합친 32.56%(206만주)가 매각 대상이다.

손 대표가 메가스터디를 팔기로 결정한 것은 최근 몇 년 사이 성장에 한계를 느껴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메가스터디는 2010년부터 대입정책이 바뀌면서 점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교육 강화 등을 내걸고 '쉬운 수능'을 도입한 것이 메가스터디에는 직격탄이 됐다.

정부가 사교육 억제 차원에서 EBS 수능 강의 내용을 수능시험에 70% 이상 반영하는 '쉬운 수능'을 도입한 이후 한 강좌당 5만~7만원 하는 메가스터디 회원수가 급속히 줄었다. 사교육 1번지 강남구청까지 인기 강사들을 불러 모아 무료 인터넷 강의로 학생들을 끌어모으면서 메가스터디의 입지도 크게 흔들렸다.

이에 따라 2011년 835억원에 달했던 영업이익은 2012년 592억원, 지난해는 502억원으로 반토막났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435억원에서 3279원, 3218억원으로 줄었다.

메가스터디는 정책 변화에 따른 실적 부진을 이겨내기 위해 로스쿨과 편입시장 진출 등 사업 다각화에 나섰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메가스터디는 메가엠디, 아이비김영, 메가북스, 형설에듀, 메가푸드앤서비스, 일등로스쿨, 메가스터디 포에버 조인트 스탁 컴퍼니(MEGASTUDY FOREVER JOINT STOCK COMPANY), 메가인베스트먼트, 플러스 에듀(PLUS EDU CO.,LTD.), 에스이글로벌, 메가농식품 투자조합 1호 등 11개 비상장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메가엠디, 메가편입, 아이비김영, 일등로스쿨, 에스이글로벌 등 5개 계열사가 일반성인사업 부문을 맡고 있다.

메가엠디는 의·치약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약학대학 입시시장 진출을 위해 메가스터디가 지난 2007년 11월 설립한 회사다. 메가엠디는 다시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2009년 12월 일등로스쿨을 설립했다.

아이비김영은 대학 편입시장에서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 지난 2011년 6월 메가스터디가 인수했다. 앞서 2010년 12월 편입시장 진출을 위해 편입합격아카데미를 인수해 메가편입으로 상호를 변경했고, 메가편입은 지난해 6월 메가엠디에 흡수합병됐다. 에스이글로벌은 경찰공무원 시장 진입을 위해 메가스터디가 지난 2012년 12월 설립한 회사다.

지난해 말 기준 메가엠디와 아이비김영은 각각 91억6900만원, 3억2000만원의 순이익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고등부 강좌 관련 매출이 급격히 줄어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는 역부족이었다. 메가스터디는 고등사업 부문에서 대부분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메가스터디는 매출의 53.52%, 영업이익의 68.24%를 고등사업 부문에서 올렸다. 일반성인사업 부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비중은 각각 27.40%, 19.30%이다. 이밖에 기타사업 부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비중이 각각 12.19%, 6.19%, 초중등사업 부문이 10.87%, 7.09% 등이다.

박신애 대신증권 연구원은 "메가스터디가 정책 변화 등 여러 악조건을 이겨내기 위해 사업 다각화를 추진했다"면서도 "전체 매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중·고등부 온라인 강좌 매출이 줄고 있어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메가스터디는 수익성 악화에 따른 금융비용이 지난 2011년 1억4000만원에서 지난해 4억9800만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관계기업 투자손익은 29억8100만원 이익에서 지난해 12억9400만원의 손실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순이익도 2011년 730억원에서 지난해 412억원으로 급감했다. 김미정 기자 mjk@

'사교육 신화' 손주은 사장은 누구

대학 4학년 학비벌이 과외 시작
전문강사 땐 월 수입 5000만원

온라인시대 예감 '메가스터디' 설립

年매출 1000억 '코스닥 황제' 등극도

'신화창조 주역', '코스닥 황제', '스타CEO', '대박신화의 주인공', '손사탐(손주은의 사회탐구)'

손주은 메가스터디 사장을 수식하는 단어들이다. 한때 대한민국 사교육 시장을 대표하는 인물로 꼽히던 손주은 사장.

손 사장은 61년 경남 창원에서 태어나 서울대 인문대학에 진학, 서양사학을 전공했다. 손 사장이 사교육 업계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은 대학 4학년 때 학비벌이를 위해 과외에 나서면서부터다. 이후 양재동 '경인학원'과 서초동 보습학원 '진리와 자유'를 세워 운영했다.

손 사장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사회탐구영역 전문강사로 변신하면서다. 본격적인 대중강의에 나선 손 사장의 강의는 개설 5개월 만에 전 타임이 마감되는 진기록을 이뤄냈다. 당시 손 사장의 강의를 듣기 위해 전날부터 학부모들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고 한다. 이같은 인기에 그는 월수입 4000만~5000만원을 올렸다고 한다. 일반 월급쟁이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다.

하지만 그는 만족하지 않고 2000년 7월 온라인 교육기업 메가스터디를 설립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당시 손 사장은 홈쇼핑채널의 인기를 보면서 입시학원도 인터넷 강의시대가 올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한다.

회사 설립 이후에도 손 사장은 기업의 대표와 스타강사의 역할을 겸임하면서 직접 발로 뛰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2006년부터는 강사로서의 역할 비중을 대폭 줄이고, 기업 CEO로 본격적인 역할 변신을 시도했다.

2000년 말 6억원에 그치던 매출액은 2006년 700억원대를 돌파하고 2007년 1000억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메가스터디의 성공신화는 이내 흔들리기 시작했다. 2010년 정부가 사교육 억제를 위해 수능능력시험과 EBS와의 연계를 강화했던 때였다. 이로 인해 메가스터디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기 시작했고 이는 메가스터디의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

메가스터디는 수입원 다각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았다. 김영학원을 인수하면서 편입시장에 진출하는 한편, 자회사 메가엠디를 설립해 로스쿨, 의·치의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입시교육과 약학대학 입시교육에도 뛰어들었다.

이 회사들을 통해 매출은 늘었지만, 이 역시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편입시장과 의치학전문대학원 교육시장 역시 중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메가스터디의 성공 신화를 이끌었던 손 사장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그야말로 손 사장의 '굴욕'인 셈이다. 하지만 '스타강사'에서 '스타CEO'라는 화려한 성공을 이뤄낸 손 사장의 앞으로의 행보에 교육업계의 관심이 여전히 쏠리고 있다.

문선영 기자 moon@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매각가격 3000억 넘어갈 수도

M&A 성사 가능성은

모건스탠리, 매각 주간사 선정

손 대표·2대주주 지분 32.56%

일각선 최대 2000억 안팎 예상도

사모펀드·동종업체 새주인 물망

구체적 계획·시기는 아직 미지수

#국내 온라인교육업체의 '신화' 메가스터디가 결국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지난 22일 메가스터디는 최대주주인 손주은 대표와 2대 주주인 코리아에듀케이션홀딩스가 모건스탠리를 주간사로 선정해 보유 주식에 대한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업계에서는 메가스터디 M&A 성사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매각 가격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경영권' 누구의 손에 = 손주은 대표(19.83%)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 23.35%와 코리아에듀케이션홀딩스 지분 9.21%를 합친 32.56%가 매각 대상이다. 코리아에듀케이션홀딩스는 사모펀드 H&Q아시아퍼시픽코리아가 2012년 메가스터디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로 H&Q는 2012년 메가스터디의 2대 주주 한국투자증권계열 코너스톤에퀴티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던 9.21%(58만4100주)를 주당 11만400원에 인수했다. 하지만 주가는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 4월 28일 종가는 6만8300원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메가스터디가 당장의 실적 개선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주력부문인 고등 온라인 사업이 수시 비중 확대와 수능 영향력 저하로 매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특목고 입시 철폐 및 내신 강화로 중등 온라인 사업 부문 매출 감소로 당분간 실적 부진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메가스터디의 영업이익은 정부가 교육방송(EBS)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연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은 탓에 2011년 835억원에서 2012년 592억원으로 급감했다.

이 때문에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메가스터디가 기업 M&A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작년 말 이후 꾸준히 흘러나왔다. 또한 H&Q펀드 만기가 내년 도래함에 따라 투자금 회수를 위한 지분 매각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메가스터디 M&A 성사 관건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매각 가격으로 보고 있다. 보유 현금(현금 및 현금성 자산·단기 금융상품·매도 가능 금융자산)이 1000억여원에 달하고 매년 500억원대의 안정적 영업이익을 내는 점은 매각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질적 매각 가격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매각 가격을 높게 잡고 있는 측에서는 4500억원가량의 시가총액과 1000억원에 달하는 현금,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고려했을 때 매각 가격은 3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매각 지분 206만4536주에 현재 주가를 대입하면 지분평가액은 1400억원 정도로 도출되고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 20%를 적용해도 1700억원을 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M&A 향후 일정과 전망 = M&A의 향후 일정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다만 회사 측은 지난 22일 한국거래소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공시를 통해 이와 관련한 재공시 기한은 오는 5월 22일까지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메가스터디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추진설은 지난 21일 장 마감 후 한국거래소 조회공시를 통해 공개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메가스터디에 최대주주 지분 매각 추진설과 관련해 사실 여부 및 구체적 내용을 공시할 것을 요구했다.

메가스터디는 다음 날인 22일 한국거래소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공동 보유자인 코리아에듀케이션홀딩스는 모건스탠리를 주간사로 해 보유 주식에 대한 매각을 포함한 전략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체적 진행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이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이번 매각의 진행 사항을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28일 메가스터디 관계자는 "공시 이후 현재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 답변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또 "공시된 대로 보유 주식 매각을 포함한 전략적 대안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가스터디의 답변 공시 이후 전문가들은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놨다. 김지효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은 "메가스터디는 현금 창출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고등부 사업을 근간으로 해 스타 강사의 적극적 영입을 통한 점유율 확대 및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이 충분하다는 관점을 제시해 왔다"며 "하지만 손주은 대표의 지분 매각은 이러한 관점을 희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동종업계가 메가스터디를 인수한다면 신규 사업에 대한 니즈가 반영된 인수일 개연성이 높아 적극적 사업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며 "또 사모펀드가 인수할 경우 배당성향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다양한 시나리오상 ROE의 개선이 불확실하다면 실적 모멘텀이 낮아지는 만큼 목표 주가 및 투자 의견 조정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미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향후 매각 진행 과정에서 매각 주체·가격 등으로 회사의 펀더멘털과는 무관하게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며 "매각 이후 새로운 인수 주체가 실행할 비즈니스 모델 변화에 관한 지속적인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진· 강인효 기자 heejin@



지분 매각 세금 규모는

과표의 20%를 양도소득세로 손 대표 부담액 170억 이를 듯

메가스터디를 국내 1위 온라인 교육업체로 만든 손주은 대표가 최근 회사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매각이 성사될 경우 부담하게 되는 세금 규모에 관심이 높다.

일반적으로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과표의 20%(중소기업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또 주식 매각에 따른 증권거래세와 필요경비 등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과세당국에 따르면 메가스터디는 지난 2000년 7월 중소기업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이후 합병과 지속적 매출 신장 등을 통해 현재 일반법인으로 분류돼 (매각 후) 과표의 20%를 양도세로 납부해야 한다.

메가스터디 최대주주인 손주은 대표의 지분은 2013년 12월 31일 기준 19.83%(125만7057주)이며, 특수관계인 4명의 지분 3.52%(22만3379주)까지 포함할 경우 23.35%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손 대표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주당 가격×보유주×양도세율)은 약 17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아울러 손 대표와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산할 경우에는 200억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양도소득세 계산에 중요 변수로 작용하는 취득가액과 증권거래세, 필요경비, 기타공제 등을 제외한 최소 금액이다.

앞서 메가스터디는 지난 2000년 7월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은 3억원, 발행 주식수 6만주로 주당 5000원에 설립했다. 이후 메가스터디는 2001년 말까지 불과 1년 새 5번의 유상증자와 3번의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등 사세를 확장했다.

그 결과 메가스터디는 지난해 매출 3168억원, 영업이익 502억원, 당기순이익 412억원을 기록했다. 주당 가격은 4월 25일 종가 기준으로 6만9600원이다. 이와 관련해 증권업계 관계자는 "메가스터디의 매각 지분 실제 가치는 약 1500억원에 이르지만 만일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합산할 경우 매각가는 3000억원대에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고 전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메가스터디의 매각가는 최대 2000억원 안팎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무법인 관계자는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그리고 필요경비 등이 중요 변수로 작용한다"며 "현재 명확히 알 수 없는 취득가액을 감안해 계산할 경우 양도세는 200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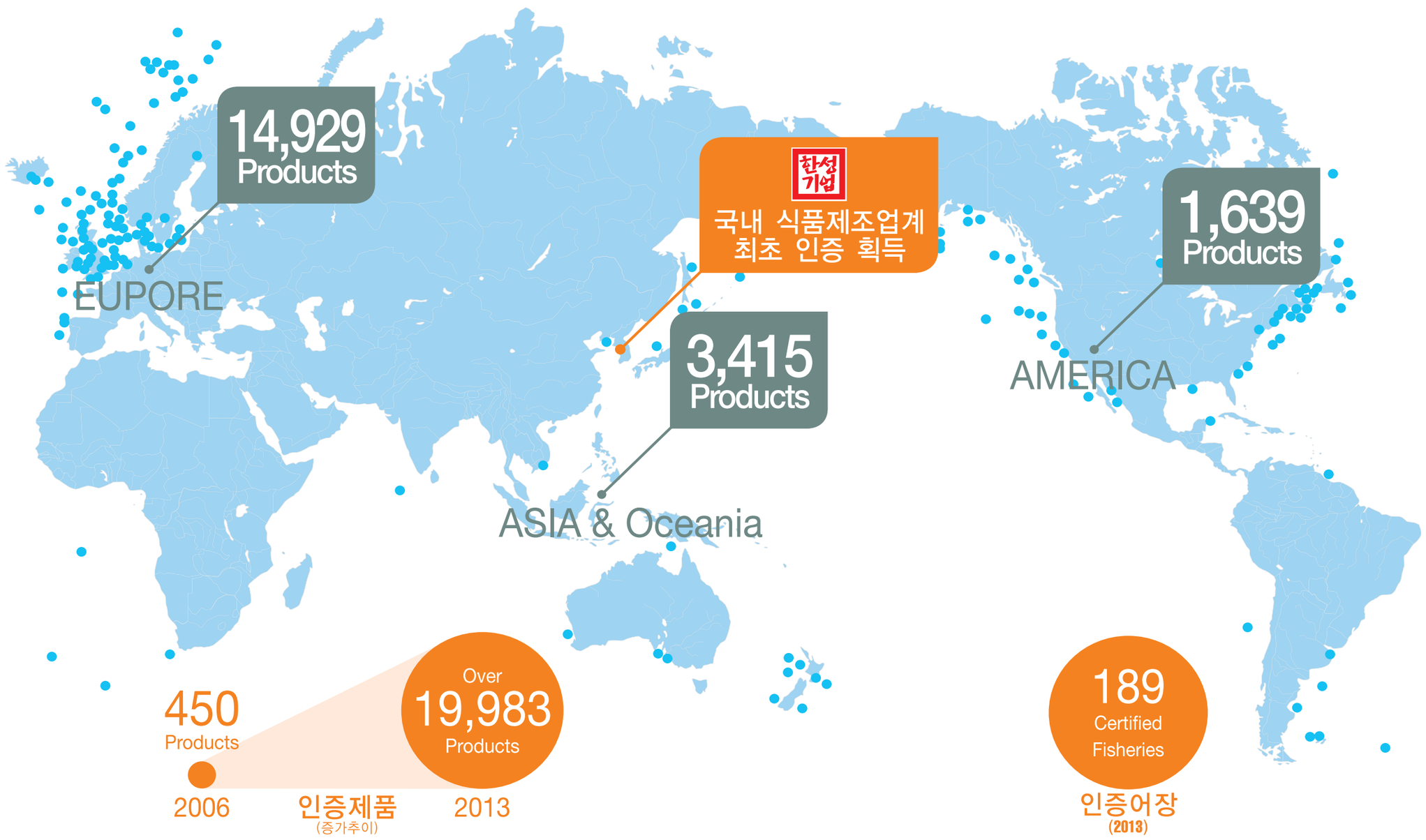
김면수 기자 tearand76@

한성기업

Since1963

국내 식품업계 최초 MSC-COC 인증획득!

바다의 생명까지 생각하는 기업,
국제적인 친환경 기업으로 다시 도약합니다.




MSC CERTIFICATE

CERTIFICATE N°: CUP-C-828534-MSC-2013-01
MSC CERTIFICATION CODE: CUP-C-828534

Field of attention:
Marine Stewardship Council (MSC)
Single site Chain of Custody
for MSC Products

Issued to:
Hansung Enterprise Co., Ltd.
2F, Renaissance Bldg. #45, Ogeum-dong, Songpa-gu, Seoul
South Korea

Standards
Marine Stewardship Council Chain of Custody Standard V. 3.0
Marine Stewardship Council Certification Requirements V. 1.3

Valid until August 6th 2016

CUP declares to have inspected the products and/or units of the above-mentioned licensee, and have found to be in conformity with the standards mentioned above. This certificate covers the product(s) and/or unit(s) and/or process(es) as mentioned in the authenticated annex of this certificate.
This certificate is in force until further notice, provided that the above-mentioned licensee continues meeting the conditions as laid down in the licensee contract with CUP. Based on the annual inspections that CUP performs, this certificate is updated and kept in force. The named supplier of fish and / or fish products has been authorised to provide fish and / or fish products that are eligible to carry the MSC Logo, as certified by Control Union Certifications. For the most up-to-date information visit: www.controlunion.com or www. msc.org. On these websites you can see the scope of the certification.

Date of certification:
07-08-13
Place and date of issue:
Lima, August 7th 2013

Declared by:
On behalf of the Managing Director
Miss Pilar

Control Union Peru SAC
Av. Dos de Mayo 1265,
San Isidro
Lima - Perú
Tel.: + 5117180400
Fax.: + 5114217573

asi

CONTROLUNION

MSC 인증 | 무분별한 수산자원의 남획으로부터 해양자원을 보호하고 검증된 수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윤리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는 국제 친환경 보증 시스템 임니다.
MSC의 엄격한 평가기준을 통과한 업체 및 제품에는 Eco-Label이 주어집니다.

MSC COC(Chain of Custody) 인증 | Target 원료(MSC 인증원료)가 제조공정을 거치는 동안 변질 혹은 혼입 사용되지 않았음을 보증하는 인증으로 원료의 사용이력이 추적 가능합니다.

Marine Stewardship Council
Certified sustainable seafood

- 전 세계 수산업계 및 생태환경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기관
- 인증은 크게 어획/어장 부문과, 유통/가공(COC)부문으로 구분
- 유럽에서는 필수적인 인증 시스템 중 하나이며, 북미지역 내에서도 주요 인증으로 취급되기에 그 인지도는 지속적인 성장중

美·유럽 경제지표 맑음… 장기투자 '선진국펀드' 담아라

전문가들이 말하는 글로벌 펀드 투자 전략은

최근 글로벌 자금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빠져나오면서 선진국 투자 시기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선진국 위주로 유동성이 몰려 수익률 상승을 이끌었다며 이제는 체력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선진국 펀드에 대한 낙관론을 피력하고 있다. JP모간자산운용은 최근 2분기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선진 경제의 회복을 여전히 낙관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2분기 경제지표 개선과 함께 견조한 기업 재무구조 개선 및 경제 개선에 힘입어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과 M&A(인수·합병) 움직임이 긍정적 영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한다. 피델리티자산운용의 제프 호프만 기술분석 담당 이사도 "미국과 유럽 주식시장이 85%를 차지하는 글로벌 증시는 미국의 경기회복과 양적완화로 인한 과잉 유동성 그리고 유럽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론 상승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美 주요지표 호조로 "안정적 성장" 전망
복원력 높은 '내수 위주 중소형주' 주목
유럽, 구조조정 통한 재정건전성 호재
작년 하반기부터 GDP 성장세로 전환
전문가 "완만한 경제회복세 지속될 것"

◇美펀드, 주요 지표 호조세 안정적 성과 '씽씽' = 선진국 펀드의 대표주자인 미국 관련 투자 펀드는 연초 이후 테이퍼링 우려로 투자자들의 애간장을 끓였다. 그러나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초저금리 유지 의지를 밝히면서 우려는 한풀 꺾인 상황이다.

올해는 지난해만큼 화끈한 고공상승 대신 주요 경제지표의 호조로 안정적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펀드평가사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올 연초 이후 미국 관련 선진국 펀드 평균 유형(1.84%)은 동기간 해외주식형 유형 평균(-4.07%) 대비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기준일 2014년 4월 24일). 프랭클린미국바이오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Class A(4.14%), 피델리티미국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3.73%), 한국투자레그메이슨미국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A)(3.22%), KB스타미국S&P5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2.80%) 등이 대표적이다.

KB자산운용 퀀트운용본부 김정아 차장은 "미국 경제지표가 전반적 호조세를 보이고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라며 "KB스타미국S&P500인덱스펀드는 S&P500주가지수 선물 등을 활용해 지수를 추종 중이고 선물 증거금 외의 자금을 우량채권 등에 투자해 펀드 벤치마크 대비 양호한 성과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내 중소형주 투자에 눈길을 돌릴 만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 소형주 지수는 시장 반등 시 강한 복원력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02년과 2009년 저점을 기록한 이후 1년 누적 성과를 살펴보면 대형주 지수인 S&P500보다 모두 25%포인트 이상 상회하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리테일영업본부 함정운 상무는 "미국은 글로벌 주식시장의 45% 규모를 차지하는 큰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중요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중소형주들은 수익의 85%를 미국 내수시장에서 벌어들이는데, 전 세계에서 미국 경기가 가장 빨리 회복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미국 내 노출도가 높은 중소형주가 좋은 투자대상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유럽펀드, 강력한 구조조정 효과 자산가격 회복 중 '쾌청'= 미국과 함께 선진국 펀드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유럽 펀드 역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대세다. 유럽중앙은행(ECB)을 바탕으로 경기 부양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미국 증시 저평가 밸류에이션 등이 맞물려 상승 모멘텀이 기대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최근 유럽의 문제아이던 PIIGS(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이 속속 국채 발행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유럽 자산 가격이 최근 회복세에 들어선 모습이다.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연초 직후 유럽 관련 펀드들의 평균 유형성과(2.51%)는 동기간 해외주식형 유형 평균(-4.07%) 대비 우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유럽배당증권투자신탁1[주식]Class C(4.34%), JP모간유럽대표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4.15%), 한화유로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H[주식]종류 (4.12%), 신한BNPP유로인덱스증권투자신탁1[주식-파생형](종류C-e)(3.69%) 등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유럽 국가들이 임금삭감, 연금삭감, 증세 등 혹독한 구조조정과 함께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점이 호재로 작용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화자산운용의 김종육 매니저는 "그리스와 PIIGS 국가를 중심으로 한 재정 및 경제 위기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던 유로존 경제는 2013년 하반기 이후 GDP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었고, 2014년 이후 완만한 경제 회복 및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중"이라며 "유럽 금융권과 경제 전반의 개혁을 통해 경쟁력도 높아지고 있고 향후 미국과 신흥시장의 수요 확대로 수출은 호전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호실적 배경을 밝혔다.

이 밖에 유럽 배당주 관련 펀드도 유럽 회복 기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우리자산운용 글로벌운용팀 옥혜은 팀장은 "현재 유럽 배당주들은 배당률이 평균적으로 3~4%를 기록하고 있으며, 과거 배당 우량주 지수가 중장기적으로 시장 지수를 이기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유럽 배당주는 배당주 투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미국 금리인상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 추후 발생 가능한 이벤트에도 우량 주식으로 구성된 유럽 배당주는 상대적으로 하방을 잘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우리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우리유럽배당증권투자신탁은 배당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 특히 향후 수익 모델의 구조적 변화로 예상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선별적으로 편입해 성과를 차별화하고 있다.

김경아 기자 kakim@

미국펀드 ※출처:에프엔가이드(FnSpectrum)
단위: 억원, %, 2014년 4월 24일 기준, 설정액 10억원이상 펀드 대상(운용/모펀드 제외)

펀드명	순자산	3개월	6개월	연초이후
프랭클린미국바이오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Class Ae	39.78	-8.07	4.14	4.14
피델리티미국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A	702.13	1.40	3.73	3.73
한국투자레그메이슨미국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A)	84.67	1.16	3.22	3.22
KB스타미국S&P5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A	257.09	2.30	2.80	2.80
삼성미국대표주식증권자투자신탁 1[주식]_A	30.71	3.29	2.71	2.71
미래에셋인덱스로미국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종류C-e	14.48	2.08	2.61	2.61

유럽펀드 ※출처:에프엔가이드(FnSpectrum)
단위: 억원, %, 2014년 4월 24일 기준 설정액 10억원이상 펀드 대상(운용/모펀드 제외)

펀드명	순자산	3개월	6개월	연초이후
우리유럽배당증권투자신탁 1[주식]ClassC1	27.15	2.85	6.76	4.34
JP모간유럽대표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A	87.68	-1.09		4.15
한화유로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H[주식]종류A	23.11	1.70	6.70	4.12
신한BNPP유로인덱스증권투자신탁 1[주식-파생형](종류C-e)	12.28	2.29	6.37	3.69
KB스타유로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C-직판	419.93	2.08	6.34	3.53



전문가 제언 도미닉 로씨 피델리티자산운용 글로벌 주식부문 CIO

"美 경기회복세 탄탄… 증시 상승 이끌 것"

올해 양호한 실적 시즌 전망
상승장 주가 조정시 매수를



피델리티자산운용은 미국의 경기회복세가 투자자들의 예상보다 강한 만큼 증시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도미닉 로씨 피델리티 글로벌 주식부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최근 리뷰를 통해 "미국 경제가 올해 초 다소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경기회복 강도와 기간은 투자자들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증시 상승세 실현의 근거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주식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비싸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낮은 변동성 수준이 밸류에이션 상승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진단한다. 로씨 CIO는 "내재변동성(VIX)이 20을 밑돌면 밸류에이션이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며 "또한 금리상승 사이클은 변동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최근 옐런 미국 연준(Fed) 의장은 금리 상승 사이클의 시작이 '6개월 후'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옐런 의장의 발언으로 변동성이 증가하고 증시가 하락했지만 10년 만기 미 국채는 반응이 없었다"며 "이는 채권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해 우려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현재 △대출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서비스 PMI △소비자 신뢰와 같은 경기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며 재정 적자도 빠르게 줄고 있다.

로씨 CIO는 "낮아진 실적 전망에 비해 올해는 양호한 실적 시즌이 전망된다"며 "밸류에이션과 실적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금은 상승장이 진행 중이며 상승장에서 주가가 조정받을 때 매수를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로씨 CIO는 "올해 미국 주식시장이 오히려 너무 강한 장세를 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위험요인"이라면서 "지금은 상승장이 진행 중이고 상승장에서는 주가가 조정받을 때 매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현재 1800 수준인 S&P500지수가 2000~2300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경아 기자 kakim@

청어詩人選 124



투박하지만 인정이 넘치던 추억 속 거리
무거운 일상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거닐어 보자

정진권 시인의 시는 쉽고도 아름답다. 외유내강(外柔內剛)의 풍경화 같은 황톳빛 슬픔이 있다. 또한 생명의 무구한 천진성을 유감없이 드러내 준다. 그의 시는 한 없이 부드럽고 따뜻하다. 그는 분명 시처럼 살고 있고, 살아갈 것이다. —채규판(시인, 원광대 교수)

| 山岷雨 정진권 시집 |

두 할머니의 싸움

정진권(鄭鎭權)

필명: 산민우(山岷雨)
전북 김제 출생
옥구, 군산에서 성장
월간 〈한국시〉 시 등단
시집 『버보나그네』 출간
한국문인협회 회원
현재 (주)대우M&C 대표이사



당신도 책의 저자가 될 수 있다!

1999년부터 500여 권 출간
각종 문학상과 우수도서에 선정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한 권 남긴다는 것은 인생의 길목에서 무엇보다 값지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책은 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거나 여러 가지 여건(문단의 등단, 나이, 경력, 전국 서점 진열……)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진흙 속에 숨겨진 진주를 찾는 마음으로 원고를 기다리겠습니다.
저자의 의도를 최대한 반영한 기획 단계부터의 협의, 전국 서점 유통과 판매, 언론의 보도자료 배포, 일간지 및 온라인 광고도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출간 대상 원고〉
시집 · 소설 · 에세이 · 자기계발 · 인문교양 · 자서전 여행 · 인물평전 · 학습 · 칼럼 (특별한 아이템이 있는 원고 · 매스컴에 적극적인 홍보가 됐으면 하는 원고)

청어는 따뜻한 마음으로 명품 책을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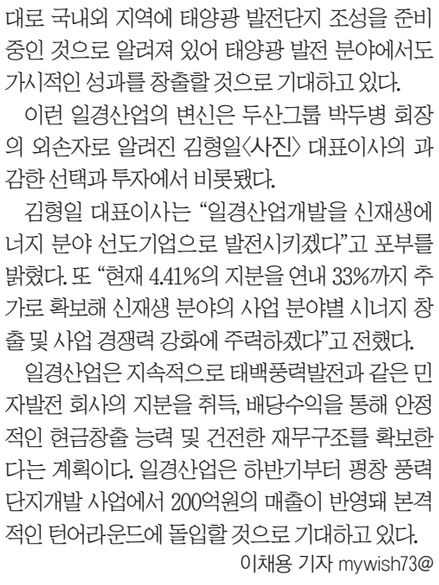
청어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55길 45-8
대표 02)586-0477 | E-mail ppi20@hanmail.net
www.chungeobook.com

〈청어출판사 우리말 사랑 캠페인〉
너나들이 : 서로 너니 나니 하고 부르며 허물없이 말을 건넴 또는 그런 사이

풍력·태양광발전 설계서 시공까지 철강기업 '신재생 에너지'로 재충전

일경산업개발

일경산업개발(이하 일경산업)이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총 74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돼 강원도 평창지역에 설치되는 30메가와트(MW)급 풍력발전소 시공권 수주에 성공하면서 내달 착공을 계획중이다. 일경산업은 고층건물에 적용되는 초고속 엘리베이터, 광산에 설치되는 가이드레일의 국내시장 1위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철강 및 철골 가공에 필요한 일관공정과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일경산업개발(이하 일경산업)이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총 74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돼 강원도 평창지역에 설치되는 30메가와트(MW)급 풍력발전소 시공권 수주에 성공하면서 내달 착공을 계획 중이다.

일경산업은 고층건물에 적용되는 초고속 엘리베이터, 광산에 설치되는 가이드레일의 국내시장 1위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철강 및 철골 가공에 필요한 일관공정과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철강 및 철골 가공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성장동력 사업을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선정하고 지난 2010년부터 관련 기술력 확보에 주력해 왔다.

지난 4개년간의 연구개발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결과 2014년 2월 전년도 매출액의 124%에 해당하는 평창풍력발전의 시공권을 수주했다. 남부발전, 현대중공업, 효성, 삼협건설과 컨소시엄 형태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일경산업은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분야에 있어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토털솔루션 제공을 강점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이며 고효율의 전력 이송이 가능한 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 인정받고 있다.

초고속 엘리베이터·가이드레일 국내시장 점유율 1위

평창풍력발전 시공권 수주…작년 매출액 124% 규모

4.41% 지분 연내 33% 확대… 소수력 분야 개발 모색

현재 태백풍력2단지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으로 이번에 수주에 성공한 평창풍력발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 시스템 설계 및 관련 인허가를 조기에 취득하여 착공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일경산업은 풍력발전 시장의 본격적인 형성에 따라 최근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주력사업으로 선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등 확대되고 있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일경산업이 인정받고 있는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은 인허가 기간을 제외하면 착공 후 1년 이내에 모든 공사가 완료된다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풍력발전 사업분야의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

현재 5MW 이하급의 소규모 풍력단지를 자체 능력으로 조성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가장 발전 효율이 좋다고 알려진 해상풍력 발전 기술력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또 소수력 발전 분야에 대해서도 관련 기술력 확보 및 시장성을 분석 중이고 태양광 발전 분야는 문경 및 제주도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단지 시공 경험을 토대로 국내외 지역에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일경산업의 변신은 두산그룹 박두병 회장의 외손자로 알려진 김형일〈사진〉 대표이사의 과감한 선택과 투자에서 비롯됐다.

김형일 대표이사는 "일경산업개발을 신재생에너지 분야 선도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현재 4.41%의 지분을 연내 33%까지 추가로 확보해 신재생 분야의 사업 분야별 시너지 창출 및 사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일경산업은 지속적으로 태백풍력발전과 같은 민자발전 회사의 지분을 취득, 배당수익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창출 능력 및 건전한 재무구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일경산업은 하반기부터 평창 풍력단지개발 사업에서 200억원의 매출이 반영돼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에 돌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채용 기자 mywish73@

Winners Club 대우건설



지난 13일, 쿠웨이트 KNPC 본사에서 열린 클린 퓨얼 프로젝트 MAB2 패키지 계약식 후 발주처 및 시공사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대우건설

국내선 주택·해외선 대형 프로젝트 집중

1분기 만에 흑자전환 '부활 날갯짓'

올 1분기 영업익·당기순이익 각각 9%·120%↑ '깜짝실적'

5년 연속 국내주택 공급 1위 올해 총 1만9642세대 계획

싱가포르·중동·阿 등서 활발 누적수주액 500억달러 돌파도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지난해 손실을 기록했던 대우건설이 올해 들어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며 부활의 날갯짓을 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28일 매출 2조730억원, 영업이익 1195억원, 당기순이익 639억원의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2.0%,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9.3%, 120.3% 증가한 수치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깜짝 실적'이다. 이로써 대우건설은 지난해 4분기 손실을 기록한 지 1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서게 됐다.

향후 매출의 지표가 되는 신규 수주는 전년 같은 기간 2조1531억원에서 2조7484억원으로 27.6% 늘었다.

주택과 해외 부문이 효자노릇을 했다. 부동산 시장의 훈풍을 타고 주택 부문에서 23.1% 늘어난 1조894억원(전년 동기 8851억원)을 수주했다. 해외 부문은 초대형 플랜트 공사인 쿠웨이트 클린 퓨얼 프로젝트 수주에 힘입어 1조2726억원(전년 동기 5720억원)을 기록하며 122.5% 신장했다.

2분기 들어서도 이미 싱가포르 지하철 공사(약 3650억원)를 수주했으며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대형 프로젝트들의 수주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해외 수주 전망도 밝아 보인다.

대우건설의 화려한 부활은 침체된 회사 분위기를 빠르게 쇄신해 임직원의 역량을 결집한 박영식〈사진〉 사장의 리더십이 빛을 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화와 혁신을 통한 기업가치 극대화'를 경영방침으로 세운 박 사장은 올해를 턴어라운드의 한해로 보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양질의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원가혁신을 통해 수익성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외형적 확장보다는 철저한 수익성 위주의 수주와 더불어 원가혁신을 통한 사업장 관리를 통해 내실을 다져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의 성과는 올해까지 5년째 공급 1위를 지키고 있는 최고의 주택사업 능력과 해외 분야의 경쟁력 강화을 위한 무던한 노력이 빚어낸 결과로 평가된다.

주택 부문에서 최근 수년간 침체된 부동산경기로 경쟁사들이 소극적으로 사업하는 시기에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해왔으며 해외에서 꾸준히 추진해온 지역별·공종별 다각화 전략을 추진해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최근 5년간 해외에서 7개국의 신규시장을 발굴해내기도 했으며, 올해 초에는 국내 건설업계에서 2번째, 최단기간에 해외누적 수주 500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회사를 둘러싼 경영환경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내 부동산 경기 회복 징후를 보임에 따라 주택·건축 부문의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5년 연속 국내 주택공급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대우건설은 부동산 경기 회복의 최대 수혜기업으로 손꼽힌다.

이번 달부터 분양을 시작하는 대우건설은 올해 총 1만9642세대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용산, 서초, 북아현, 위례신도시, 하남, 부천, 김포, 동탄, 광명, 양주 등 서울·수도권뿐 아니라 충주, 당진, 세종, 천안,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상품성 높은 단지들을 내놓아 주택 부문의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의 올해 경영목표는 신규수주 15조원, 매출 9조6700억원, 영업이익 6035억원이다. 1분기 경영목표를 초과 달성한 대우건설은 여세를 몰아간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워크아웃과 몇 차례의 매각을 겪으면서도 난관을 이겨냈던 '위기극복의 DNA'가 있다"며 "건설경기가 아직 긴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했지만 대우건설인 특유의 도전정신으로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3-2280호(2013.10.8) [13-A-CL-212]

50세에서 81세라면
나이가 많아도
아픈 적이 있어도
까다로운 심사없이
가입되니까
지금 편하게 전화하세요!



Cigna 라이나생명

라이나 무배당 OK실버보험(갱신형) 의적질문 및 의료검진 없이 계약이 성립되는 상품으로, 가입 시 특정 질병의 유무가 문제되지 않는 사망보장 보험상품입니다.

☑ 50세~81세 분이라면 나이, 건강, 직업 상관없이 가입!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 등의 경우 계약무효 사유에 해당됨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은 없음

☑ 가입 2년 이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 전액 지급!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 보장 제외. 가입 이후 발생한 재해 사망은 즉시 보장

☑ 질병·재해·사고 등 각종 사망에 대해 사망보험금 보장!
*재해로 사망 시 일반사망보험금의 두 배 지급

24시간 무료 상담 문의 080-026-3030

*최초계약 7년 만기 후 5년 마다 갱신되는 상품으로 갱신 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나이와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갱신 시 최대 86세까지 보장됩니다.(갱신가능 최고 나이 81세). *계약일로부터 만 2년 이내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만 지급. *단, 재해 원인 시에는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돈지출 대비 스텝다운형 ELS 교체 추천

베이비부머 포트폴리오

두 자녀 교육·결혼비용 등 고려해 환금성 중심 투자로
세금우대 ELS·국내 우량주식 비중 확대 고려해볼 만



개인정보 사항
이름: 감은철(男) 나이: 52세 직장: 공기업 근무
가족관계: 아들(28세/대학원 재학) 딸(25세/회사원)
거주지역 및 형태: 서울 은평구 아파트 소유

금융자산
정기예적금: 1억원 부동산: 부인 명의 은평구 상가 소유(5층)
투자상품: 주식투자(현대차 등 우량주 장기투자 5천만원), 채권(3천만원), 월지급식 ELS(2천만원), 랩카운트(3천만원)

지출내역
생활비(월): 400만원 종신보험(월): 200만원
자녀교육비 : 아들(1500만원) 향후 목돈 진출 내역 : 자녀 결혼

김은철씨의 자산관리

[변경 전]

	금액	비중
정기예금	1억	43%
주식	0.5억	22%
채권	0.3억	13%
월지급식 ELS	0.2억	8%
랩어카운트	0.3억	13%
합계	2.3억	99%

▶

[변경 후]

	금액	비중
정기예금	0.2억	9%
주식	0.7억	30%
MMF	0.25억	10%
스텝다운 ELS	0.5억	22%
국내주식형펀드	0.5억	22%
채권(단기)	0.15억	7%
합계	2.3억	100%

올해 52세 감은철씨는 평소에 주변 동년배들보다 노후 걱정을 적게 하는 편이었다. 전셋값 걱정 없는 내 집이 있었고 공기업에 재직 중이기에 정년퇴직 또한 눈앞에 닥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부인 명의의 집 근처 5층짜리 상가건물 또한 그들의 노후를 챙겨줄 든든한 자산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한 28세 아들과,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딸이라는 아직 끝나지 않은 자녀 양육의 문제가 남아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감은철씨는 본인 부부를 위한 노후대비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으로서 혹시나 가장의 부재 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한 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 점. 그리고 퇴직 후에도 사망 시까지의 보험금과 생활비는 퇴직연금과 상가건물에서 매월 얻는 임대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 월지급식 ELS에의 투자는 다소 불필요해 보인다. 물론 절세의 차원에서'과표 분산'이라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고정적인 현금흐름 창출'이라는 월지급식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이 이미 충족된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감은철씨의 경우에는 아직 학생인 아들의 교육비, 그리고 차후에 두 자녀의 결혼 시 지원해주어야 할 결혼 비용이라는 목돈 지출에 대비해야 하는 바, 이를 위한 자산의 증대와 환금성을 우선적으로 포트폴리오에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월지급식 ELS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스텝다운형 ELS로 교체할 것을 권한다. 이를 통해 자녀의 교육비와 결혼비용이라는 재무적 목표를 준비하는 것이다. 다만 기초자산을 지수로 선택해 특정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보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또한 감은철씨의 경우 목돈 지출 시점까지 조기상환을 목표로 하지 않아도 되므로 세금우대 ELS(1년 이상 장기 보유시 9.5% 세율 적용)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음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해외 선진시장에 이은 국내 주식시장의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므로 랩어카운트의 비중을 축소하고 보유 중인 우량 주식의 비중을 확대할 것을 추천한다.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근의 조정 국면을 이용해 가치투자에의 비중을 확대, 기대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다. 나머지 금액은 보유 중인 예금의 일부와 함께 국내주식형 펀드에 적립식으로 투자함으로써 변동성을 낮추도록 한다. 국내 주식형펀드와 주식투자의 경우 펀드 내 배당수익을 제외하고는 과세의 측면에서 유리하며, 해외 펀드에 비해서도 환금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이성환
한화투자증권 올림픽지점 PB

자산운용·소비 황금매칭 '金퇴'로 가는 은퇴 연금술



김진웅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

수명 연장으로 인한 100세시대의 도래, 빠른 고령화 사회의 진행, 베이비 붐 세대의 대량 은퇴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은퇴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은퇴준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외형적으로 3층 노후보장체계가 완성되어 있긴 하지만 현재 베이비 붐 세대들에게는 이러한 체계적인 준비를 할 만한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3층 노후보장제도를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평균 150만원 남짓한 연금이 예상되어 중산층 적정 생활비인 250만원 정도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결국 은퇴 후 적정생활비를 만들려면 추가적인 현금흐름이 필요한데 그 대안들이 별로 마땅치가 않아 보인다. 임대업을 하자니 부동산 침체도 걱정되고 창업은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아 겁이 난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은퇴자산관리 방법은 없을까?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자산운용과 소비를 매칭시키는 방법을 제안해 본다. 금융자산과 퇴직금을 합쳐 3억원의 은퇴자산이 준비된 50대를 가정해 보겠다. 일반적인 소비패턴을 생각해보면 한창 직장을 다닐 때에는 정기적인 월급은 고정적인 기본생활비에 사용되고, 보너스와 같은 부정기적인 급여는 여행이나 취미활동 등 변동적인 여유생활비로 쓰는 것이 보통이다.

은퇴자산관리에 이와 비슷한 개념을 적용시켜 보자. 안정적인 현금흐름 발생 자산으로는 꼭 필요한 기본생활비를 만들고 주식, 펀드 등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을 통해서는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여유생활비로 쓰도록 자산을 배분해 운영할 수 있다.

실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노후생활비의 약 70%는 고정생활비 성격이고 나머지 30%는 상황에 따라서는 쓰지 않을 수 있는 변동생활비로 돼 있다. 따라서 자산배분 역시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현금흐름 자산에 70%, 성과에 따른 부정기적인 현금흐름 자산에 30%를 배분하고 수익률 목표를 4~8% 범위로 운영한다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정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만약, 기존 3층 노후보장제도를 통해 150만원 정도가 준비된 사람이라면 총 250만원 정도를 고정적인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고 100만원 정도는 상황에 따른 여유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원금에서 빼내어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고 원금유지를 추구하며 발생하는 수익만을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100세 시대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기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시니어 투자상품

NH농협증권 '플랜팜'

농협 네트워크 활용… 귀농·귀촌 특화상품 마련

NH-CA자산운용 담당…안정·수익성 높여
농촌 체험·귀농 전문강좌 등 최신정보 제공



은퇴 후 여유로운 시골 생활을 꿈꾸는 베이비부머들을 위한 신개념 은퇴설계 서비스가 나왔다.

NH농협증권이 자사 리서치센터의 계량분석 모델(Quant Model)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NH-CA자산운용이 상품 설계와 운용을 담당해 안정성과 수익률을 함께 높인 귀농·귀촌 토털 은퇴설계 서비스 '플랜팜'을 선보인 것.

'플랜팜(PLAN FARM)'은 은퇴 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고객들을 위한 차별화된 은퇴설계 브랜드로, 은퇴 이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산관리 서비스와 귀농·귀촌 준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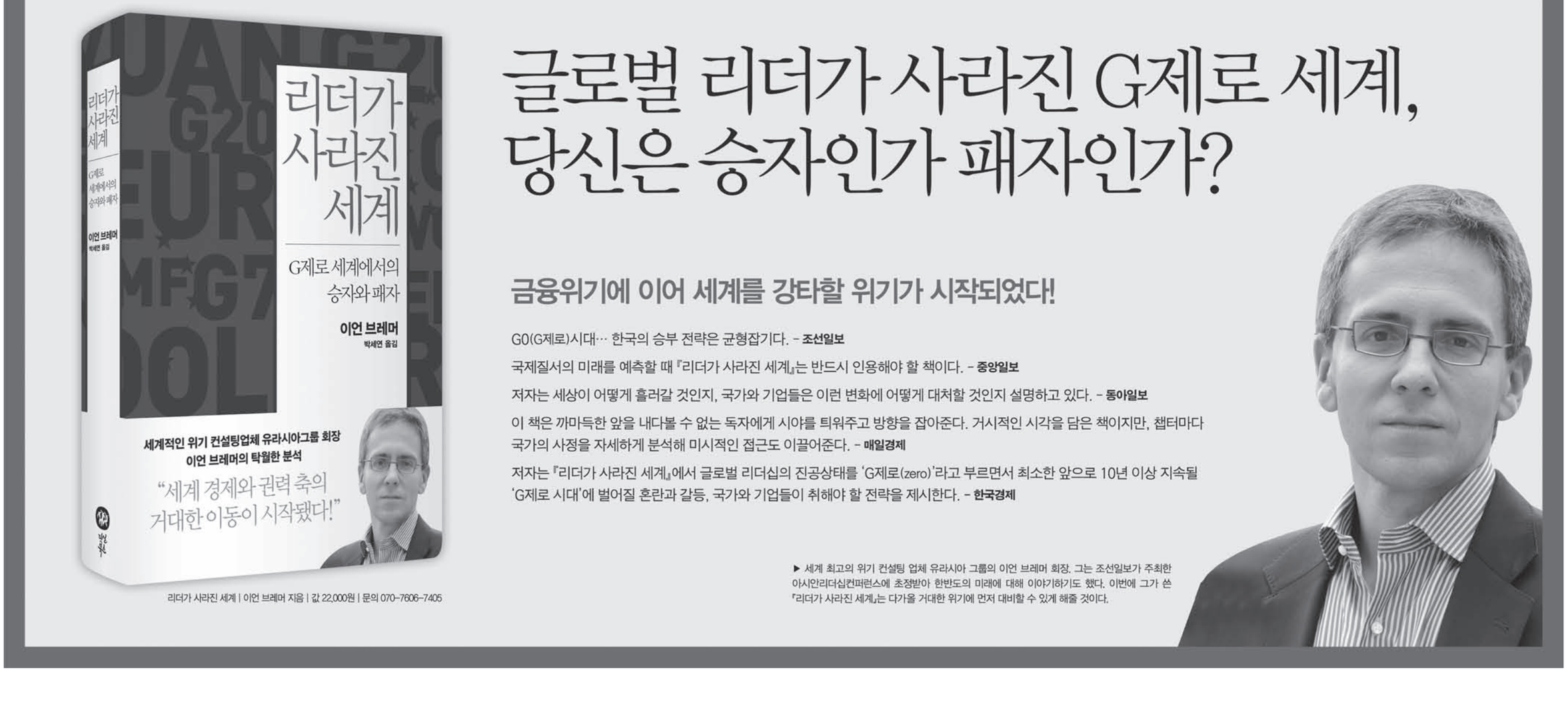
자산관리 상품으로는 적립식으로 목돈 만들기에 적합한 'NH-CA플랜팜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과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한 'NH-CA플랜팜2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이 있다. NH농협증권 리서치센터의 계량분석 모델(Quant Model)을 통해 산출된 포트폴리오 구성을 바탕으로 NH-CA자산운용이 상품 설계와 운용을 담당한다.

NH농협증권 리서치센터 박선오 퀀트 연구원은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때일수록 '원칙'을 세우고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며 "NH농협증권 퀀트 모델은 시장과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업종 대표주나 시가 비중 등을 반영하는 일반적인 접근과는 달리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 통계적으로 검증된 메커니즘으로 종목을 선정해 차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플랜팜' 가입자에게는 전국적인 농협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귀농·귀촌 준비와 선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도시민 귀농·귀촌 따라잡기', '하루에 끝내는 귀촌 정착', '전문가에게 듣는 귀농·귀촌 팁' 등 테마별 전문강좌를 들을 수 있다. 또한 실제 농가에서 숙식하면서 은퇴 후 삶을 직접 체험해보고, 농가의 각종 축제에 참여해볼 수 있는 농촌 체험 서비스(팜스테이)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귀농·귀촌과 관련된 최신의 정보를 업데이트한 소식지를 연 6회 받아볼 수 있으며, 우수고객에게는 프리미엄 세미나 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NH농협증권 장옥석 리테일사업본부장은 "힐링 트렌드와 함께 자연에서 은퇴 후 삶을 꿈꾸는 귀농·귀촌 희망자가 늘고 있지만, 자금 마련 계획과 세밀한 사전 준비는 미흡한 게 현실이다"며 "이번 '플랜팜' 출시를 통해 은퇴를 앞둔 고객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을 두고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고객들의 은퇴 설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오너 개인회사 대한시스템즈, 10년 내부거래 93%

중견그룹 일감몰아주기 실태 ⑦대한전선그룹

28개 계열사중 2곳 기준초과
모회사의 지원에도 자본잠식

대한전선그룹은 1955년 설립된 대한전선을 모태로 한다. 당초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했으나 2013년 초 제외됐다. 무리한 인수합병에 그룹을 정상황시키는 과정에서 자산규모가 줄어든 탓이다. 작년 말 현재 그룹 총 자산은 3조4000억여원 수준이다. 2004년 고 설원량 회장의 타계 이후 부인인 양귀애 명예회장과 장남 설윤석 전 대한전선 사장, 차남 설윤성씨 등이 지배하고 있다. 설 전 사장은 30대 오너로 재계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으나 지난해 말 그룹 정상화를 위해 경영권을 포기했다.

대한전선그룹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외에 28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전선과 티이씨앤코, 대경기계기술은 유가증권시장, 대한광통신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있다. 이들 중 오너 지분이 일감몰아주기 기준치를 초과하는 곳은 대한시스템즈, 대청기업 등이 있으며 대한시스템즈가 매출의 대부분을 계열사를 통해 올리고 있다.

대한시스템즈는 1971년 2월 설립된 수출입·통신전기공사 업체로 2012년 티이씨리딩스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작년 말 기준 설 전 사장이 53.77%, 윤성씨 36.97%, 양 명예회장 9.26% 등 오너일가 지분이 100%인 개인회사로 최근 10년간 평균 내부거래 비율이 93.1%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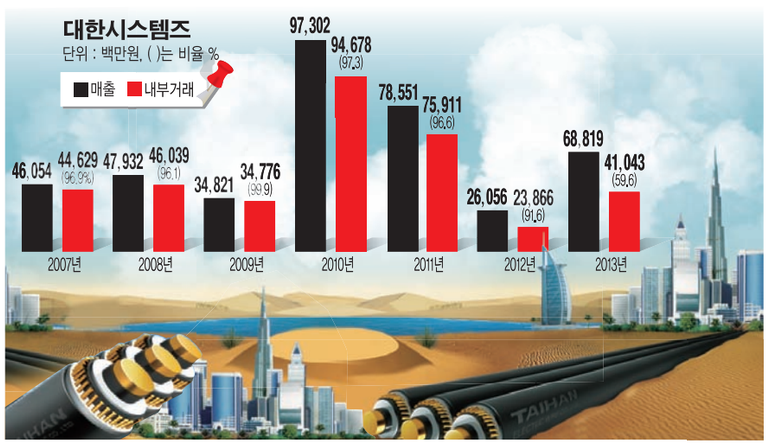
대한시스템즈는 그룹의 모태인 대한전선향 매출 여부에 따라 한 해 매출 규모가 달라졌다. 최근 10년간 매출과 내부거래 비율을 살펴보면 2004년 매출 658억원 중 99.2%인 653억원이 대한전선과의 거래로 발생했다. 이듬해 매출과 내부거래 규모는 각각 805억원, 795억원으로 급증했다. 대한시스템즈는 2005년 이후에도 소폭의 변화는 있었으나 2012년까지 줄곧 90% 이상의 내부거래 비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일감 규제가 본격화한 2012년부터 대한시스템즈의 내부거래 비율에 변화가 감지됐다. 지난 8년 동안 매해 95% 이상의 매출을 내부거래로 달성했으나 2012년에는 내부거래 비율이 91.6%로 떨어졌고 작년에는 59.6%까지 급감했다.

같은 기간 대한시스템즈의 수익성은 오히려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내부거래 비율이 96~99% 수준이던 2004~2008년에 대한시스템즈의 영업이익률은 1% 안팎에 불과했고 내부거래 비율이 최고치였던 2009년에는 적자를 기록했다. 이후 영업이익률이 2~5% 수준까지 회복됐으며 일감몰아주기가 감소세로 돌아선 2012~2013년에는 7~9%대까지 영업이익률이 올라갔다.

그룹 모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한시스템즈의 재무안전성은 대대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상태다. 작년 말 기준 자산총액은 505억원, 자본총액은 마이너스 4288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에 있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매입채무와 외부차입금에 따른 이자 및 지분법손실 등이 누적된 것이 원인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재원 마련·거래량 개선…
상장사 자사주 처분 봇물

최근 상장사들의 자사주 처분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노림수는 제각각이다.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현금 창구로 활용하는가 하면 유통량 증가를 통한 거래량 개선을 위해 자사주를 처분하는 사례도 적지않다.

29일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화네트웍스는 전일 전략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자기주식 70만 9219주를 매각키로 했다. 처분예정액은 20억원으로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될 예정이다.

삼화네트웍스는 주가 안정과 함께 당시 매입가격보다 두 배에 달하는 현금을 쥐게 돼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게 됐다.

SM C&C도 전략적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자사주 매도에 나섰다. 전일 SM C&C는 전략적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2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51만 1508주를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처분키로 했다. 처분 예정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주식 거래량 증가를 위해 자사주 매도를 결정한 사례도 있다. 전날 16억원 규모의 자사주 20만주 처분을 결정한 삼보모터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밖에 대교는 2014년 봄철 실업 배드민턴리그전 우승으로 포상을 주기 위해 2000만원 규모의 2900주를 장외처분하기도 했으며 벽산은 임원 상여금 지급을 위해 250만원 규모 7730주를 장외처분을 결정했다.

이미정 기자 lmj@

증권가, 글로벌 금융기관과 맞손 '윈윈상품' 선봬

업황 악화로 고전중인 금융투자업계가 글로벌 금융기관과 제휴를 맺고 차별화 된 상품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같은 금융투자업계의 행보는 성과가 검증된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상품을 선보여 저금리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대투증권은 지난 22일 일본 노무라자산운용과 MOU를 맺고 노무라자산운용의 글로벌금융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노무라자산운용은 일본 노무라그룹의 계열사로 현재 일본가치주펀드와 미국 하이일드채권펀드, 롱숏 전략 및 더블데커, 커버드콜 전략 등 주요 핵심 상품들이 전 세계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하나대투증권은 이 가운데서도 압축전략형 펀드 유형을 이르면 5월부터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증권도 업계 최초로 지난 10일 두바이 노부스 캐피탈 본사에서 노부스캐피탈과 MOU를 맺고 향후 한국 및 홍콩 지역의 항공기 금융 딜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가지게 됐다.

운용사들의 행보도 눈에 띈다. 롱숏펀드 다크호스로 떠오른 대신자산운용은 지난 14일 미국의 올드 힐 파트너스(Old Hill Partners)의 투자자문을 활용해 글로벌 하이일드 펀드에 투자하는 '대신하이일드 스위칭재간접펀드'를 출시했다. 서호창 대신운용 글로벌운용본부장은 "이 상품은 기존 출시된 하이일드채권형 펀드와 달리 성공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존 펀드의 단점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김경아 기자 kakim@

종목 뒷담화 깡통소리 요란했던 '미래와사람'

1998년 여름 국내 주식시장은 미래와사람(현 윌비스)이 개발했다는 냉각캔 열풍이 뜨거웠다. 냉각캔은 냉장고 없이 차가운 음료수를 마실 수 있게 해 준다던 '신비의 깡통'이다.

미래와사람은 경제성의 한계로 상용화가 어려운 냉각캔을 양산할 수 있는 것처럼 발표해 주가를 잔뜩 끌어올린뒤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하지만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다.

냉각캔이 시장에 소개된 시점은 그해 2월로 미래와사람은 신제품 설명회를 개최, 세계최초로 냉각캔 상용화제품 양산체제를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발표가 있은 뒤 연초 5000원대에 불과하던 미래와사람 주가는 연말엔 4만원대 까지 오르는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당초 회사가 발표한 내용과는 달리 제품이 상용화되지 않았고 당연히 로열티도 없던 얘기가 돼 버렸다.

이듬해 11월 금융감독원은 일부 임원들을 주가 조작과 허위 과장 공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의 처벌은 미온적 수준에서 그쳤고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정권의 실세가 뒤를 봐주고 있다는 등의 설이 무성했다.

이채용 기자 mywish73@

월가는 팔라지만… 5월은 봄이다

"SK하이닉스·기아차 등 실적개선 업종 중심으로 선별대응"

'5월에 팔고 떠나라(Sell in May and go away)'라는 월가의 속담이 국내 증시에서도 통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5월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 올해 5월 역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기아차, LG이노텍 등 실적 개선 기업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며 선별적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교보증권에 따르면 2010년 5월 코스피는 5.8% 하락했고, 2011년에는 2.3%, 2012년에는 7.0% 떨어졌다. 2013년에는 상승했지만 오름폭은 1.9%에 그쳤다.

김형렬 교보증권 연구원은 "신흥국 정치 이벤트 등 올해 5월 주식시장은 보이지 않는 경제외적 변수가 많은 기간이 될 것"이라며 "여기에 헷지펀드의 포트폴리오 저정이 화발히 진행되면서 글로벌 증시 변동성 역시 확대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서동필 IBK투자증권 연구원도 "5월은 정책 기대감이 시장을 지탱해줄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다"라며 "5월에 전통적으로 주식시장이 약했다는 경험치를 감안한다면 공격적인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 마주옥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작년 하반기 이후 시장은 9~9.5배 사이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만큼 최근의 박스권 상단 돌파는 의미가 있다"며 "이는 경기와 기업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박스권 상단 도달에 따라 저항이 나타날 수 있겠으나 경기의 회복 방향과 올해 기업 실적 증가율을 고려하면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김학균 KDB대우증권 연구원도 "기업이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지만 1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밑돌지는 않고 있고, 수출이 회복되고 있다"며 "2분기 양호한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문선영 기자 moon@

	대우증권	교보증권	키움증권	IBK투자증권
예상 밴드	1,950~2,100p	1,950p~2,050p	1,920~2,080p	1,930~2,030P
추천 업종	미추천	은행,철강/비철금속, 태양광, 지주사	IT, 자동차	IT, 소재, 산업재, 필수소비재
업종내 톱픽	농심, GS,엔씨소프트, 대림산업, CJ대한통운, 두산중공업, 현대차, 제일기획	K B 금 융 , POSCO, 고려아연,삼성물산,한화케미칼, 두산	NAVER, 엔씨 소 프 트 , 게임빌, SK하이닉스, 삼성SDI, LG전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NAVER, 기아차, SK텔레콤, KB금융, 삼성물산, 두산인프라코어

인문학 입구에서 망설이는 그대에게, 이 책은 인문학 통행권이다

저는 인문학이 처음인데요



박홍순 지음 | 한빛비즈 | 480쪽 | 반양장본
값 17,000원

진짜 인문학은 우리에게 똑바로 서서 살아가는 힘을 준다
삶에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인문학의 힘을 느껴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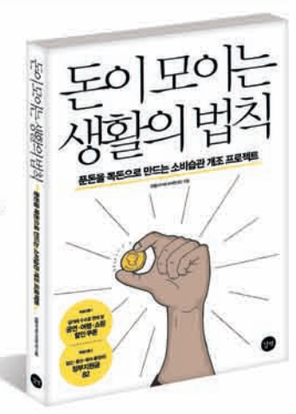
이 책은 인문학 입구에서 망설이는 사람들을 위해 일상의 삶과 생각에서 출발했다. 인문학은 일상의 삶에 밀착해 있다. 일상과 분리된 인문학이라면 신기한 화석에 불과하다. 기원전 플라톤, 혹은 수백 년 전 근대 사상가의 글이 현재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직접 관련이 없다면 박물관에서 만나는 낯선 유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저 자신의 박학다식함을 뽐내는 수단일 뿐이다. 인문 고전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에서 절실한 인문학적 사유와 다양한 문제의식을 담뿍 지녔기 때문이다.

"인문학 책은 많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접근 할수 있는 책은 드물다고 말하고 싶다. 족히 500 페이지에 가까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읽는 내내 재미있었다." – 김햇님 ★★★★★
"인문학을 위해 쉽고 친절한 안내서라 생각한다. 이 책을 통해 인문학의 기본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 기초를 튼튼히 하면 좋겠다."– 스토리매니악 ★★★★★

☏ 문의 : 02-325-5506

다음(daum) 최강 재테크 커뮤니티, 짠돌이카페 80만 회원들을 열광시킨 이야기!

돈이 모이는 생활의 법칙



푼돈을 목돈으로 만드는 소비습관 개조 프로젝트

짠돌이카페 슈퍼짠 9인 지음 | 길벗 | 240쪽
값 13,500원

평균 월급 250만원, 그들은 어떻게 돈을 모으고 불렸을까?

기발한 절약 아이디어와 알토란같은 재테크 정보로 무장한 짠돌이카페의 슈퍼짠 9인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다. 안정적인 삶의 설계를 위한 '소득의 70% 저축하기' '교육비 30만원만 쓰기' '6개월 안에 1천만원 모으기'라는 구체적인 재테크 목표 실천법과 '의료비 100만원 절약하는 법' '사기 당하지 않는 중고물품 거래 노하우' '단돈 1만원의 셀프 미용법' 등 궁상떨지 않는 스마트 절약법이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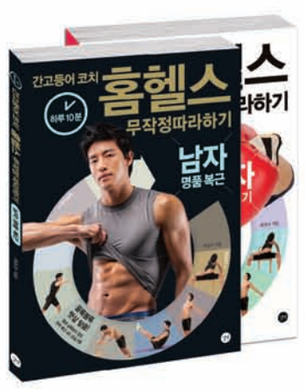
열혈알바 대학생, 신용카드 중독자, 하우스푸어 신혼부부, 4년차 워킹맘, 외벌이 아빠…! 적게 벌어도 똑똑하게 모아 큰돈 만든 9인의 이야기

특별선물1 임신 · 출산 · 육아부터 의료, 창업까지 총정리! 〈입맛 따라 골라먹는 정부지원금 82〉
특별선물2 금 거래 수수료 면제 및 한화리조트 여행, 공연 할인 쿠폰 10종

☏ 문의 : 02-330-9824

"귀찮아도 괜찮아! 게을러도 괜찮아!" 이제는 집에서 운동하는 것이 대세!

간고등어 코치 홈헬스 무작정 따라하기



여자편 : 군살 빼기 남자편 : 명품 복근

최성조 지음 | 길벗 | 240쪽(여자편), 308쪽(남자편)
값 15,000원

절대 실패하지 않는
하루 10분 초고속 홈 다이어트

방송인이자 국민 헬스 트레이너 간고등어 코치는 다가오는 여름이 두려워지는 여성들을 위한 '여자 군살 빼기'편과 출렁이는 뱃살로 매일 아침 출근이 괴로운 남성들을 위한 '남자 명품 복근' 편 두 권을 출간해, 돈·시간·헬스 기구 필요 없이 4주 만에 체지방을 폭풍 감량할 수 있는 운동법을 제시한다. 집에서 간고등어 코치에게 직접 1:1 PT를 받는 효과를 그대로 누려보자.

이런 분들은 이 책을 꼭 선택하세요!
- 운동을 하고 싶지만 바빠서 헬스장 갈 시간이 없다.
- 다이어트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 1:1 개인 PT를 받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스럽다.
- 지금까지의 헬스 책은 따라 하기에 어렵고 지루했다.

☏ 문의 : 02-332-0931

제 22차 출판 연합 광고 캠페인 ◉ 출판사 참여문의 ☏ 070-4333-0098

Stock premium
www.etoday.co.kr/stockpremium

‘만기 밀물’ 닥친 한솔… 회사채 발행 ‘둑 쌓기’

한솔제지 내일 100억 CP상환… 케미칼·아트원제지 사채 발행 ‘유동성 확보’ 총력

회사채와 CP가 연이어 만기가 돼 돌아오는 한솔그룹이 유동성 공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 및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한솔제지는 이달 30일 100억원 규모 CP상환이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4월 30일 발행했던 300억원 규모 중 200억원은 조기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만기가 돼 돌아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솔제지 관계자는 내부 보유자금으로 상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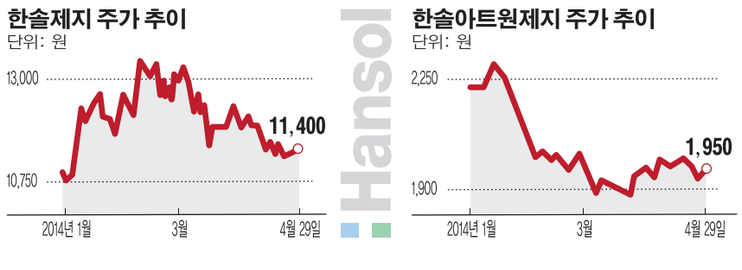
한솔제지는 11월달에 700억원 규모 회사채도 만기가 돼 돌아온다. 한솔제지의 신용등급이 A등급이란 점을 감안할 때 차환이 가능할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다. 한솔제지는 지난해 9월에도 1600억원에 달하는 회사채를 차환발행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성차입금은 요전히 부담요인이다.

한솔제지는 연결기준으로 443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단기성 차입금은 무려 2483억4300만원에 달한다. 한솔제지는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1331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나 영업외 비용이 많아 7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데 그쳤다. 지난해 금융비용은 822억원에 달했다.

현금자산이 10억원에 불과한 한솔케미칼은 9월 29일 4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온다. 연결기준 현금성 자산 역시 77억원에 불과하다.

신용등급 A-로 차환발행 시 얼어붙은 회사채 시장에서 수요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신증권이 주관사로 한솔케미칼의 사채가 미매각되면 떠안게 된다.



한솔아트원제지는 내달 2년 만기 2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 한솔아트원제지는 7월 250억원 규모의 회사채가 만기 도래하는데 회사채 발행을 통해 200억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50억원은 자체 보유현금과 금융권 차입으로 갚을 계획이다.

문제는 신용등급이다. 한솔아트원제지의 신용등급은 BBB로 기관투자자가들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관사인 한화투자증권은 떠안은 회사채 물량을 6%대 고금리로 리테일시장에서 처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기자 khj@

공시돋보기

200억 규모 사채원리금 미지급

중국원양자원, 반대매매 가능성

중국원양자원이 2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했다. 질권 설정된 최대주주 장화리(ZHANG HUOLI) 대표 주식에 대한 반대매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원양자원 측은 28일 “지난 24일 외환규제 미해결 및 이자미지급이 발생해 기한이익이 상실됐었다”며 “계약서에 의해 기한이익 상실의 익일(4월25일)까지 사채원리금 및 이자를 지급해야 했지만 지불하지 못해 28일 기준으로 사채원리금미지급 사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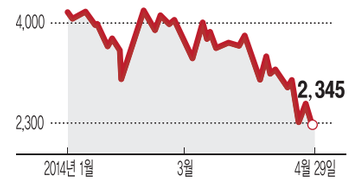
지난해 10월24일 발행한 BW로 미지급금액은 4월25일 기준으로 원금 200억원과 이자 4억27만3973원 등 총 204억 규모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최대주주인 장화리 씨가 보유한 중국원양자원 주식 982만주 가운데 상당수가 질권이 설정돼 있다는 점이다.

중국원양자원은 지난해 피닉스자산운용(150억원), 무림캐피탈(50억원)을 대상으로 BW를 발행하면서 지난 1월까지 채권자들에게 원리금과 이자를 지급키로 했다. 미지급에 대비해 최대주주인 장화리 대표가 보유한 982만주(12.82%) 가운데 90%가 넘는 922만주에 대해 질권을 설정했다.

실적 악화와 장 대표의 잇단 지분 매각 등으로 중국원양자원의 주가는 급락세다. 올 들어 지난 28일까지 주가하락률은 40%가 넘는다. 장 대표의 주식 담보 가치가 하락과 함께 사채원리금 미지급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질권 설정 주식의 반대매매 가능성은 한층 커진 셈이다.

이채용 기자 mywish73@



에이스하이텍, 피인수 회삿돈으로 M&A

IB 전문가 “비정상적”… 회사측 “신약개발 노하우 공유 위한 것”

에이스하이텍이 일본 신약개발업체 교토바이오파마를 인수하면서 피인수 회사 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에이스하이텍은 지난 2월 일본 교토바이오파마 인수를 위해 본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150억원을 지불하기로 계약했다. 우선 에이스하이텍이 지분 100%를 소유한 신설법인 교토바이오파마코리아를 설립해, 이 법인이 교토바이오파마의 지분 60%(34만4400주)를 인수하는 형식이다.

에이스하이텍은 지난 1월 교토바이오파마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를 위해 대표 겐스케 도코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10억원의 보증금을 지급했다. 지난 3월 5억원을 들여‘교토바이오파마 코리아’법인을 신설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신설법인에 각각 10억원, 30억원의 자금을 대여했다. 신설법인을 세운 뒤 에이스하이텍은 1차 65억원, 2차 30억원(4월 17일), 3차 55억원(4월 29일)으로 나누어 인수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본계약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 조건이 눈에 띈다. 인수 대상인 교토바이오파마는 대금이 입금되면 에이스하이텍이 발행하는 지분증권(유상증자, BW, CW 등)을 인수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에이스하이텍은 2차 인수대금을 지급해야했던 지난 17일 55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납입일은 17일, 대상자는 겐스케 도코로였다. 이어 25일 25억원(24억8675만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장증자를 다시 실시했다. 역시 납입일은 25일이었고, 제3자배정 대상자는 교토바이오파마 대표 겐스케도코로와 코드홀딩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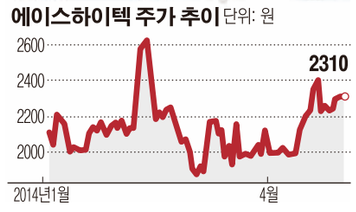
에이스하이텍이 자금을 신설법인에 대여하고 신설법인이 인수 대금을 피인수 회사에 지급하면, 피인수 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해 에이스하이텍에 자금을 수혈하는 모양새다.

한 IB 관계자는 “에이스하이텍이 교토바이오파미 지분과 경영권을 인수하고, 교토바이오파마가 에이스하이텍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의 M&A는 흔하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이스하이텍 관계자는 “교토바이오파마 대표와 주주가 지분과 경영권을 팔고 나가면 원래 진행됐던 신약개발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해 피인수회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윤주 기자 hyj@





동양강철 최대주주 자금조달 안간힘

케이피티유, 420만주 주담계약… 50억 차입금 확보

동양강철의 최대주주 케이피티유가 자금조달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양강철은 지난 21일 최대주주인 케이피티유가 420만주에 대해 신한금융투자와 주식담보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케이피티유는 이 과정에서 5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케이피티유의 1456만9150주 중 171만주를 제외한 1285만주가 주식담보 계약에 묶여 있는 셈이다.

동양강철의 최대주주인 케이피티유는 알루텍, 박도봉 등 특수관계인 11인과 함께 3205만4036주(56.37 %)를 보유하고 있다.

같은날 케이피티유는 단기 차입금 증가도 결정했다.

케이피티유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 차입 형태로 50억원의 단기차입금을 증가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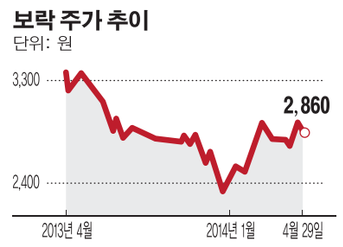
회사 측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주식담보 대출을 받았다”고 말했다.

케이피티유는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유동성이 여전히 좋지 않는 상황이다.

케이피티유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18억원으로 전년보다 23% 늘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20억원으로 29%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사업보고서 상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지난해 11억5406만원에서 25억2567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직접상환에 활용가능한 유동자산은 107억1932만원에서 132억7485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미정 기자 lmj@



보락, 형제끼리 블록딜

정기련 대표 동생 수련씨 101만주

정기련 보락 대표이사의 동생 정수련 씨가 보유주식의 상당수를 장중 블록딜(대량 매매)을 통해 넘겼다. 전체 주식 수의 8.46%에 달하는 대규모 물량으로, 매각 대상은 정 사장을 포함한 친인척 등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정수련 씨는 28일 보유주식 101만4010주를 장내 매도했다. 매수자는 정기련 사장(63만1010주)과 부인 홍영순씨(24만5000주), 남영상사(13만8000주)다.

이번 주식 거래로 정수련 씨의 보락 보유주식은 150만주에서 49만주로, 지분율은 12.56%에서 4.09%로 줄었다. 보락은 정 사장을 포함한 최대주주 측이 549만6240주를 보유해 45.88% 지분을 갖고 있다. 이번 거래는 최대주주 측 친인척 간의 거래로, 전체적인 지분 변화는 없다.

보락 측은 회사 사정에 의한 거래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친인척 간의 거래일뿐이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정 사장의 동생인 정수련 씨가 개인적인 자금이 필요해서 블록딜로 주식을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량이 많기 때문에 장내에서 소화가 안 돼 친인척간 블록딜을 통한 거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진 기자 heejin@



I’Lavita
일’라비타
ITALIAN LIFESTYLE CONCEPT STORE
OPEN 2014.02.28(FRI)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HYUNDAI DEPARTMENT STORE
MAIN STORE · B2F · 02)547-2233

8년 연속 세계판매 1위
2006년~2013년 디스플레이서치 기준
세계TV 점유율 1위

곡선으로 인해

디테일은 경이로워지고

입체감은 완벽에 가까워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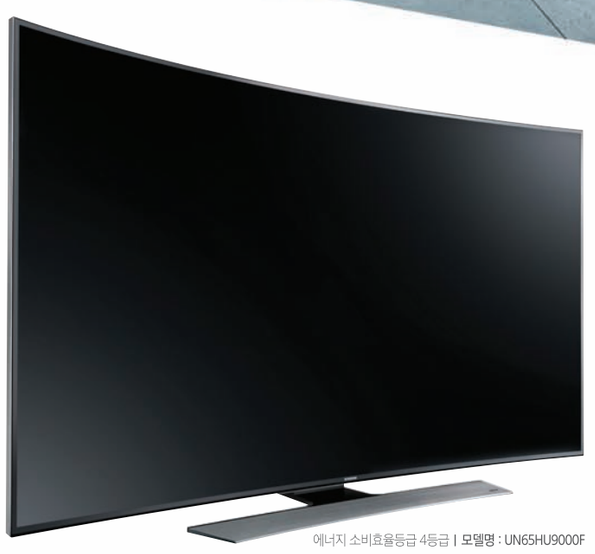
디자인은 더 아름다워지며

컬러는 더 강렬해진다

곡면화질이 만든 압도적 몰입감

삼성 커브드 UHD TV

삼성 커브드 UHD TV 모델 홍 명 보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4등급 | 모델명 : UN65HU9000F

삼성 UHD TV Curved
Ultra High Definition 4K

실제와 같은 몰입감을 선사하는 **커브드 스크린**
일반 영상도 UHD급 화질로 표현하는 **UHD 업스케일링**
생생한 입체감을 더해주는 **원근 강화 엔진**
자연에 가까운 리얼 컬러를 재현하는 **퓨어 컬러**

삼성전자 S'프러포즈 커브드 UHD TV 출시 기념 굿스위칭 프로젝트

압도적 혜택 1 삼성 커브드 UHD TV 구입시 **제습기**(AY15H7000WQD) **증정**
압도적 혜택 2 삼성 사운드바 동시 구매시 **최대 50만원** 상당의 할인혜택
압도적 혜택 3 삼성 커브드 LED 구입시 **사 운 드 바 증 정**
압도적 혜택 4 구매고객 전원 Pooq(푹), Melon(멜론) **8주 무료 이용권** 제공

*행사기간 : 2014. 4. 1 ~ 2014. 4. 30 *행사모델 : 65/55HU9000, 65/55H8000 *본 행사는 행사 매장 내 해당 모델 구매 시에 한하며, 혜택 부여 방법은 행사 매장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SAMSUNG